

#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Vol. 8 (1998)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  
제8호 (1998년)

LAW OFFICES OF SONG K. KIM  
294 Washington Street Suite 752  
Boston, Massachusetts 02018

#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 김성군 변호사

저희 법률 사무소는 교포 여러분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성군 변호사

- \* 서포크 법과 대학원 J.D.
- \* 주법원 판사 보조
- \* 메사추세츠주 국제 투자 개발원 근무
- \* 메사추세츠 주립대학교 졸업
- \* 성균관 대학교
- \* *Gargill, Sassoon & Rudolph, William Diller*  
합동 법률 사무소 근무

### ❖ 교통 사고 및 처리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 ◇ 교통 사고 피해 보상
- ◇ 교통 사고 후유증
- ◇ 취중 운전

### ❖ 이민법/국제 투자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 영주권 이민/투자 이민 수속
- ◇ 장단기 취업 비자 취득
- ◇ 유학생 비자 변경

### ❖ 사업체 설립 및 매매에 대해 궁금하십니까?

- ◇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제반 서류 작성
- ◇ 사업체 매매 계약서 작성
- ◇ 리스가 만기되어 갱신하는 경우
- ◇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 ❖ 라이선스가 필요하십니까?

- ◇ BEER/LIQUOR 도매 소매 허가증
- ◇ 각종 허가 변경 및 갱신

### ❖ 가정법

- ❖ 상용 및 주거용 부동산 구입 및 판매
- ❖ 법정 통역, 공문서 번역, 공증

상해 보상은 변호 비용 부담이 전혀 없으며, 소송의 완결, 성공 이후에만 지불합니다.

**Tel.(617) 482-1300 Fax.(617) 482-3344**

**Song-Kun Kim, Esq.**

**294 Washington St. Suite 752, Boston, MA 02109**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NE) was established on August 18, 1990 to provide a coherent political voice within the community. The goals of the League are to encourage active Korean-American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to educate Korean-Americans about their right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s American citizens, to enhanc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America, and to contribute a uniquely Korean element to American society.

To these ends, KACL has performed the following activities:

1) Voter Registration Drive Within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The League has been working to increase voter registration by writing articles in the local news media, sending mail to the Korean-American citizens in the New England, and various other methods.

2) Assisting Preparation for Citizenship Applications

The League has published the "Citizenship Test Guidebook" in both English and Korean, provided free classes on the citizenship test, and sponsored written tests on U.S. government and history in both English and Korean. Also the League has provided free Citizenship Workshops twice a year since 1997.

3) Endorsing and Supporting Politicians

KACL has endorsed politicians who support the rights of Korean-Americans, including William Clinton, Edward Kennedy, William Weld and Scott Harshbarger.

4) Lobbying

The League has lobbied for and against passage of laws affecting rights of Korean-Americans, including a letter-writing campaign to the U.S. President and Congressmen against passage of the welfare and immigration reform bill.

5) Public Relations Campaign

KACL has publicized its activities to both Korean-Americans and non-Korean-Americans by publishing Journals and Newsletters, writing articles, placing advertisements in local news media, and direct-mailing to Korean-Americans.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Vol. 8 (1998)**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회지 제8호 (1998년)

**Published By**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11 Bartkus Farm Rd., Concord, MA 01742  
Tel.: (978) 369-0351 & (603) 659-6732  
Fax.: (978) 371-1217 & (603) 659-5488  
November 30, 1998

**Publisher** Hong Kyun Choi

**Editor** Moon Yeal Lee

**Editorial Board Advisor** Kyung Min Park

**Editor in Chief** Michael M. Kim

**Editorial Board** Moon So Kim, Yang Kil Kim, Yung Hoon Choi, Paul S. Chung, Steve Choi, Eui In Lee  
Kyung Won Park, Song-Kun Kim, Yon K. Corkum, Steve Ham, Kay Dong

**Printed By** Bigwood Press, 100 Grove Street, Worcester, MA 01605 Tel. (508)754-1608

발행처 /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발행일 / 1998년 11월 30일

발행인 / 최홍균

편집인 / 이문열

편집고문 / 박경민

편집위원장 / 김명기

편집위원 / 김문소, 김양길, 최영훈, 정석호, 최낙철, 이의인  
박경원, 김성균, 김연숙, 함성기, 이경해

Page	3. 발간사 Message from President	회장 최홍균 Hong Kyun Choi, President
	5. Congratulatory Message	Joseph I. Lieberman, United States Senator, Connecticut
	6. Congratulatory Message	Olympia J. Snowe, United States Senator, Maine
	7. Congratulatory Message	Edward M. Kennedy, United States Senator, Massachusetts
	8. Congratulatory Message	Argeo Paul Cellucci, Governor, Massachusetts
	9. Congratulatory Message	Jeanne Shaheen, Governor, New Hampshire
	10. Congratulatory Message	Lincoln Almond, Governor, Rhode Island
	11. Congratulatory Message	Barney Frank,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Massachusetts
	12. 격려사 Congratulatory Message	대한민국 주보스턴 총영사 이양 Yang Le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to N.E.
	13. 이사장 인사 말씀 Message from Chairperson	이사장 이문열 Moon Yeal Lee, Chairperson of the Board
	14. 이임사 Farewell from the Past President	전임 회장 김양길 Yangkil Kim, Past President
	20. 시민 협회 활동 보고 Activities of the League During 1998	사무총장 김명기 Michael M. Kim, Executive Director
	22. 미국을 알고 배우자 - 오늘날의 이나라는 왜 부강한가 Knowing and learning the United States - Why this country is strong	고문 박경민 Kyung Min Park, Advisor
	26. Planting the Seed	Thomas S. Kim, 1998 KACL Political Scholarship Recipient
	27. The Public Health of Korean Americans: A Commissioner's View	Howard K. Koh, MD, MPH Commissioner of Public Health,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28. 시민권 취득 안내 Guide to Obtaining Citizenship	부회장 김성군 Song-Kun Kim, Vice President
	29. 사진으로 보는 시민협회의 활동 Activities of the League; Pictures	(1998년) (1998)
	32. 신문 기사로 보는 시민협회의 활동 Activities of the League; Newspaper Articles	(1998년) (1998)
	34. 시민협회에 참여하고 도와주신 분들	(편집 위원회)
	35. 재무 보고서 Financial Report	재무 이현주 Hyon C. Yi, Treasurer
	36.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헌장 Constitution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1996년 10월 19일 개정) (Amended on Oct. 19, 1996)
	40. 협회 임원, 이사 명단 및 주소록 Name and Address of the Board of Directors	(1998년 10월 31일 현재) (As of Oct. 31, 1998)
	43. AAUD에서 떨어진 한인의 위상	사무총장 김명기
	44. 뉴잉글랜드 지역 업소 전화록	(편집 위원회)
	47. 시민협회 입회 원서	(편집 위원회)
** 기타 기사:	4. 하시바거 MA 주지사 후보 지지 성명	
	25. 미국 시민권 취득 안내, 「재외동포」 용어의 정립	
	35. 1999년도 예산 및 사업 계획	
	43. 편집 후기	

지난 3년 동안 시민협회의 회장으로 열심히 일하셨던 김양길 회장님의 뒤를 이어 제4대 회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거워움을 느낍니다. 김회장님께서 재임 중 시민권 취득을 도와주는 일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협회의 수입을 현저히 늘렸고, Newsletter의 발간을 시작하는 등, 여러 사업을 열성을 가지고 추진하셨습니다. 이제 9년째 되는 시민협회는 김회장님의 지도하에 더욱 성숙한 단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90년 창립 이후 시민협회에서 해온 여러가지 활동이 김회장님의 이임사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민협회가 해왔던 사업들을 계속해 가면서 특히 다음 세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첫째는 시민협회 회원의 주류를 이루는 1세대들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권 취득을 돕는 일입니다.

미국에 오래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주권만 가져도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조국과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생각, 또한 한국에 있는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법이 바뀌어 시민권자도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이상, 시민권을 모두 취득하여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정치력을 키워야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것은 미국에 사는 우리와 우리 2세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조국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시민협회는 시민권 취득을 위한 워크샵을 1년에 2회 이상 가질 계획입니다.

둘째는 2세대들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치인턴을 돕는 일입니다.

소수 민족인 우리들의 정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직책에 한인들이 많이 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여러

정부 기관의 Summer Intern을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협회는 금년 처음으로 Intern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고, Thomas Kim(김성훈)군이 첫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민협회의 주요 사업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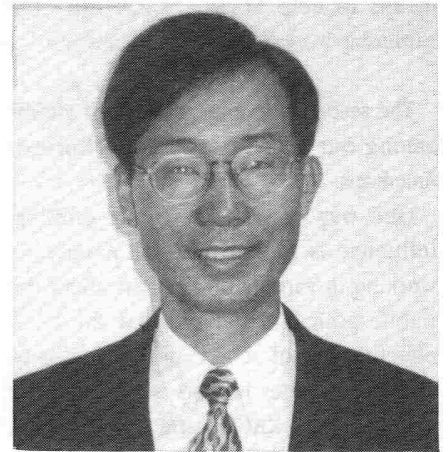
셋째는 한인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민협회 현장은 한인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선거에서 시민협회는 MA 주지사 후보로 Scott Harshbarger 현 검찰총장을, MA 검찰총장에 Brad Bailey 후보를 지지하였습니다. 지난 8월 27일에는 Harshbarger 후보를 위한 모금 행사를 성공적으로 가졌는데, 150여명이 참석하여 약 \$14,000달러의 기금을 모았습니다. 이 행사에 협조해 주신 노인회, 경제인협회, 세탁인협회에 감사드리며, 수고해 주신 모든 임원, 이사님들,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일을 수행하는데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 협회지에 광고로 도와주신 여러 교회, 절, 업체, 단체들에게 감사드리며, 회비, 이사회비와 찬조비를 내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회비 및 찬조금을 내 주시며, 행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권자는 정회원으로, 영주권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준회원은 임원, 이사가 될 수 없는 것 외에는 정회원과 같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협회 가입원서는 회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노력에 모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 immense responsibility has been placed on me as I succeed Mr. Yangkil Kim, who worked very hard for the past three years, to the fourth presidency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KACL). Mr. Kim,



among other things, initiated the citizenship workshop following the passage of welfare reform legislation that cut benefits for legal residents, increased the income of the League, and started the publication of newsletters. Under his leadership, KACL has become a more mature organization. KACL's activities since its founding in 1990 have been well summarized in Mr. Kim's farewell message.

Among all the activities of KACL, I would like to place emphasis on the following three activities.

The first is to help first-generation Korean-Americans receive their U.S. citizenship.

Many of you have not received your U.S. citizenship. There may be several reasons why you have not done so; it does not affect your daily life, it would make you feel as though you have severed ties with your motherland, or it would limit your property rights in Korea. As for the last, however, recent changes in Korean law now ensure that foreigners have the same property rights as Korean citizens. And as long as we decide to live in the States, we must obtain U.S. citizenship and increase our political power by taking an active part in the political process. Our political power will not only enhance our abilities to protect our rights and those of the Korean-American

generations to come, but it will also give us a means to help Korea. KACL will host citizenship workshops at least twice a year.

The second is to support political interns among our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s.

One way of increasing our political influence is to have Korean-Americans working in various offices that affect the public policy. I believe that the most effective way of achieving this goal is to support summer interns working in the government. KACL initiated a support program for these political interns this past year, and the first recipient was Thomas Kim. This promises to be one of the key programs of the League in the future.

The third is to endorse political candidates who stand for the rights of Korean-Americans.

This year, KACL endorsed Massachusetts Attorney General Scott Harshbarger as a candidate for MA Governor and Brad Bailey

as a candidate for MA Attorney General. On August 27, a fundraising party was held for Scott Harshbarger. More than one hundred and fifty people attended the party and we raised approximately \$14,000. We want to thank the Korean Elderly Association, Korean Business Association and Korean Dry Cleaners' Association for their support. We also appreciate the contributions of all the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fundraising, and in particular the fundraising and food committee members for their tireless efforts.

To carry out these activities, your active support is essential. I would like to thank many churches, temples, businesses, and organizations for their contributions by placing ads in our Journals. I extend my sincere appreciation for those who have paid membership dues, director's fees, and donations.

I urge you to join the Citizens League, pay your dues and contributions, and participate in the various activities of the League. U.S. citizens can become regular members and

permanent residents can become associate members. Other than being able to become Board members, associate members have the same rights as regular members. The application form is included in this Journal. Please join us in our efforts towards political empowerment of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Thank you for your support.

시민협회의 회장, 최 홍균박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M.I.T. Lincoln Laboratory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Dr. Hong Kyun Choi, President,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received the Ph.D. degree in electrical engineering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He now works at Lincoln Laborator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하시바거 MA 주지사 후보 지지 성명 (전재)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는 지난 98년 6월 13일 이사회를 갖고 현 MA주 검찰총장인 스캇 하시바거 (Scott Harshbarger) 주지사 후보 (Candidate for Massachusetts Governor)를 9월의 예비 선거 및 11월 본 선거에서 지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시바거 검찰총장은 지난 해부터 그의 선거 참모를 통해 시민협회에 지지를 부탁해 왔었고, 최근에는 본인 직접 김양길 회장에게 각각 편지와 전화를 통해 지지를 요청해 왔다.

시민협회는 하시바거 검찰총장이 협회 헌장에 규정된대로 우리 한인들을 비롯한 아시아계 소수민족의 이익과 입장을 지지해 온 정치인으로 인정하고 지지를 결정하였다. 그는 지난 8년동안 증오성 범죄 및 인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 열심히 일했으며, 검찰청 내에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 사람들을 검사로 임명하였고, 아시아 주민 담당 검사직을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또한 주지사에 당선되면 능력있는 소수 민족의 등용문을 넓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시바거 검찰총장은 지난 8년동안 매년 Asian American Unity Dinner에 참석하여 아시안계에 대해 진정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왔는데,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 중국계를 중심으로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시민협회는 지지 발표와 함께 하시바거 검찰총장을 위한 기금 모금 파티를 갖기로 하고, 이를 위해 최홍균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시민협회는 94년 월드 전 주지사 모금 때와 같이 경제인협회, 세탁인협회, 의사협회 등 여러 단체들과 협조하여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정치력을 신장시키는 이 행사에 많은 뉴잉글랜드 동포들이 참여하여 한인들의 뭉친 힘을 발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JOSEPH I. LIEBERMAN  
CONNECTICUT

## United States Senate

WASHINGTON DC 20510

Dear Friends:

Congratulations to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for another outstanding year of service to the Korean community and to our country as a whole. Our nation is a richer place when all Americans participate in the civic and political process, and your group has done much to encourage such participation. Thank you for your efforts.

Like your organization, I am committed to working toward an America free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I applaud your members' work in helping to reach this goal. I look forward to cooperating with you in the future on enhancing the values of fairness, decency, and commitment to family and community that form the foundation of our country.

Best wishes for a productive meeting and continued success in all of your endeavors.

Sincerely,



Joseph I. Lieberman  
UNITED STATES SENATOR



UNITED STATES SENATE  
WASHINGTON, D. C. 20510

OLYMPIA J. SNOWE  
MAINE

September 16, 1998

*Dear Friends:*

*I am pleased to extend my congratulations and very best wishes as you celebrate the 8<sup>th</sup> annual publication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I applaud your efforts to be a voice for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Yours is a long and rich heritage, and your contributions here in America have been truly exceptional. By advocating for issues important to you, and involving yourselves in the political process, you are writing your own significant chapter in the story of our great democracy.*

*Again, it is a pleasure to extend my appreciation very best wishes for continued success.*

*Sincerely,*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Olympia Snowe', written in a cursive style. The signature is positioned above the printed name and title.

OLYMPIA J. SNOWE  
United States Senator



EDWARD M. KENNEDY  
MASSACHUSETTS

**United States Senate**

WASHINGTON, DC 20510-2101

Dear Fri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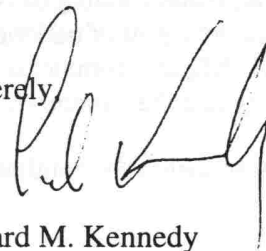
I extend my warmest wishes and congratulations to the members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I commend the League for its commitment to see that Korean-Americans are actively involved in the democratic process. Our nation's cultural diversity has always been one of America's greatest strengths, and I commend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for your impressive contributions to America's rich cultural heritage and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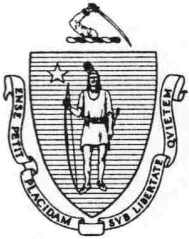
I look forward to working closely with you in the years ahead, and I congratulate you on your dedication and achievements!

With respect and appreciation,

Sincerely,



Edward M. Kennedy



ARGEO PAUL CELLUCCI  
GOVERNOR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EXECUTIVE DEPARTMENT

STATE HOUSE • BOSTON 02133

(617) 727-3600

September 1998

Dear Friends:

On behalf of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I extend warm greetings as you celebrate the 8<sup>th</sup> annual publication of the Journal of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NE).

Through charitable endeavors and social programming, the KACL-NE has distinguished itself through its continued commitment to serving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Indeed, the KACL-NE has enriched the lives of many individuals. Working to foster an understanding of cultural differences, Massachusetts has been and continues to be at the forefront of national cultural awareness. I applaud the outstanding efforts of the KACL-NE, and commend its uncompromising dedication to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and the Commonwealth at-large.

Best wishes for continued success.

Sincerely,

  
Argeo Paul Cellucci



JEANNE SHAHEEN  
GOVERNOR

**STATE OF NEW HAMPSHIRE**

OFFICE OF THE GOVERNOR

September 1998

Dear Friends:

I am pleased to have this opportunity to offer my greetings to the participants of this year's annual meeting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especially those members who live and work in New Hampshire.

Celebrating diversity while preserving the unique cultural heritage of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helps to promote a better understanding of both local and global issues. Historical events and current headline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League's efforts to involve its membership in the political process to assure a voice in those issues which affect Korean-American interests.

Best wishes for a successful annual meeting. The strength of our state, our region, and our country is based on the diversity of our people. As Governor of New Hampshire, I applaud your efforts to preserve the beauty and history of Korean culture while participating fully as American citizens living in the New England area.

Very truly yours,

A handwritten signature in cursive script that reads "Jeanne Shaheen".

Jeanne Shaheen



Governor's Residence

September 9, 1998

Mr. Yang Kil Kim  
President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182 Olympic Lane  
North Andover, Massachusetts 01845

Dear Mr. Kim:

Marilyn and I would like to sincerely thank you for the wonderful copy of the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On behalf of all the people of the State of Rhode Island, we thank you for all your support and encouragement.

Sincerely,

Lincoln Almond

LA: cp:sa

BARNEY FRANK  
4TH DISTRICT, MASSACHUSETTS

2210 RAYBURN BUILDING  
WASHINGTON, DC 20515-2104  
(202) 225-5931

29 CRAFTS STREET  
NEWTON, MA 02158  
(617) 332-3920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

558 PLEASANT STREET  
ROOM 309  
NEW BEDFORD, MA 02740  
(508) 999-6462

222 MILLIKEN PLACE  
THIRD FLOOR  
FALL RIVER, MA 02721  
(508) 674-3551

89 MAIN STREET  
BRIDGEWATER, MA 02324  
(508) 697-9403

September 15, 1998

Mr. Yang Kil Kim  
President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182 Olympic Lane  
North Andover, Massachusetts 01845

Dear Mr. Kim,

Thank you for sending me a copy of the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The unique thing abou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not that we are tolerant of minorities, but rather that we, unlike most other nations, have in fact no majority. That is, we are a nation composed of minorities. And we draw our strength from the cultural, social, and economic contributions which the various cultures make.

The Korean-American culture is one of the strongest and I am delighted to send you my best wishes. Given the strong ties that exis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forged in the fight against aggression in 1950-1953, it is entirely appropriate that Korean-Americans have been such an important part of American society, indicative of the great bonds between the two countries.

Especially in recent years with legislation emanating at the national level which has cut back on the ability of people to come from other lands and become full members of our society, I am delighted to work with your organization to preserve the tradition of unity from diversity which has been so important in creating the America we live in.

  
BARNEY FRANK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ONE FINANCIAL CENTRE, BOSTON, MA 02111**

TEL. (617) 348-3660 • FAX. (617) 348-3670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의 8번째 회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협회는 지난 1989년 한인회 송년행사때에 태동이 되어, 1990년 4월 한인회 이사회에서, 「한인회는 문화 행사를 맡되, 시민협회는 정치적 행사를 맡는」 한인회 산하 기관으로 조직토록 합의를 본 후 1990년 8월에 창립되었습니다.

시민협회는 지난 8년 동안 끊임없는 노력속에 꾸준히 성장해 오면서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한인의 정치력 신장과 권익 확보를 위해 각종 캠페인을 주관하였고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돕기위해 워크샵을 무료로 개최하였으며, 사회 복지 법안 복원 운동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보아 이제 시민협회는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체로 부상하였으며, 이를 자타가 인정하게 된 것에 경의와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가 우리 동포들이 제2의 조국인 미국내에서 정치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북돋아 미국내 한인사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동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으로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8번째 회지 발간을 축하드리며,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협회의 제8차 정기 총회를 마치면서, 먼저 시민협회를 격려하고 후원해주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협회의 제3대 회장직을 맡기 이임하시는 김양길 회장 내외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협회도 여타 직능단체와 마찬가지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김회장께서는 봉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남다른 노력으로 본 협회의 예산액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남을 돕는 일은 누구나 즐거움으로 할 수 있지만 도움을 청하기는 어렵고 힘들어 때로는 좌절감마저 느끼는 때가 있지만, 내가 이 회장직을 맡게 된 것도 하나님이 맡기신 봉사직임을 다짐하며 이겨나간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 역시 뜨거운 마음으로 공감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왔습니다. 이제 중임을 극구 사양하며 이임하시는 김회장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특히 그림자처럼 회장님과 함께 본 협회를 도우시던 사모님께 더욱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한편, 새로 취임하시는 최홍균 회장을 우리 모든 이사진이 한마음으로 환영하면서 모든 분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회장은 본협회 창립 이래 실질적인 모든 업무를 시행하며 이끌어 오셨을 뿐 아니라, 여러 동포들께 뉴스레터인 "시민협회 소식"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여러 Asian Organization과 폭넓은 유대 관계를 갖고 수년간 활동해 오셨습니다. 특히 하시바거 주지사 후보의 모금 추진 위원장을 맡아, 동포 한분한분께 전화하여 정성드려 참석을 권유하심으로써, 9월 27일의 모금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은 최회장의 열성과 덕망이었음을 실감하면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간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던 조봉준 부회장의 사임을 섭섭히 여기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협회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소식으로, 그간 기금 모금 위원회의 이사로 수고하시던 이경혜 여사께서 부회장으로 선출됨으로써, 그동안 옛 한국식 사고 방식과 습관으로

인해 여성분들께 혹 소홀하지나 않았나 하는 조심된 마음과 부족함이 앞으로는 개선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며, 많은 여성분들의 후원과 활발한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김성군 변호사께서 부회장으로 선출되심은 신임 최회장이 계획하시는 바인, 모든 모임과 행사를 영어로 진행하여 1.5세와 2세들을 주축으로 본협회가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방안의 실천을 위한 첫걸음으로써 기쁘게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시민협회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극적인 참여 의식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2세들을 위해 이민왔다고들 합니다. 부모로서 개인적인 희생을 하면서 2세들을 전문 분야의 유능한 인재로 키워왔고 또한 이러한 성취와 가치에 긍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해야 이들을 미국의 주인으로서 확립시켜 나갈 것인가를 추구해야하며, 이는 우리 동포를 위하고 모국의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주인이라 함은, 이 나라의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해나가는 주정부나 연방 정부의 직책에, 우리 한인어 얼마나 진출하며 또한 역량있는 자리를 차지하는 나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들은 어떤 시험의 통과나 단순한 개인의 역량으로선 달성되기 힘들고, 지지하거나 후원하는 힘에 의해서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협회가 왜 중요하며 또한 동포 여러분들의 후원이 왜 필요한가하는 이유입니다.

유대인의 경우를 보면, 예외없는 뭉친 힘과 단합된 행동으로, 개인적인 이해를 떠나 그들 전체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뭉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단합된 민족성과 행동은 미국의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힘을 발휘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각종의 혜택을 그들 사회로 끌어오고 또한 미국으로 하여금 그들의 모국에까지 엄청난 무상의 원조와 협조를 쏟아 붓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와 우리 후손의 안녕



과 권리, 또한 모국을 위해, 우리도 모두 단합하여야 하며, 함께 시민협회에 참여하고 또한 후원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새로운 회장단과 함께, 2,000년대를 향해 시민협회가 힘차게 재출범함에 대해 각계각층의 격려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떠나는 이사님들께 서운함과 감사를 올리며, 새로 취임하시는 이사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인사에 대합니다.

이문열 이사장은 지역 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봉사한 공으로 주상원의장(Mr. William Bulgee 8/28/93)과 보스톤 시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Mr. Raymond Flynn, 9/25/92, Mr. Thomas Menino, 8/28/93) 감사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현재 보스톤 산성 장로교회의 장로이며, M S Fashion Inc.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Mr. Moon Yeal Lee, Chairperson, received awards from Massachusetts Senate President William Bulger in 1993 and twice from Boston Mayors (Raymond Flynn in 1992 and Thomas Menino in 1993) for his contributions to the community. He is an elder in the Greater Boston Presbyterian Church and President of MS Fashion, Inc.

1990년 8월 18일의 창립총회부터 시민 협회에 몸을 담아, 우리 한인과 후손 세대의 권익을 위한 초석의 하나가 되라는 사명이자 소명이라고 믿으며,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지도 어느덧 만 8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 지난 세월 중, 가장 힘든 자리인 회장이라는 직책으로 3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고, 많은 숙제와 못다한 일들을 남긴 채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것은 아니며, 다시 백의중군의 일군으로 돌아가, 보다 능력 있고 비전있는 최홍균 신임회장의 지도력 아래, 같이 힘 모아 시민협회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기대와 꿈으로 오히려 든든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그동안 저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전체 한인과 후손이라는 대계와 미래를 생각하시며, 차마 감당하기 힘든 노고를 헌신적으로 기울여 함께 해주신 이사장님과 고문님들 그리고 임원, 이사님들께 머리숙여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이분들께서는 회비나 이사회비는 물론, 일년에 몇 백 시간 이상의 소중한 시간을 바쳐 여러 가지 행사와 한인 인권의 신장에 헌신을 다해주셨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정치란 소외당한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흔히 모국과 미국의 「정치」에서 풍기는 개인적인 이익의 도모나 명예와는 진실로 거리가 먼, 이 이민사회에서의 소수민족으로서 소외된 우리 한인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오신 그분들이야말로 진실로 이 사회의 소금이신 분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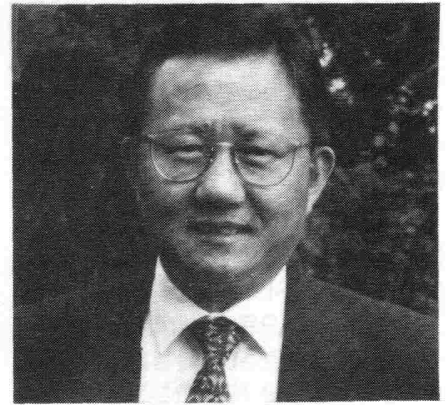
또한 물심양면으로, 때로는 지켜보시며 때로는 필요한 조언과 찬조금으로 지원 해주신 교계의 지도자님들과 여타 단체의 여러분들, 특히 광고로써 활동을 후원 해주신 광고주님들과 수많은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협회는 1990년 8월, 한인의 권익 신장은, 이 미국을 움직이는 근본이자 원천인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는 확보될 수 없다는 깨달음과 신념을 가진 여러분들의 뜻과 의지가 모여 창립되었습니다. 소수민족으로서 미국의 법이 요구하는 납세와 준법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

하면서, 이에 합당한 적절하고 공평한 권익을 요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흑인들이 지난 수십년간 피땀과 수없는 희생속에서 그들의 권익을 확보한 것처럼, 울지않는 아이는 돌아보지 않는 이 현실에서, 정면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길을 개척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소수민족으로서,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힘과 목소리로는 전혀 달성할 수 없는 일이기, 동포로서 서로 힘을 합치고 목소리를 함께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비록 몸은 모국과 떨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모국이 보다 발전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미국의 정치에 영향을 미쳐 모국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고컨대 그 과정은 실로 힘들고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시민협회가 창립되어 걸음마를 할 무렵인 1992년에는 우려하던 최악의 사태인 L.A. 폭동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은 돈만 안다, 이기적이며 흡혈귀다, 당연히 당할 일이라는 논조가 미국의 언론을 연일 휩쓸었습니다. 경찰은 한인의 불타는 재산과, 쓰러지며 위협받는 생명을 무시하고 멀찌기 경계밖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곤 보스톤과 뉴욕 등지에서도 유사한 작은 소요가 휩쓸었습니다.

그 이후, 또 지난 몇년간은 소수민족의 인권을 제한하는 치명적인 각종의 법안들이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개정 이민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행복인, 가족들간의 상봉과 함께 살 권리를 제한하고 뺏는 것이었습니다. 개정 웰페어 법은 언어와 생활습관과 여건이 모두 힘들고 취약한 상황속에서 노력하는 이민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노약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았고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퍼머티브 액션의 폐지는 건강한 사람이나 노약자나 장애자나 모두 같은 출발선이어야 한다는 것처럼 불합리하고 비인도적인 법안으로서 이민자들의 불리함을 외면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이중 언어 교육의 폐지는 개개 민족의 개성과 문화를 버리고 동화되거나 흡수되어야만 한다는 강요였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길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 몇년씩 걸리며 수수료를 몇배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다만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에 연루되었을 시는 추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표면적으로, 또는 드러나지 않는 수없는 제한과 차별의 움직임이 있었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장 민주적이고 평등한 자유의 땅이라는 미국에서 단지 지난 몇년동안에 일어난 일들이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계속될 움직임들입니다.

이러한 격변하는 주변 상황 속에서, 시민협회의 지나온 8년간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새로운 회장의 인도아래 새로운 장을 여는 시민협회를 위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0년은 8월의 창립을 위한 현장 제정 및 조직 구성을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이 경주된 한해였습니다. 진교륜 박사를 연사로 모신 성황리의 창립 총회에 이어, 당시 매사추세츠 주지사 후보였던 Weld의 후원 모금 파티와 당선 파티에 여러 임원들이 참석하였고,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한편으로는 협회의 지표를 모색하기 위해 초대 김영집회장이 L.A.에서의 전국한미 지도자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991년은 먼 미래를 지향하며 협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이사진의 구성 등, 자체 정비에 힘쓰며 정책 수립과 유권자 등록에 주력한 한해였습니다. 10월의 1차 총회에는 연사로 김풍진 여사를



모였고, 회지 창간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92년에는 한인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여파를 던진 L.A.폭동사건이 발생했으며, 대통령 선거와 함께 전국적으로 여러명의 한인들이 정계에 적극 진출을 시도한 중요한 한 해로, 시민협회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해였습니다. 특히 최승훈씨가 매사추세츠주 하원의원으로 출마해, 지지를 위한 캠페인과 후원 활동이 있었고, 2개 대형 교회에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Asian Festival 참가 주선, 청원서 발송 등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2차 총회에는 백린 고문, 최승훈 후보, 김영집 회장이 연사였으며 회지 2호가 발간되었습니다.

1993년에는 AAUD(Asian American Unity Dinner) 및 AACA(Asian American Civic Association) 등의 행사 참여를 통해 여타 소수민족 단체와의 유대를 시작하고, 주소록의 확보 및 연락문 우송, Weld 주지사 및 김창준 하원의원의 강연회 후원 등의 활동이 있는 가운데, 초대 김영집 회장의 환송회와 김은한 2대 회장의 취임이 있었습니다. 협회의 성장을 반영하듯, 제 3회 총회의 연사로는 김창준 하원의원을 모셨으며, 김창준 하원의원 재선 후원이 있었습니다.

1994년에는 연초에 김창준 하원의원의 재선 후원 모금 파티가 개최되었고 (후원 회장 남궁연, \$14,000 모금), 보스턴 마라톤 대회 및 월드컵 축구 후원, 5월에는 매사추세츠 주지사인 Weld의 지지를 결정하고 9월에 후원 모금 파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11,000 모금). 투표 참여를 독려했으며, 10월의 총회를 기해 미비점이 발견된 헌장을 개정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활동의 홍보에 주력하면서, 역시 AAUD와 AACA의 행사 참여 등과 함께 Edward Kennedy 상원의원, 매사추세츠주의 하원의원으로 출마한 Brad Bailey 씨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시민협회가 지지한 분들 중에 Brad Bailey씨만 제외하고 모두 당선되는 쾌거를 기록하면서, 10월에는 연방 민권위원회 위원인 전기택 박사를 모시고 제4차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년째가 되는 1995년에는 주정부의 임명직에 많은 한인을 추천하면서, 웰페어법 개정 저지 서한 발송, 반이민법 저지

캠페인과 함께 시민권 취득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젊은 지도자들을 영입하기 위한 파티의 개최, 분과위원회 개편 및 내규 작성 등으로 내부 조직의 재편과 정비, 또한 각종 홍보 활동을 강화했으며, 비영리 단체로의 등록을 완료하고, 지역 동포들의 시민권 취득을 돕기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AAUD에서는 김기자 이사가 기초 연설을 하고, AACA에는 정용훈 이사가 부회장으로 사회를 보았으며, Silk Road 행사 참여 등이 있었고, 10월의 제5차 정기 총회를 기해서는 영어 세대를 위한 영문을 혼용한 제5호 회지를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96년에는 웰페어법의 개정과 반이민법의 상정으로, 반대를 위한 전국의 인권 조직들과의 활발한 연대 활동과 함께, 전국 조직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어 그의 태동이 구체화한 한해로써, 본인이 전국한미 지도자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권 취득 캠페인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처음으로 4월 20일에는 시민권 교육과 필기 시험을 주관하였습니다(105명 중 82명 합격). 또한 워싱턴주 부지사로 출마한 폴 신박사와(\$3,600 모금), 로드 아일랜드주 하원의원으로 출마한 한인 2세 Michael Farrell씨와 Clinton 대통령의 재선, 매사추세츠 주지사인 Weld의 상원의원 출마를 지지하였고, 이 분들 중 폴 신박사만 아깝게도 근소한 차이로 낙선하고 모두 당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거의 결과로 클린턴 대통령은 감사의 편지와 함께 향후 웰페어법의 복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Weld주지사는 Asian American Committee를 통해 아시아인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면서, 이민자로서 이민 사회를 위해 공헌한 사람을 매년 수상하는 제도와 주정부 복지 혜택을 확충했으며, 시민협회가 추천한 최승훈씨와 김기자씨, 이희규씨를 고위직에 임명하였고, Weld를 승계한 Cellucci주지사는 최초로 청장급에 하워드 고박사를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세탁인협회는 Weld 행정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외 소수민족 단체들과의 협조와 유대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수신회에 걸친 신문 기사를 통한 홍보와 함께 폴 신박사를 연사로 모시고 10월의 정기총

회를 개최하면서, 폭증하는 시민협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총장제를 신설하고 총90여명의 회지 6호를 3,000부 발행하였습니다.

1997년은 한인의 권익과 위상에서 또 다른 성장의 한 해였습니다. 차기 주지사 후보가 직접 한인 사회의 지지를 부탁해 오고, 주정부로부터는 유능한 한인을 추천해주어서 고맙다는 편지가 오기도 했으며, 미국의 비자 면제 대상국 프로그램에 한국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캠페인을 펼쳐 케네디 상원의원으로부터 이를 위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해 상원에서 통과시켰다는 서신이 오기도 했습니다. 웰페어법의 복원 운동에 동참해서 일부가 복원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이민법 반대의 거센 활동에도 참여했으며, 특히 노인분들이 보다 쉽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한 무료 워크숍을 3월 29일과 6월 14일, 2차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안내서 겸 문제집으로 50여명의 「시민권 취득 종합안내서」를 발간하였는데, 이 프로젝트는 AAUD로부터 2,000달러의 Grant를 받아 무료로 배포했으며, 이는 뉴잉글랜드 한인들을 위한 봉사에 최초로 외부의 무상 지원을 받은 첫번째 기록으로 큰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스턴 총영사 초청 간담회와 종교 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진지하게 한인 사회의 미래를 논의하였으며, 각종 홍보 활동과 투표 캠페인을 전개함과 동시에, 비록 역부족으로 성사시키지는 못했으나, 공식인 주한 미대사로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후보에 오른 폴 신박사를 추천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인 전국 조직의 움직임에 동참하여 젊은 임원들이 전국 회의에 2차례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10월의 총회에서는 그동안 창립때부터 만 7년 동안 이사장으로서 헌신적으로 이끌어주시던 김문소 이사장께서 이임하시고 봉사의 의욕으로 총만하신 이문열 새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1998년에는 본 회지내의 활동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간략히 중요한 것만 들어 본다면, 3차에 걸친 뉴스레터의 발간과 주소록의 확보를 통한 뉴잉글랜드 내 전 한인 가정에 우송 조치, 시민권 취

득 워크샵의 개최, 웹사이트의 개설(주소: <http://www.KACL.org>), AAUD에서 김문소 고문(전임 이사장)께서 「1998년도 개인 지역사회 봉사상」의 수상과 최홍균 부회장이 AAUD의 공동 의장으로 선출되신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소수 민족 등의 단체와도 활발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일환으로, 이미 관계가 형성된 AAUD와 AACA뿐만 아니라, 크고작은 소수민족 단체로 구성된 APAAC (Asian Pacific American Agenda Coalition)의 회원 단체로 가입하여 시민협회의 대표를 이사로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Political Intern 장학금의 신설과 수여, 매사추세츠 주지사 후보인 Scott Harshbarger의 지지 성명과 후원 모금 파티의 성공적인 개최 (\$14,000 모금), 또한 매사추세츠 검찰총장 후보로 Brad Bailey 씨의 지지와 제8차 총회 및 제8호 회지의 발간이 있습니다.

이제 시민협회의 지난 8년을 회고하면서, 짧다면 짧은 세월이었지만 그동안 우리가 많은 길을 걸어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정의 신중과 민주적인 합의를 도출하며 지혜를 모으기 위해 자정을 솔하게 넘겼던 회의들, 말을 때는 한달에도 서너차례의 모임들, 임원들간에 매달 수십 시간에 달했던 전화 논의들, 끊없는 호소와 설득들, 그런 모든 것이 이제금은 조금씩이나마 열매를 맺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뉴잉글랜드내 한인들의 존재, 시민협회의 존재와 중요성이 이젠 주류 정치 사회에 알려져, 특히 올해에는 선거직에 출마하는 주요 후보마다 앞다투어 지지를 호소하여 오게끔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인들에게 달려와 한인들을 포함한 소수민족의 권익을 위한 정강정책을 약속하고 있으며, 그들이 그들의 약속을 이행토록 시민협회는 계속 일해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협회는 아직도 수없는 시간과 소중한 노력과 자원을 우리 한인들을 상대로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에 보내야하는 실정입니다. 8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하고, 왜 이런 노력이 필요하며, 왜 힘을 모아야하는지를 되풀이 또 되풀이, 무한한 정력과 인내를 갖고 해야하는 실정입니

다. 「외부」와 맞서기에도 극도로 부족한 제한된 힘과 능력을, 「내부」에 쏟아야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한인의 투표율은 주류 사회의 열쇠를 받아야만 할 정도로 낮습니다. 김창준 의원은 초선에 당선된 후의 한 연설에서, Diamond시의 3,000여 한인 중에 투표자는 단 3명이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한 예로는, 93년도 선거에서 Lexington의 70여 한인 시민권자 중 투표한 사람은 단지 7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94년에는 김은한 전회장의 노고로 Lexington에서 한인이 90%의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아직은 갈 길이 멀고 험난하며 할 일이 많습니다. 투표 자체도 제대로 하지 않는 단계라면 인권의 쟁취는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어긋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와 이 주류 사회가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뉴잉글랜드 동포 한분한분의 협조가 지극히 필요합니다. 단결력과 애국심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발휘하여, 「하나를 전체를, 전체는 하나를」을 실현하고 구현하여, 더 늦거나 앞으로는 또다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한인들의 안녕과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인은 창립때부터 기금모금 위원장으로, 그리고 93년 10월의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95년에는 2대 김은한 회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심으로써 회장 대행으로 1년, 96년 10월의 제5차 총회에서는 3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이제 2년의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3년간을 봉직해 왔습니다. 정치에는 문외한이고 부족한 제가 중임을 맡아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과 조언, 봉사로서 대과없이 임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중에, 특히 협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악한 재정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 90년부터 94년까지 불과 연간 4,000달러 수준이었던 협회의 재정을, 95년에는 7,000달러, 96년과 97년에는 20,000달러, 그리고 98년에는 30,000달러선으로 확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인 전국 조직에

의 적극적인 동참과 젊은 임원들을 양성하고자 노력했으며, 시민권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노인분들을 위한 시민권 취득 교육과 주관, 무료 워크샵에 많은 정열을 기울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협회의 오랜 숙원이던, 2,500여 뉴잉글랜드 한인 가정의 주소를 확보하여 올해에만 3차례의 뉴스레터를 발간, 우송함으로써 모든 가정에 직접 새로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특히 협회의 모든 임원과 이사님들의 열과 성을 다한, 개인을 버린 헌신적인 봉사, 그 자체의 결과이며 그러한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에 이분들의 노고에 재삼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한편,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지만, 젊은 영어 세대인 1.5세와 2세를 보다 많이 영입하여 젊은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후원하며 그들을 주축으로 운영해나가고자 하던 노력이 아직도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시민협회의 지향이자 목표의 정립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미완인 숙제, 아직도 회비 납부 회원이 1천 명이 되기에는 까마득한 현실, 아직도 미흡한 분과위원회의 활성화, 아직도 낮고 미흡한 참여 의식과 자원봉사 의식 및 투표율, 멀고 험한 길을 가야하는 소수민족의 인권 확보, 특히 보다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미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아시안계를 넘어서 폭넓게 여타 단체들과의 연대 도모, 이런 모든 미완의 과제와 짐들을 차기 회장에게 떠맡기고 자리를 물러나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임인 최홍균 회장은 실질적인 모든 업무를 주관하며 지난 8년 동안 묵묵히 일하면서 남다른 헌신과 봉사의 모델로서 지도력을 발휘해 오셨습니다. 더우기 보다 젊은 세대로서, 젊은 영어 세대를 이끌어 새로운 한인 이민 역사의 장을 열고, 시민협회를 또다른 도약의 단계로 성장시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새로운 회장을 중심으로 우리 한인의 미래를 위한 배전의 협조와 동참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임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It's already been eight years since the first General meeting of the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KACL) on August 18, 1990, when I felt an urge and a responsibility to become a cornerstone for the benefit and welfare of the Korean community and successive generations. After serving KACL as its President for the past three years, I feel that I am leaving the post with many questions and tasks still to be accomplished. I am not actually leaving KACL, but rather returning to the rank and file to serve and follow the leadership of the newly elected President, Dr. Hong Kyun Choi. I am looking forward to opening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KACL under new leadership.

I would like to express my most sincere appreciation to the chairman, the Board members and advisors, who overlooked my shortcomings and made sacrifices to work for KACL. In addition to membership and trustee dues, these people donated hundreds of hours each year for various KACL events to further the interests of the Korean community. Archbishop Soo Hwan Kim once said, "Politics is to wipe away the tears of the forgotten people." Unlike many politicians here in the US and in Korea, who appear to pursue their personal gain and glory at the expense of those they are supposed to serve, our Board members and advisors have worked, without fanfare, for the benefit and welfare of the immigrant Korean community, often forgotten in political calculations because of its minority status.

In addition, I extend my deepest appreciation to the leaders of various organizations and churches in the Korean community, who provided words of advice as well as donations, to the sponsors of KACL who placed advertisements in our annual journal, and to the countless members of KACL.

KACL was organized in August of 1990 by a group of people who had the understanding and conviction that without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we cannot hope to further

the interests of the Korean community. The objective of the organization was, and still is, that as a minority group, we should not only be law-abiding, tax-paying members of the society, but also be able to demand, and obtain, the benefits due to members of good standing in society. The American blacks have similarly toiled to obtain what is rightfully due to them. Because the reality of our society is that a child who does not cry is left alone and uncared for, we have to actively seek what is due to us and our children. We cannot hope to accomplish this task individually, but must gather our voices and resources. In the process, we may also shape and influence American politics.

As I recall, however, our efforts met many obstacles and difficulties. In 1992, when KACL was still in its infancy, the Los Angeles Riot broke out. The American media editorialized Koreans (*We were considered merely Koreans, not Korean Americans.*) as being greedy, selfish, and even "vampirish", implying that we brought the crisis upon ourselves. The police were merely spectators as Korean property was burned and looted and Koreans were killed. Similar riots, though on a smaller scale, also broke out in Boston and New York.

Thereafter and in the few years to follow, various legislations were passed that limited the rights of minorities in the US. The new immigration law denied the fundamental right and happiness of people to live together with family members. The new welfare law attempted to rid the newly arrived immigrants of their right to subsistence. The law also took away the livelihoods of many elderly and denied them access to proper medical care. Repealing Affirmative Action was irrational and inhumane and ignored the fact that the elderly, the handicapped, and the minorities were disadvantaged. Denial of bilingual education forced minorities to abandon their individual heritage and culture and to assimilate into the greater society. To obtain citizenship was made more difficult, prolonged and costly. Resident aliens, no longer called permanent residents, were distinguished from citizens and could be

expelled for minor offenses. Besides these, there were many discriminatory legislations, some more obvious than others, and they still exist with the full force of laws. All these changes happened in the past few years in the so-called "Land of the Free", the USA. They continue even today and may will continue into the future.

Against this backdrop, I would like to retrace the past 8 years of KACL and leave a few words of solicitation to KACL as it opens a new chapter under new leadership.

In August 1990, efforts were directed towards adoption of the new constitution and organization of the League. Dr. Kyo Ryoan Jin graced the first general meeting with a keynote speech. Many Board members were also involved in fund-raising parties for (then gubernatorial candidate) Bill Weld and in celebrating his election. We also campaigned to register all the eligible Korean voters and urge them to vote. Our first president, Dr. Young Jip Kim,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Korean American Leadership Conference held in Los Angeles.

The next year, to achieve our objectives more efficiently, the League organized the Board by various committees. We also continued to help register eligible Korean voters. At the General meeting in October, Mrs. Poong Jin Kim delivered the keynote address and the first issue of our journal was published.

1992 saw the outbreak of the Los Angeles Riot. Along with the Presidential election, many Korean Americans successfully got into the American political arena. It was this year that KACL really came into its own and became actively involved in various political activities. Mr. Seung Hoon Choi ran for State Representative and KACL actively supported his candidacy. Voter registration campaigns were held in 2 of the large Korean churches. We also provided an attractive entry in the Asian Festival. At the General meeting, keynote speeches were delivered by Dr. Lin Paek, Candidate Seung Hoon Choi, and our president

Dr. Young Jip Kim.

In 1993, KACL sought cooperation with other minority groups by participating in Asian American Unity Dinner (AAUD) and Asian American Civic Association (AACA). We also published a Korean American directory and held fund-raising dinners for Governor Weld and the US Representative Jay Kim. Our leadership was relayed from Dr. Young Jip Kim to the second president Dr. Eun Han Kim. Reflecting the growth of the League, the Keynote speaker at the 1993 General meeting was Representative Kim.

In 1994, we held a fundraising dinner for re-election of Representative Kim (Support Committee Chair was Mr. Yeon Namkung; \$14,000 was raised) and were sponsors of the Boston Marathon and World Cup competition for Korean Teams. We continued our collaboration with AAUD and AACA and our campaign for voter registration, and supported the candidacy of Senator Edward Kennedy and Representative Brad Bailey. Of all the candidates supported by KACL, Mr. Bailey was the only one to lose the election. In the General meeting in October, we amended our constitution and heard the speech by Dr. Ki Taek Chun, a member of the Federal Human Rights Committee.

In our fifth year of 1995, we were able to recommend several Korean Americans to important posts in the state government. We also conducted campaigns to send out letters opposing the unfavorable revision of the welfare and immigration laws, held a party to invite second-generation Korean Americans to join our cause, adopted internal bylaws to reorganize and strengthen our committees, completed our registration as a non-profit organization, and encouraged eligible Korean to obtain citizenship. Trustee Ki Ja Kim delivered a keynote speech at the AAUD and Trustee Yong Hoon Chung was elected as the vice chair of AACA. We also partook in the Silk Road festival. Our journal published at the time of the General meeting was bilingual for the first time.

In 1996, we continued our opposition to the new welfare and immigration laws, as did other human rights organizations throughout the country. A need for a nationwide Korean American political organization was sorely felt and as a first step, I represented the League at the National Korean American Leadership Conference. We conducted our first citizenship classes and 82 out of 105 people who attended the classes obtained citizenship successfully. We supported the candidacy of Dr. Paull Shin for the lieutenant governorship of Washington (We raised \$3,600 for him), a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 Michael Farrell, for a seat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President Clinton for his reelection, and Governor Weld in his bid to the Senate. Of these, Mr. Clinton and Mr. Farrell were successfully elected.

As a result, President Clinton sent a letter of appreciation to KACL and was instrumental in repealing the welfare law provisions unfavorable to the Korean community. Governor Weld contributed to the well being of the Asian community through the formation of the Asian American Committee, adopted a system of recognizing and awarding those most contributory to the immigrant community each year, reaffirmed his commitment to providing welfare benefits for the minorities by the state, and appointed Seung Hoon Choi, Ki Ja Kim, and Hee Kyoo Lee to important state posts, as recommended by KACL. His successor, Acting Governor Cellucci, appointed Howard Koh to a director level post -- a first for Korean Americans. In addition, the Korean Dry Cleaners' Association received assistance from Governor Weld. We continued our collaboration with other minority groups and public relations efforts through tens of newspaper articles. Our General meeting in October featured Dr. Paull Shin and the new post of Executive Director was created to handle the burgeoning tasks of the League. Three thousand copies of our annual journal, which was 90 pages long, were distributed.

1997 was another year of growth. A

candidate in the gubernatorial election specifically sought out the support of the Korean community, and the state government sent KACL a letter of appreciation for recommending able Koreans to the state government. A campaign to include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list of countries from which one may visit the US without a visa culminated in Senator Kennedy sponsoring a legislation to that effect and having it pass the Senate. We helped repeal some of the facets of the welfare law unfavorable to the Korean community, continued our efforts to oppose the current immigration law, and held 2 free workshops (March 29 and June 14) in which elderly Koreans were instructed on how to obtain citizenship. We further published "A Comprehensive Guide to Obtaining Citizenship" totaling 50 pages. This guide was freely distributed, using a \$2,000 grant from AAUD. This grant carries a special significance as the first external grant for a service for Koreans in New England. Panel discussions on the future of the Korean community were held with the Korean Consulate General from the Boston office and with Korean religious leaders. We campaigned hard, though unsuccessfully, to instate Dr. Paull Shin as the American Ambassador to Korea. Young members of KACL reached out and participated in nationwide meetings of Korean organizations. At the General meeting in October, Dr. Moon So Kim, who had served KACL as Chairperson of the Board for 7 years, stepped down to Mr. Moon Yeol Lee who was eager to serve the Korean community.

Activities of 1998 are reported in detail in this issue of our journal. Major accomplishments included publication of 3 newsletters, verification of all Korean addresses in New England for a complete directory, workshops for citizenship, creation of a website (<http://www.KACL.org>), recognition of Dr. Moon So Kim at the AAUD with the awarding of the Individual Regional Community Service Award, and election of Dr. Hong Kyun Choi as a co-chair of AAUD. In continuing to forge a

working relationship with other minority organizations in this region, we not only maintained our ties with AAUD and AACA, but also joined the Asian Pacific American Agenda Coalition (APAAC), with a representative of KACL becoming a trustee of APAAC. In addition, we established and awarded a "Political Intern" scholarship and decided to support the candidacy of Mr. Scott Harshbarger for Governor and Mr. Brad Bailey for State Attorney General, raising \$14,000 for Mr. Harshbarger.

As I reflect on the past 8 years of KACL, I feel that we have come a long way. There were many meetings that went beyond midnight in order to come up with a well-thought out decision in the most democratic and cooperative manner, meetings that were often several times a month, and tens of hours spent on the phones to solicit support. All these are now gradually beginning to come to fruition. The significance of the Korean community in general and of KACL in particular is recognized by the political powers that be in New England. This year, all the major candidates are competing for our support. They are promising policies that will guarantee the rights of the minorities in general and the welfare of the Korean community in particular. KACL will continue to work to make sure that the promises are carried out.

Nevertheless, much of our resources and efforts are still directed to persuading Koreans for their cooperation. We need unlimited energy and patience when wondering why we still have to do that even after 8 years. Although our energy and resources are limited even vis-a-vis the "external factors", we must still divert our limited resources to the "internal factors". Even now, the voter turnout of the Korean community is despicably low. In his post-election speech, Representative Jay Kim revealed that of about 3,000 Koreans in the City of Diamond Bar, only 3 actually voted. Even in our own neighborhood, during the election of 1993, only 7 of 70 eligible Korean voters in

Lexington, MA actually voted. However, in 1994, due to the efforts of our past president Dr. Eun Han Kim, the Korean voter turnout in Lexington improved to 90%. The road we need to travel is still long, and arduous. If we don't participate in voting, we are indeed far away from obtaining our full rights. Nonvoters are nonexistent people in a democratic society and should not expect any favors from the government.

We need the cooperation of each and every Korean in New England. We need to gather our forces and cooperate with one another under the slogan, "One for all and all for one", lest we regret any delay in obtaining the rights of our community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Since the birth of KACL, I have served the League, first as the chair of the Fundraising Committee and then as its vice president since October 1993. In 1995, when Dr. Eun Han Kim resigned as the president due to personal reasons, I became the acting president. In 1996, I was elected as the third president to a 2-year term, which has now come to its conclusion. Although a novice in politics who was thrust upon an important task, encountering many difficulties and having many sleepless nights, I was able to finish my term because of the selfless assistance, advice, and service of many people.

I have toiled in my own way to elevate the status of KACL. I felt that an essential element in activating our various tasks was procurement of financial resources. So the budget of KACL, which was approximately \$4,000 from 1990 to 1994, was increased to \$7,000 in 1995, \$20,000 in 1996 and 1997, and \$30,000 in 1998. I worked passionately alongside you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nationwide meetings of Korean organizations, to recruit younger members of the Korean community to our cause, and to conduct citizenship workshops, especially for the elderly. We finally realized the long-held wish of the Korean community to have a directory of 2,500 Korean families in New England and sent out our newsletters to all the addresses -- three times this year alone. All

these were made possible by the efforts and dedication of all the trustees and directors and members of committees of KACL and I would like to thank them again.

However, it is my regret that we have not been successful in recruiting and developing the 1.5th and 2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as future leaders of our league. Many tasks remain as homework for the League, including completion of our mission statement clearly delineating our objectives, reaching a membership of 1,000 dues-paying people, activation of all the committees, increasing the rate of participation, service, and voting, procuring the full rights of the minorities, and collaboration not only with other minority organizations, but also non-minority organizations. I regret that I am stepping down and leaving all these unfinished tasks to the next president.

However, the new president, Dr. Hong Kyun Choi, has been a behind-the-scenes force in all the activities of the League for the past 8 years and has exerted leadership by exemplary service and dedication. I have a total confidence in him that he will open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our league and our community by recruiting the younger, English-speaking Korean Americans and elevation KACL to a new phase of development. I would like to conclude my farewell address by soliciting your utmost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with the new leadership. Thank you.

김양길 전임 회장은 현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위원이며, 캐톨릭타임즈의 보스턴 지역 매니저이고, Genetics Institute에서 스태프 과학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Yangkil Kim, Past President, is a member of The Advisory Council on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Boston regional manager of Catholic Times, and works for the Genetics Institute as a staff scientist.

1998년은 시민협회로서는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친 분주한 한해였다. 4차례에 걸친 뉴스레터의 발간과 이의 발송, Political Intern 장학금의 수여(수혜자: 김성훈군), 시민권 취득 워크샵의 개최와 함께, 특히 하반기에는 하시바거 MA 주지사 후보의 후원 모금 파티가 개최되는 등, 많은 활동과 성과가 있었다. 특히 예전에 없이 많은 후보들이 앞다투어 한인 사회의 지지를 호소해 오는 등, 한인의 위상이 점차 주류 정계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기 시작한, 뉴잉글랜드 한인 역사에 또 한획을 그은 해라고 사료된다.

미국의 보수화 경향으로 97년에 웰페어 법과 이민법이 개정됨으로써 소수민족과 한인들의 위기 위상이 고조되었고, 이에 따른 시민권 취득 열기와 각종 캠페인이 이어졌었는데, 이런 분위기는 98년에도 지속되었다. 또한 이런 사태에서 충격과 고무를 받은 소수민족의 정치에의 관심 고조로, 조직화, 활성화, 정치력 신장 등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보다 고조되고 구체화한 해라고 평가된다. 이 지역에서의 세타인 협회에 의한 셀루치 MA 주지사 후보 후원 모금 파티와, 브렛 베일리 MA 주검찰총장 후보의 모금 파티, 뉴잉글랜드 한인회 최초의 회장 경선 등은, 이런 맥락이 연장된, 활발해지는 한인 사회의 정치적 경향이라고 진단될 수도 있겠다. 98년의 시민협회는 특히 김양길 회장께서 만기 이임하시고, 명실공히 1세와 2세의 가교로서, 세대간의 힘을 결집시켜 한인의 정치력 신장에 새로운 장을 열 최홍균 회장단의 출범이 중요한 일로 기록된다.

1998년도의 활동 보고는 다음과 같다.

1. 제 7차 정기총회

제 7차 정기 총회는 1997년 10월 25일(토) Lexington 소재 성요한 감리교회에서 오후 7시부터 개최되었다. 제 1부에서는 신임 이문열 이사장의 승인과 함께, 창립때부터 8년간이나 포용적이고 강한 리더십과 헌신을 통해 이끌어 오셨던 김문소 전이사장의 공로를 기리는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2부의 강연회에서는 Korean American Coalition (KAC)의 워싱턴 대표인 마크 김 변호사가, 「한인들의 정치 위상 신장을 위한 한인 활동의 중요성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

대간의 단합된 힘의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워싱턴 D.C.에서 겪은 경험을 통한 정치 참여 필요성의 호소와, 젊은 세대가 전면에서 서고 1세가 후원하는 구도 속에 젊은 세대의 참여를 고무하는 강연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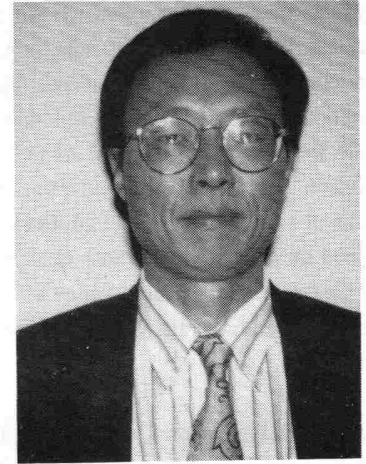
2. 제 8차 정기총회

제 8차 정기총회는 1998년 10월 3일(토), 앤도버 소재 북부보스톤 교회에서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개최되었다.

제 1부의 정기총회는 회순 채택에 이어 협회 경과 보고, 감사보고와 재무보고가 있었고 정부회장 선출이 있었는데, 현장 13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한 최홍균 회장, 김성군 부회장 및 이경해 부회장이 만장일치로 당선되었다. 이어 신임 이사의 선출과 고문 및 임원의 소개, 감사패 증정의 순서가 있었는데, 김양길 전임 회장이, 창립 때부터 기금모금 위원장과 부회장, 특히 3대 회장으로, 지난 8년간의 헌신적인 봉사를 한 공로로 이문열 이사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또한 김명기 사무총장이, 창립때부터 홍보 및 출판 위원장으로서 지난 8년간 매년 회지를 발간해 오고 또한 사무총장으로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과 금일봉을 김양길 전임 회장으로부터 수여받았다.

이어 개최된 2부의 강연회에서는, 한인으로서 매사추세츠주의 최고위직에 있는, 보건부 청장인 Howard Koh(고경주)박사의 「한인 미국인의 공공 보건」이라는 연제의 강연이 있었다. 고경주 박사는, 한인으로서 연방 정부의 최고위직인 국무부 인권차관보에 임명된 고홍주 박사의 친형이자, 전주미대사였던 고광림 박사의 자제로서 미국에서 출생하였으며 예일의대를 졸업하였다. 그는 어려웠던 성장 시기를 회상하면서 한인 가정의 교육열과 가정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노약자 문제 및 여성, 어려운 이민 가정의 문제와 특히 한인의 높은 흡연율 등 건강에 주의할 것을 강조하면서, 한인 사회를 위한 지원과 소수민족의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을 약속하였다.

한편 예년에 경우에는 총회를 기해 회지를 발간해 왔으나, 올해의 경우에는 정부회장의 선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총회 후에 발간기로 하고, 대신 이날의 총회에서는 뉴스



레터인 시민협회 소식 제4호로 제 8차 정기총회 특집(8면)이 발간, 배부되었다.

3. 시민협회 회지 제 7호 및 8호 발간

1997년 10월에 3,000부의 제 7호 회지가 편집위원 및 임원진의 수고로 발간되어 총회에서 배부되었으며, 지역내 한인 가정과 각종 단체, 특히 미국내 각종 인권 및 정치단체, 백악관을 비롯한 정부 등 미국의 각종 기관과 상원 하원의원 등의 정치인들에게 배부되었다. 3차에 걸친 편집 회의가 있었으며, 회지 발간에 따른 원고청탁서, 발간 공고, 광고청탁서 및 청구서 등이 누차에 걸쳐 발송되었고 또한 신문에 보도되었다. 제 8호 역시 3,000부가 인쇄되어 회원에게는 직접 우송될 예정이다.

4. 이사회, 임원회

7차 정기 총회 이후인 97년 11월 29일, 제 27차 이사회를 이문열 이사장 맥에서 개최하여 총회 성과를 검토했으며, 98년도 사업 계획과 이사회비 인상, Asian Pacific American Agenda Coalition(APAAC)에 회원 가입 등을 논의하였다.

98년의 첫 이사회(28차)는 2월 6일, 김양길 회장님께서 개최하였고, 각 분과별 98년도 사업 추진과 주요 사업 및 뉴스레터 발간, 이사진 보선 및 보스톤 총영사관 폐쇄 반대 캠페인을 논의하였으며, 매사추세츠 주지사 후보들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2월 19일에는 상임이사회와 뉴스레터 편집회의가 김문소 고문님께서 개최되었다.

5월 9일에는 이의인 이사 자택에서 제 29

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MA 주지사 후보 지지, 시민권 취득 워크샵, 뉴스레터 발간 등을 논의하였다. 6월 6일에는 상임이사회 및 상임임원회가 우촌집에서 개최되어, 이사회에서의 위임 사항과 시민권 취득 워크샵 등을 논의하였으며, 긴급 이사회회의 소집이 의결되었다.

6월 13일, 제30차인 긴급 이사회가 성요한교회 친교실에서 개최되어, 매사추세츠 주지사 하시바거 후보의 지지와 후원 모금 파티의 추진이 결정되었다.

8월 8일에는 최홍균부회장 덕에서 제31차 이사회가 개최되어, 후원 모금 파티, 총회 준비, 뉴스레터 및 회지 발간 등의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각종 회의의 소집 통보, 이사회비 납부, 이사회기록 등 누차에 걸친 우편이 발송되었다.

#### 5. MA 주지사 후보 후원 모금 파티

제30차 이사회회의 결정에 따라, 최홍균 추진 위원장의 주관으로 6월부터 6차례에 걸쳐 추진 위원회의 모임이 있었으며 공문의 발송과 각종 준비가 진행되었다. 이의 일환으로 하시바거 주지사 후보가 8.15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8월 27일에 Lexington 소재 Lexington Elks Club에서 모금 파티가 개최되었다. 150명 이상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14,000달러의 모금이 이루어졌다. 파티가 끝난 후 하시바거 후보는 감사의 전화와 친서를 보내왔다.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는 추진위원회와 Food Committee의 노고가 컸다.

#### 6. 시민권 취득워크샵 개최

98년 6월 13일(토) 성요한교회 친교실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무료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엘니뇨의 영향으로 극심한 폭우가 내려 교통이 두절되는 사태 속에서도 50여명의 참석자로 열기를 띠었다.

이날의 워크샵에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시민권 취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변경된 규정 등의 설명과 함께, N-400 작성, 변호사의 검증, 사진 촬영, 발송준비 등 시민권 취득의 전과정을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도와드렸다. 또한 많은 분들이 시민권 취득에 대해 수시로 문의해 오고 있으며, 이런 분들께는 무료로 모든 자료를 우송해 드리고 있다.

#### 7. 뉴스레터(「시민협회 소식」) 발간

김양길 전임 회장의 강력한 의지와 지휘로, 오랫동안 숙원 사업이던 주소록 데이터베이스를 금년 봄에 최종적으로 확충할 수가 있었으며, 이에따라 4월말에 1호(12면)를 4,000부 발간, 뉴잉글랜드 전역의 한인 가정에 일등급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주요 기사는 유권자 등록 및 투표 독려, 웹 페이지 개설, AAUD 행사 결과, 시민권 취득 워크샵 및 Political Intern 장학금 공고 등이었다. 7월 말에는 제2호(4면)가 발간되어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하시바거 MA 주지사 후보의 지지 성명, 모금 파티, 정기 총회 개최 공고 및 8.15 광복절 행사였다. 제3호(2면)는 8월말에 제작되어 역시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정기총회 개최 공고 및 후원 모금 파티 결과, 투표 독려가 주내용이었다.

제8차 정기총회 특집으로 발간된 제4호(8면)는 정기총회 및 강연회 순서, 김양길 전임 회장의 이임사, 활동 보고, 재무보고서 및 99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헌장, 정부회장 선출 및 이사 인준과 11월 3일(화)의 본 선거 투표 독려문이 실려있다.

#### 8. 홍보 및 캠페인

신문 지상을 통해 누차에 걸쳐 시민협회의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주요 기사로는 김양길 회장의 신년사, 하시바거 MA 주지사 후보의 지지 성명 및 후원 모금 파티, 워크샵, 이사회 결과, AAUD 파티, 총회 등을 들 수 있고, 각종 행사의 공고를 3개 매체에 게재하였다.

한편 BostonKorea의 협조로 시민협회의 온라인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다(5월).

캠페인으로는 동양인(미셸 칸)에 관한 인종차별적 보도 항의 캠페인 동참, 보스턴 총영사관 폐쇄 반대 캠페인(2월), 전국적인 푸드 스탬프 복원 캠페인, 뉴스레터를 통한 투표 권유 등의 활동이 있었다.

#### 9. 다른 단체, 정부와의 관계 및 활동

KAC 주최의 Winter Conference (97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CA소재 Wyndham Hotel)에 사무총장이 참석하고, APAAC에 회원으로 가입(97년 11월)했으며, 매사추세츠주 검찰청과 소수민족의 인권 문제 협의회의(97년 11월 5일)와 Harshbarger 주지사

후보 지지를 토의키 위해 China Town에서 개최된 아시안 모임에 참석(97년 12월 9일)이 있었고, 김성근 위원장이 전국 조직을 위한 추진위원회회의 시카고 회의에 참석하였다.

Massachusetts Immigrant & Refugee Advocacy Coalition(MIRA) 개최 Legislative Action Committee(3월 3일) 및 Citizenship/Benefits Task Force Meeting(3월 27일), Citizenship Training(5월 5일), 매사추세츠 복지 예산 관련 회의 등에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Immigrant Lobby Day를 위한 캠페인 인쇄물에 한글 번역문 게재 등이 있었다.

또한 재미과학기술자협회의 제7차 뉴잉글랜드 수학경시대회(4월 11일, 장소: MIT)에 참석 및 시민협회상 수여, Asian Task Force Against Domestic Violence(ATFADV)의 Outreach Lunch Program에 김성근 위원장이 연사로 참석(5월 21일), KAC의 대표인 마크 김 변호사와 전국 조직에의 참여를 논의키 위한 회의(6월 10일), 세탁인 협회와 MA 주지사 후보 후원 협의 모임(98년 9월 24일) 등이 있었다.

특기할 것은, 최홍균 부회장이 공동 의장으로서 대회를 주관한 AAUD(5월 2일, 장소: Boston Sheraton Hotel)에서 김문소 고문이 영예의 「1998년도 개인 지역사회 봉사상」을 수상한 경사인데, 상세한 것은 본 회지에 실린 뉴스레터 제1호의 기사 전재를 참고하기 바란다.

김명기 사무총장은 부산대학교 공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주) 해외사업본부, Multi-Core, Inc. 의 Document Control Center Director를 거쳐 Quality Engineering Consultant, H&E Septic Design Co. 와 Veggies'n More를 운영했으며, 현재 무역업체인 H&E Korea Co.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새싹한국학교 교장, 재미 한인학교 협의회 임원, 중앙일보 본사 모니터를 거쳤으며, 현재 한국광고연구원의 미주통신원, 제일기획 등 광고업계의 프리랜서로서 Subsurface Disposal Systems Designer 및 Installer 등 다수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미 교포 사회의 미국 정치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시민협회의 헌장 「제3조:목적」의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즉 우리 한인들이 소수민족으로서의 권리를 찾고 당당히 이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미국 헌법의 기본 이념인 자유,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류 사회에 진출하여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한인들이 미국의 정치 상황이나 경제 동향 및 사회의 흐름보다는, 오히려 한국 사정에 비교적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미국을 알리는 적극성이 결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신문은 매일 정독하면서도, 미국신문은 대충 제목만 읽거나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내 기사들을 소홀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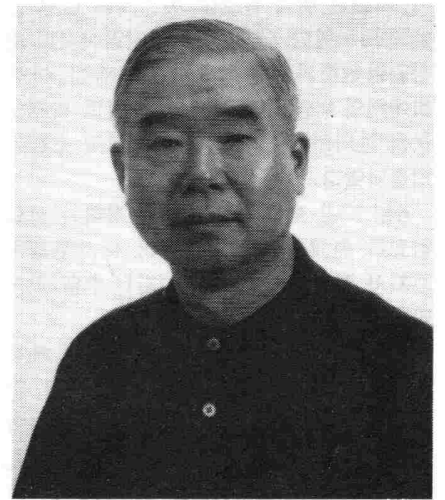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대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먼저 실력을 쌓아 미국 주류와 경쟁하여 이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에 능통하여 미국을 알고 이해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상대를 알지 못하고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이 자명한 것처럼, 미국의 실제와 역사, 그리고 국민에 대해 안다는 것은 이 땅에 정착하여 기반을 잡고 주인 노릇을 하며 사는 데 기본적인 필수 요건이며, 미국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데 갖추어야 할 무기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한인들이 살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와 국민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날 미국은 어떻게 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초대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는가를 피상적으로나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느 한 나라나 그 국민을 알고자 할 때 그들의 과거, 즉 역사를 알아보는 것이 극히 중요한 이유는, 과거 없는 현재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지금으로부터 5백년전인 1492년 콜롬버스에 의해 신대륙이 발견되었고, 이에 당시 유럽 대서양 연안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신대륙을 탐험하는데 열중하였다.

그중 영국은 유럽의 경쟁국들 가운데 가장 먼저 신대륙에 정착하는데 성공하면서, 15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는 영국 식민지 시대를 이룩하였다. 특히 메사추세츠주의 보스턴 남쪽 케이프코드(Cape Cod)의 프로빈스 타운에 청교도들을 태운 메이플라워호(Mayflower)가 1620년에 도착함을 계기로, 많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사추세츠에 옴으로써 뉴잉글랜드 식민지가 번창하게 되었다. 근세기에 세계 각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아 미국으로 이민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영국은 인구 과잉과 빈민, 또한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국교에 대해 반기를 든 종교인들로 골치를 앓고 있었으므로, 영국 왕실은 정책적으로 이들의 신대륙 이민을 장려하였다. 그후, 유럽 각국에서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찾아 계속 모여든 다른 이민자들과 어울려 식민지 시대의 새로운 질서와 종교, 또한 산업을 지역에 따라 정착시키게 되었다. 그들은 원주민인 인디언과 어울리거나 싸우면서 정착지를 확장해 나갔고, 고장마다 읍민회의(Town Meeting)로 불리는 민주적 지방 자치 기구를 발전시킴으로써, 오늘날의 미국 정치의 틀을 일찌기 마련하였다. 또한 미국 국민들의 생활 속에 배어있는 근면, 절약, 검소의 정신도 그때부터 싹이 트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미국인들의 사고 방식에 물들어 있는 실리를 위한 합리주의와, 자유, 평등, 박애를 추구하는 인도주의적 이상주의도 모두가 영국령 식민지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오늘날의 미국이 현재까지 백인, 특히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이와 반면, 평등주의에 어긋나는 흑인 노예제도나, 약육강식에 의한 아메리칸 인디언 원주민 정복 시의 비인도적 만행은, 19세기에 이르러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 무력에 의한 영토 확장 패권주의로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침략하는 근본이 되었고, 힘있는 자만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구미 각국들이 다투어 아시아, 아프리카 및 근동 지역에 자국의 이권을 위



해 식민지를 지배했던 사실들로부터 오늘날의 국제 정치의 역학 관계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되풀이 한다」는 진리가 계속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알고 배우며 현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넓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영국령 식민지를 벗어나 독립 국가로서 출범한 지 겨우 이백년 밖에 안된 나라인 미국이 「현대의 로마제국」이라고 일컬어리만큼 강력한 나라로 발전한 역사적 배경을 요약해 본다면, 1776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선언, 초대 대통령 워싱턴에 의한 국가적 토대의 확립,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전과 영토 확장을 이룬 잭슨 시대, 노예제 폐지에 따르는 남북전쟁과 재건의 링컨시대, 남북전쟁 후 미국의 공업화에 따르는 경제혁명의 산업자본 시대인 20세기 초반, 산업화에 따르는 빈부의 차이와 기업의 정치 개입에 의한 독점 기업의 횡포 및 이권에 의한 정치 부패를 규탄하는 사회 정의와 정치 개혁을 목표로 한 혁신주의 운동으로 불리우는 개혁운동의 시대, 이 혁신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20세기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윌슨 대통령의 시대, 미국을 포함한 구미의 강대국들과 일본에 의해 전세계에 걸친 영토와 이권을 확대해 나간 제국주의 시대, 제1차 세계대전과 독립주의의 대두와 윌슨에 의한 세계 평화



를 위한 국제회의의 창설과 유명한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 전후의 세계를 재수립하려던 시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경제적 번영, 미국 사회에서의 보수주의, 전통주의와 고립주의의 물결이 우세함에 따라 비미국적 요소 배격 운동에 힘입은 KKK단의 폭력시대, 자본주의의 터전인 월가의 주식 시장의 폭락으로 경제의 대공황과 자본 경제 제도의 위기를 초래한 후버 대통령의 시대, 미국 역사상 미증유의 경제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뉴딜(The New Deal)정책과 혼합 경제 체제를 선택함으로써 정부가 대기업의 독점 행위를 막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을 제정하여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권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의 토대가 될 오늘의 사회 보장 제도의 법적 뒷받침인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만들어 부의 재분배 및 직장인의 노령과 실업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정을 보장해 주려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시대, 1941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의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진 원자폭탄 제조 투하, 독일과 일본의 항복으로 국제정치 역학 관계의 변동, 세계 안전 보장을 위한 국제연합헌장 및 UN 창설 등,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국제주의의 공동체 협력의 새질서 방향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급서 이후의 트루만 대통령 시대, 2차대전이 끝나자 전시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의 전환에 따르는 경제 불황, 소련에 의한 철의 장막(Iron Curtain), 소련의 위협에 대비한 트루만 독트린(Truman Doctrine), 유럽의 전후 복구와 경제 부흥을 위한 마셜 플랜(Marshall Plan), 일본의 패전에따른 극동 정세의 변화와 중국의 국공의 갈등과 주도권 싸움, 드디어 중국 내전에서 장개석 국민당 정부는 패배하여 대만으로 옮기고 중국 대륙은 모택동 공산 정권이 장악하게 된 시대, 이의 여파로 1950년 우리 한국의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의 한국전쟁이 북한에 의해 도발됨으로써 미국을 위시한 16개국의 유엔군의 참전과 제한전쟁(a Limited War)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으로 유도되어 통일이란 현상 유지의 휴전이 추진되었고, 또한 한국전

쟁은 미국으로 하여금 불경기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경제는 호전되고 국민의 사기는 높아지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한국전쟁은 미국 사회와 미국인들에게 공산주의에 대한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유명한 메카시즘(McCarthyism) 선풍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던 시대였다.

트루만의 시대가 가고,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한 한국 휴전 타결, 보수적이고 친기업적인 자유 경제 체제의 보호 육성, 경제적 번영과 풍요와 안정을 이룬 시대, 그러나 인종 차별을 반대하고 흑인 자신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백인과의 갈등은 1957년 아칸소주의 리틀록에서의 흑인 학생 등교 거부 사건으로 인해 극에 달하였고 드디어는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이 이끄는 비폭력적 운동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이어, 대내적으로는 미국 사회의 보수적 경향이 우세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델러스 국무장관의 적극적인 해방 정책과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의 대 공산국가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냉전의 적대감에서 화해정신의 해빙의 무드로 바뀌어지던 시대, 아이젠하워 시대가 가고 뉴프론티어(New Frontier)의 기수,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의한 자유주의와 이상주의 정책은, 흑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민권운동에서 잘 나타났으나 남부에서의 흑인에 대한 뿌리깊은 인종 차별의 관습을 타파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으며, 드디어는 1963년 8월 워싱턴 링컨 기념관앞에서 25만명이 참석한 대집회가 열렸고, 시위자들은 「우리는 승리하리라(We shall overcome)」는 찬송가를 부르고 킹은 「나는 꿈을 갖고 있다」는 유명한 연설로 인종 차별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자고 호소하였던 시대, 다른 한편으로는 쿠바 침공 계획의 실패로 미국의 대외 위신이 크게 떨어졌으나 케네디에 의한 야심찬 우주 개발 계획으로 인간을 달에 보낼 아폴로 계획과 세계를 향한 평화봉사단 파견 등으로 「뉴프론티어」의 꿈을 이룩하려다 총격에 의해 쓰러진 불운의 대통령 케네디의 시대, 케네디의 뒤를 이은 「위대한 사회」의 존슨은, 흑

인들의 민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으며, 1964년 민권법(Civil Right Act)과 1965년 투표권 보호법(The Voting Act) 등의 제정으로 흑인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에게 이 나라에 살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보장을 해준 실로 고마운 대통령이었으나, 월남전 개입으로 인한 국력의 소모, 국론의 분열, 반전 여론, 미국 사회에서 그동안 억압되고 소외되었던 집단들의 항의와 반항은 흑인들을 주축으로 한 폭동으로 시작해서 대학가의 반전 데모, 마약, 히피족의 탄생, 블랙 파워의 출현으로 폭력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빈곤에 대한 전쟁(War on Poverty)」과 복지국가를 이룩하려던 위대한 사회의 개혁도 좌절되고 중단되었던 시대, 1960년도의 폭력 시대는 케네디 형제와 킹과 같은 이 시대의 지도자 인물들을 희생시켰던 것이다.

존슨의 월남전쟁을 떠맡은 공화당의 닉슨은 마약 남용, 인종 분규, 반전의 격렬한 항의로 혼란에 빠진 미국 사회에 법과 질서를 확립하려고 노력하였으며, 1969년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으로 월남전의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였다. 월남전의 후유증은 미국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하여 국제 사회에서 위신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미국인에게 자신감을 잃게하는 무력증에 빠지게 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저 유명한 워터게이트(Watergate) 사건으로 소련과 데탕트의 토대를 마련하고 죽의 장막이었던 중공의 문을 열게한 외교적 성공마저 빛을 못본 채 대통령직을 사임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닉슨의 시대, 보수주의자 제럴드 포드가 닉슨의 잔여 임기를 채우기 위해 대통령에 취임하여 닉슨의 경제 정책을 인계받아 자유 방임의 원칙에 따르는 정부의 불간섭을 내세우며 친기업적인 법안들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복지 정책을 추구하던 민주당과의 마찰이 심해져 포드의 인기가 매우 낮아짐으로써 땅콩농장의 경영주, 조자아 주지사, 독실한 남부 침례교인인 민주당의 지미 카터에게 정권을 넘기게 된 포드의 시대, 아랍산유국에 의한 전세계적인 오일 파동이 미국의 경제를 뒤흔들고 있을때 대통령으로 취임한 카터는 이 어려운 정치 및 경

제적 난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재임중 어려움이 많았으며, 치솟는 인플레이션, 실업률, 이자율로 국민의 신임을 잃게 되어 국내적으로 환경 자원 보존 사업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기고 내외적으로는 인권 정책을 내세워 인도주의적인 정책으로 독재정권에 항거한 양심수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석방을 위해 그들 정부에 압력을 넣었던 카터의 종교적 신념은 높이 살만한 것이었으나, 1979년 이란의 혁명으로 이란 주재 미국대사관의 인질사건으로 인해 미국의 대외적 위신의 손상과 함께 카터의 인기도 최하의 상태로 떨어졌던 시대, 작은 정부, 공급 측면 경제학으로 세금 인하와 지출 삭감 및 소득세를 내려 시장의 자율화, 경제 규제 완화, 민영화의 강화 등으로 자유 기업을 장려하고 대외적으로는 악의 제국으로 소련을 규정하면서 대소 강경책으로 부국 강병의 준비 확대를 위해 국방비를 증가시켜 공산주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국가 위신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던 초보수주의자 레이건 대통령의 시대, 이라크와의 걸프전쟁에서 승리,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1989년 가을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동서독의 통일이 이뤄지고 냉전의 종식을 맞이한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이었으나 국내적으로 경제 불황 등으로 재선에 실패한 부시 대통령의 시대, 46세의 젊은 나이로 케네디의 신봉자이며 송배자였던 클린톤이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국내 경제력 회복, 교육 개혁, 사회 간접 자본 확충, 환경 보호 및 환경 파괴 규제 등과 같은 야심찬 국내 정책을 과감하게 실천하고 대외적으로는 소련의 붕괴 후 경제제, 군사적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국으로 군림하면서 경제 우선 원칙을 내세운 외교 정책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 세계 시장의 개방 압력 공세를 취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세계의 미국화로 맥도널드, 코카콜라, 미키 마우스,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나아가 담배 제품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미국의 상흔은 19세기에 대포를 앞세우고 각국과 통상 외교를 전개했던 고전적인 방법과는 또다른, 총알아닌 상품을 무기삼아 국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는 경제와 분리할 수 없는 함수관계로, 경제 정책의 성공없이 정치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예는 한국의 김영삼 전대통령과 현 미국의 클린톤대통령과의 비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쪽은 경제정책의 실패로 국가와 국민에게 IMF시대라는 수난을 겪게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은 지속적인 경제 번영, 저실업률, 주식 시장의 강세 등으로 국민을 만족시켜, 오늘날 클린톤 대통령이 여자관계로 곤욕을 치루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를 살리고 세계의 초강국으로 자리를 굳게한 공으로 국민들은 클린톤의 치부를 덮어주고자 하고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비록 성스캔들을 저지른 잘못은 있지만, 그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한 용서해주자는 공감대는 그가 재임중 국가 이익을 우선한 경제 정책에서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러면 클린톤은 어떠한 경제 정책으로 취임전에 경기 후퇴에 놓여있던 미국 경제를 희생시켰는가. 클린톤 정부의 삼대 경제 정책은, 첫째, 재정 적자의 해소로 균형 예산을 이루며 미국의 달러 가치를 보존하고, 둘째로 교육 개혁으로 각 분야의 인력양성을 통한 국제 경쟁력의 제고, 세째로는 세계화 시대로 세계의 시장 개방을 추진함을 목표로 삼아 군수, 금융, 통신, 운송 분야에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설비 투자를 집중 증가시키도록 정부가 권장, 지원함과 병행하여, 미국이 세계 금융 시장의 중심으로 세계의 금융 체제가 유지되도록 정부 재정의 건전화를 기도하였다. 이것이 저이자, 국내 산업의 투자 증가, 기업의 순이익 증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달러의 가치 회복으로 일본이나 유럽으로부터의 자본 유입이 미국 정부의 재무 채권으로 유지되어, 미국의 적자 흡수에 있어 완충 기능의 역할에 크게 기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런 가시적인 국내 경제의 호황은, 사회주의의 몰락과 더불어 동서간의 냉전이 해소되면서 시장 경제 국가간에 경제 전쟁이 치열해, 소비자에게 더 잘 봉사하며 싸고 좋은 물건을 제공하는 자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철저

한 기업 정신과, 외교 정책에서 자국의 경제 이익을 위하여 슈퍼301조를 내세워 통상 협상을 벌이며 시장 개방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개방 경제의 고수, 또한 과감한 정부 규제의 완화와 저이자율 정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여 경쟁력 강화를 이루게 하는 국가 경제 전략의 뒷받침없이 불가능하였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1980년대의 미국이 재정 및 무역 적자에 허덕이고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미국의 기업 경영자들이 자본 및 무역 흑자로 엔(Yen)의 상승을 이루어 신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으로부터 경영을 알고 배우자며 철저히 부심한 노력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21세기는 아시아와 일본의 시대」라고 아시아 다섯개의 용들과 일본이 자만하고 방심하는 사이,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정보 산업 육성의 성공을 통해 오늘날 180도의 역전승을 이루어, 오히려 미국의 기업 경영을 알고 배우라는 위치로 전환하게 한 무서운 저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세계의 정치, 경제, 금융을 지배하는 정보, 컴퓨터 산업의 대부분을 미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과의 경쟁은 힘들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통신과 연결된 세계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는 노하우의 금융 기술을 70년부터 개발, 활용하여, 개인이나 기업, 정부기관에 이르기까지 정보 경제화 시대로 전환한 미국식 경영 방식이 오늘의 미국을 부강하게한 원천이라고 믿는 바이다. 현재와 같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곧 자본이며 시간이 돈이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금융, 주식시장을 중심으로한 세계 경제의 연결성은, 현 세계 금융 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보듯이 남보다 빠른 정보, 신속한 행동을 하는 자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도 남는다. 이런 여건에서 미국 경제의 희생은 클린톤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연유된 것뿐 아니라, 미국 정치의 합리성이 많은 도움을 주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양당제도의 미국 정치는 역사적으로 보수와 혁신의 뚜렷한 이념 차이는 없이 정책면에서의 대립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나, 국익을 위해서는 타협하고 합리적인 정치를 하려는 장점을 갖고 있고, 극한 대결이 아니라 정책 대결에서 언제나 국민의 여론과 심판을 겸허히 받아 들일 줄 아는 아량과 끊임없는 시대 변화에 따르는 적응과 새로운 비전의 창출로 미국의 국익에 최우선권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 정책에서 공화당은 「작은 정부, 시장 중시」, 민주당은 「정부의 시장 개입 및 케인즈형 정책 운영」으로 각각 다르다고 생각되나, 실제에 있어서는 경기 조정 수단으로 시장 메카니즘을 중시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는 경제 상황에 따라 소속 정당의 정책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응용할 줄 아는 태도가 돋보인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경제 정책의 초점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 호황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정책,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인데, 일본 및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 위기, 러시아의 경제가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중남미의 시장이 동요하며, 미국의 뉴욕 증시가 대폭락하는 현 상황에서 클린턴은 어떠한 비방을 내놓을지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주가가 떨어지고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

며 실업자가 늘고, 경기 후퇴가 오느냐 다시 계속적 성장을 하느냐는 오늘의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와중에서 이 땅에 뿌리내릴 재미 한인 사회도 미국의 기업들이 한때 일본을 이기기위해 일본의 기업 경영을 겸손

히 알고 배워 오늘의 미국을 부강하게 만든 것처럼,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역사 등의 모든 면에서 알고 배우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협회의 고문인 박경민 박사는 서울대학교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및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병원 수련을 거쳐, 미국 마취과 전문의로서 Framing Union Hospital의 마취과장과 보스톤 의과대학의 임상외래교수를 역임후 현재 Columbia Metrowest Medical Center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한인회 이사장, 뉴잉글랜드 한인회관 건립 위원장, 뉴잉글랜드 한인회 사회장, 평화통일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대한민국 국무총리 표창장을 수여받은 바 있고, 현재 뉴잉글랜드 한인회 고문이며 뉴잉글랜드 지구 서울대학교 동창회 회장, 뉴잉글랜드 노인대학장입니다.

Dr. Kyung Min Park, Advisor, graduated the medical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M.D.), and received his Ph.D. degree from the same university. He is currently working at the Columbia Metrowest Medical Center. He has served as the chairperson of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New England, chair of the committee for the New England Korean Community Center, president of the New England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a member of the Advisory Council on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He received an award from the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He is Advisor of New England Korean American Society, President of the New England Chapter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and Dean of the Korean Elder College of New England.

## 미국 시민권 취득 안내

개정된 이민법과 웰페어법으로 인해 비 시민권자는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빨리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 시민권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2) 시민권 인터뷰 당시,

① 영주권 받은지 5년 초과

② 미국 시민과 결혼하여 동거하는 경우는 3년

③ 3년 군대 복무했을 경우

\*서류 전형이 대개 6개월이 걸리므로 시민권 서류 신청은 이보다 6개월 전에 할 수 있다.

(3) 거주 조건

① 최소한 30개월 이상 미국에서 거주.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18개월 이상

② 신청 이민국 관할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 거주

③ 1년 이상 계속 해외 거주시: 다시 돌아온 후부터 5년

④ 불법 체류자로 사면 또는 다른 비자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임시 영주권을 받은 날짜로부터 거주일이 계산

(4) 18세 미만: 시민권자 부모가 대신 신청하거나 부모가 시민권자가 될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얻음.

(5) 경범죄 전과자인 경우: 두번까지는 이민국 재량으로 시민권 취득 가능.

## 「재외동포」 용어의 정립

모국 정부는 그동안 교민, 교포, 동포 등, 용어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혼동되어 왔던 호칭을 정립하였다. 이에 의하면, **재외동포**: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통칭 (체류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을 포함)

**재외 국민**: 외국에 체류,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위와 같이 정립한 사유>

○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한 대로 정부의 법적 보호를 받는 대한민국 국적자.

○ 영주권자는 현실적으로 시민권자와 가깝고, 구분된 개념에 기초한 정책은 차별 내지는 특혜로 인식될 수 있어 불만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교민」, 「교포」 등의 용어에 재해서 일부 지역 거주 동포들이 거부 반응을 보이고, 「교민」의 경우 우리의 관할권이 외국 국적자에게도 미치는 인상을 주어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 자제.

○ 따라서 외국 거주 한민족을 통칭하는 민족적인 개념으로서 「재외동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들 중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재외국민」으로 호칭.

(시민협회 소식 제1호 기사 전재)

Politics is an art that cultivates relationships passionately. For the past year, I have gaine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is from my work on Capitol Hill. In the fall semester of 1997, I worked for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office of Congressman Lee H. Hamilton, and worked for Senator John F. Kerry in the spring of 1998.

For the entire year, my attention was focused on the aspects of Congress and U.S. foreign policy: those who made the policies, the policies themselves, and how they affected America's leadership role in global affairs. When I was with Mr. Hamilton's staff, I was assigned to cover US-Asia relations, concentrating particularly on human rights and trade. In Senator Kerry's office, I prepared texts that clarified foreign policy issues to Massachusetts constituents and justified the Senator's position.

Throughout my experience, I came to understand how frustrating, inefficient, and partisan the policymaking process can be, and how self-serving interests often cloud good policy judgement. But alongside the frustrations, compromise, and hapless results, I witnessed the "invitation to struggle" in creating a reasonable and articulate foreign policy agenda. I participated in the debate, and even offered insight into setting certain policy precedents that constituted a framework for action. And I came away from it all seeing how policy decisions, when hotly argued and carefully considered, positively impacted the lives of millions of people worldw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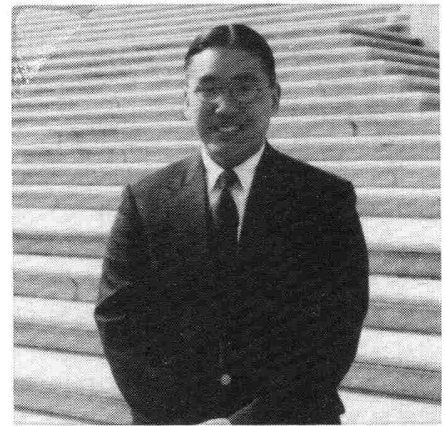
I will graduate from Georgetown's School of Foreign Service in May and look forward to a career in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My undergraduate work a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was also in international relations where I concentrated on economics and East Asian foreign policy. But where I really developed a keen interest in public service was when I directed the Korean American Students' Conference, or KASCON.

During that intense period, I was candidly exposed to the responsibilities of leadership and experienced firsthand, the importance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Managing a \$120,000 budget while responsible for 50 members was a challenging and life-altering experience. But more than the skills I acquired, it was the overarching purpose of serving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at both energized and humbled me.

Looking back in retrospect, the greatest lesson I learned through organizing the conference was that Korean Americans, when mobilized in unity, constitute a powerful political force. This reality was none more evident than in how much my parents had supported me through that difficult period. My father was a consistent source of wisdom and counsel as I could always turn to him for advice when I had to make important decisions. And at the same time, my mother would also remind me that she was there for me unconditionally. I am convinced that it was their support of my work that made all the difference in the world.

Perhaps at the same time of KASCON I took my parents for granted, but I now realize the greater lesson of that experience and how it relates to all Korean Americans in the larger context. The lesson is that America is an advanced system of representative democracy where its citizens have an obligation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because they have a stake in the output. The only problem is, the nature of the process is such that only those groups whose voice is strong enough ever get heard and invited to express their opinions.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an untapped political resource that will soon unveil itself with power and resonance in Washington. But to get to that point, we have to merge the right elements that require nationalizing an agenda, setting policy priorities, mobilizing community members in a massive grass roots effort, and then advancing those ideas to Congress and the



White House strategically and tactically. I firmly believe this is possible, especially because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s devotion to education and family and to a better future is what unites a common string in all of us.

As a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 the support and love I've received from my parents is evidence that they care about where our community is heading. My mother and father have always stressed the nobility of public service and have, themselves, served as wonderful role models through their activity in Korean American Associations. Ever since I could remember, they were always involved in the community and consistently sought new and innovative ways for Korean Americans to grab a bigger piece of the political pie. I now see how through their efforts and many of their generation, they have planted the seed for a new generation to carry on this important work.

In closing,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the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for their selecting me as their 1998 Political Scholarship recipient. I have learned much in the past year and am excited about what lies ahead in the future. I want to use my sensibilities where they count the most, and look forward to applying those talents to a career in public service. May God give me and all of us the wisdom and courage to fight the good fight.

It is a pleasure to address this meeting of the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This is an exciting time to be a Korean American. I see tremendous strength in our growing numbers and in our promise as a people. In the past, when there were so few of us, others identified us by what we were *not*. We didn't fit in.

Now, in 1998, we can define for ourselves who we are. What can we say? First, we are part of the growing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population in this country, numbering close to eight to nine million people. Within this group, Korean Americans are the fastest growing population, numbering almost a million people. Through history, we also know that Koreans first arriv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late 1800s to work in the Hawaiian sugar fields. Hence Korean Americans are a new population, born in the twentieth century. Within the vast context of the world's history, we are a young and vibrant new breed. Now, we have a critical mass. For example, California alone has about a quarter of a million Korean Americans. Furthermore, Korean is the eighth most common foreign language in the United States, spoken in about 600,000 househol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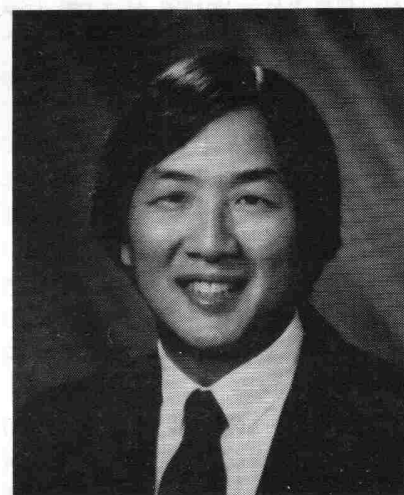
We Korean Americans are composed of at least four different groups: (1) recent immigrants from Korea, numbering about 270,000 in the 1980s; (2) Korean Americans born and raised in this country; (3) Korean children adopted by American families; and (4) members of bicultural families, where one member of a married couple is of Korean background, while the other is not.

For the last several years, I have chaired the Board of Editors for a new journal called the *Asian-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Journal of Health*. Several years ago, the founding editor, Dr. Moon Chen, asked me to write a review on Korean American health

issues. Initially, I was reluctant to address an area with so little published information. However, because many of the Korean American health professionals whom I contacted supplied me with bits and pieces of relevant and valuable medical information, my respected coauthor Dr. Hesung C. Koh and I finally published the article, "Health Issues in Korean Americans."

In this article, we began to assess the status of the public health of Korean Americans. Many key areas deserve attention. Cigarette smoking and lung cancer, stomach cancer, and liver cancer represent major health issues for Korean Americans. Korean American elders, who hold an esteemed position in Korea, face special challenges as they try to survive in a less deferential American society. Korean women face special stresses, as they try to reconcile the role of the traditional Asian female with that of the American working women. Korean American mental health issues require careful attention in our collective struggle to establish an identity. Many Korean immigrants may not be satisfied with Western medicine and may instead seek traditional Korean treatments in the U.S. Access to health care for Korean Americans may be compromised by lack of health insurance. In all these areas, we desperately need more data. At this time, we cannot even give a definitive answer to the simple question of how many Korean American physicians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We can only estimate that perhaps 4,500 Korean American physicians and perhaps 800 Korean American medical students now practice and study here.

As a new people, we can be the first (or among the first) in anything we do. I am honored to be the first Korean American Commissioner of Public Health in the United States. I am humbled to serve the people of Massachusetts in this capacity. I am also



grateful to Governor Weld and Governor Cellucci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I want to end on a very personal note. Some 50 years ago, my parents immigrated to this country from Korea searching for the American dream. My father, Dr. Kwang Lim Koh, was the former South Korean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Although he passed away about 10 years ago, his spirit and his desire to build understanding among Koreans, Americans, and Korean Americans live on in all of us. Dad instilled in his students and his family a sense of duty to contribute something to our society and to try to do our very best with the unique talents given to us. My father would be very proud to see this organization and to sense the energy and the talent that is represented here. I hope that each of us can make some unique contributions to America as Korean Americans.

시민협회에서는 98년에 지난 6월 13일과 12월 19일, 2회에 걸쳐 Lexington 소재 성요한 교회에서 "시민권 취득 워크샵"을 개최하여 많은 분들의 시민권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워크샵에서는 시민권 신청 과정의 소개와 시민권 신청서 작성(N-400), 그리고 사진 촬영과 복사 등 모든 과정을 무료로 도와드렸으며, 참석하신 모근 분들께 한권으로 시험 준비를 완료할 수 있는 50여 페이지의 「시민권 취득 종합 안내서」도 무료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 워크샵은 그동안에 축적된 시민협회의 경험과 조직이 잘 조화되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잘 치루어졌습니다. 시민협회는 앞으로도 최후공회장의 뜻에 의해, 1년에 2회 정도씩 지속적으로 시민권 취득을 돕기 위한 무료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민권의 신청 자격은 본 회지의 25페이지에 수록된 「미국 시민권 취득 안내」 기사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워크샵에 참석하여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한 분들을 위해 향후의 절차를 안내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시민권 신청서 작성 이후의 절차**

**① N-400 신청료의 인상 시기;**

1999년 1월 15일(신청서가 이민국에 도착하는 날 기준)부로, 현재의 시민권 신청료 \$95는 \$225로 대폭 인상되고, 지문 채취 신청료 \$25는 변동이 없습니다. 인상되기 전의 혜택을 보시려면 반드시 1월 10일 경에는 늦어도 발송하시기를 권합니다.

**② N-400 제출 이후의 절차;**

N-400가 Vermont 이민국에 제출되면, 「신청서 수령 통보서」 및 「지문 채취 장소와 시간 통보서」가 6개월 이내로 신청인에게 보내집니다. 종전에는 지문 채취를 지정 장소나 경찰서에서 할 수 있었으나, 현재로는 법이 바뀌어 이민국에서 통보해주는 "장소"와 "시간"에 지정 장소에서 해야만 합니다.

FBI의 지문 조회가 완결되면(보통 8개월 소요), 신청 개개인에게 시험 및 인터

뷰 날자가 적힌 통보서가 마지막으로 보내집니다(보통 면접일로부터 2-4주 전). 총 1년 내지 1년 6개월이 소요되며, 이 기간이 초과해도 통지가 없으면 Boston 이민국에 재촉장을 보내셔야 합니다.

**③ 시험 및 인터뷰 당일의 준비물;**

영주권(그린 카드) 원본, Social Security Card, 운전 면허증이나 거주 사실 증빙 서류, 세무 보고서(Income Tax Return), 추가 보증 서류(N-400에 미기재된 사항이나, 법적 근거 서류), 여권(구 여권도 무방함), 범법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기록서, 이혼 판결서(한국에서 이혼이 되었을 경우 호적 등본 번역 및 공증본), 그리고 가능하면 N-400 신청서의 사본도 지참하여 시험 당일에 신청서 내용을 한번 더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름을 인터뷰 시 최종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니, 이름을 변경하기를 원하면 준비해 가시기를 권합니다.

**④ 한국어 시험 신청 자격과 영어 시험 신청 자격;**

50세 이상으로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20년 이상된 분(55세 이상은 15년 이상)은 통역인을 동반하여 한국말로 시험을 칠 수 있는데, 이때 20년/15년의 기준은 시험일이 아니라 신청일 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어 시험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영어 구두 시험과 영어 필기 시험이 면제됩니다. 이외의 분들은 영어로 시험을 쳐야 하는데, 영어 구두 시험에 통과되어도 간단한 영어 필기 시험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주지하셔서 영어 받아쓰기 시험을 많이 연습하기를 권합니다.

**⑤ 한국어 시험을 위한 통역인;**

적절한 통역인의 역할은 극히 중요하므로, 시험일이 정해지는 즉시, 미리 통역인을 선정해서 준비할 것을 권합니다. 통역인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직계 가족은 통역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친척은 허용되나, 통역인으로서의 경험이 적을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전문 변호사를 통역인으로 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⑥ 장애인 시험 면제 신청서(N-648);**

장애자는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자격 요건이 까다로우니, 적절한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2. 시민권 시험 및 인터뷰 요령**

① 오른 손을 들고 진실 서약이 있는 후에 바로 신청인의 이름, 주소, 외국 체류 사실(6개월 이상이면 자격 거주 연한에서 빼고 계산함), 지난 5년간의 거주지, 고용인, 그리고 배우자(이혼의 경우, 이혼 증빙서) 정보를 묻고, 마지막으로 범법 사실 유무를 질문합니다(범법 사실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② 고용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납세 기록(Income Tax Return)이 아주 중요하므로, 이를 꼭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분실한 경우에는 IRS에서 미리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③ 위와 같이 N-400에 기재된 신청인의 신상 검사에 통과하면(약 5분 소요), 비로소 미국 역사와 정치에 대해 약 5분에 걸쳐 시험을 치게 됩니다. 80%만 맞췄도 통과되니 한두개 질문에 실수하셔도 당황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시험이 통과되면 이름을 변경할 것인지의 여부를 점검한 후, 바로 그자리에서 "시험 통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④ 시험에 실패하셨다고 해도, 3-6개월 후에 재시험이 한번 더 주어지니, 이러한 재시험 응시 의사를 당일의 시험 이민관에게 밝히셔야 합니다.

⑤ 범법 사실이나 여타 사유로 시민권 취득이 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행정 재심(30일 이내)" 및 "연방 법원 심리(120일 이내)"를 통하여 이를 번복시킬 수가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고합니다.

⑥ 시험에 합격하셨다고 해도 선서식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시민권자가 아니며, 선서식 날자 통보는 시험 합격 후보통 3개월 이내에 오는데, 6개월 이내에도 없을 경우에는 이민국을 방문하여 재촉하셔야 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시민협회 활동

Activities of the League; Pic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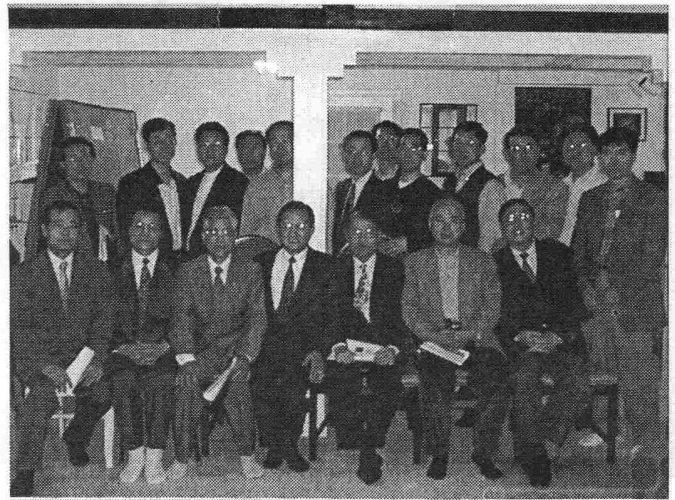
뉴스레터 제 1호 편집회의 (98년 4월 27일)



AAUD에 참석한 시민협회 임원 (98년 5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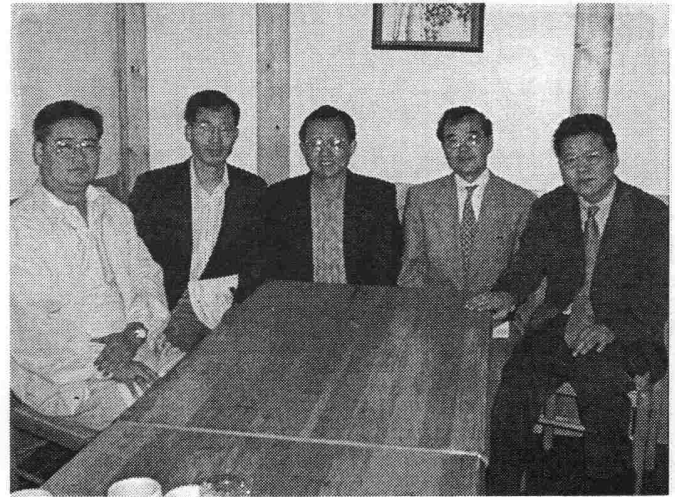
MA 주검찰총장 후보 Brad Bailey씨와 함께 (98년 5월 9일)



제 29차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회 (98년 5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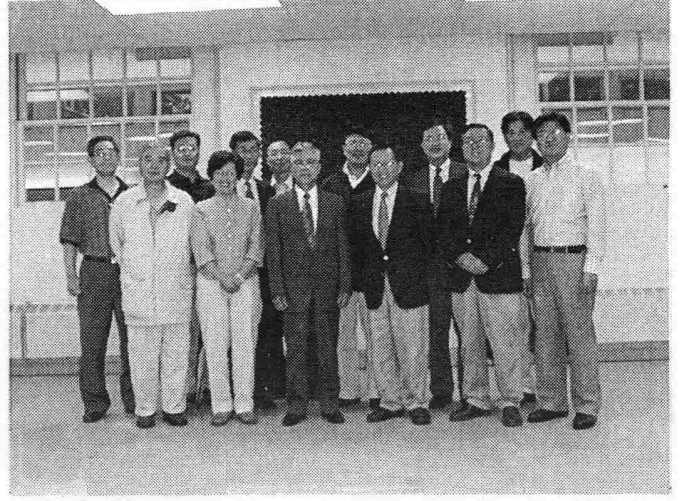
제 29차 이사회 회의 모습 (98년 5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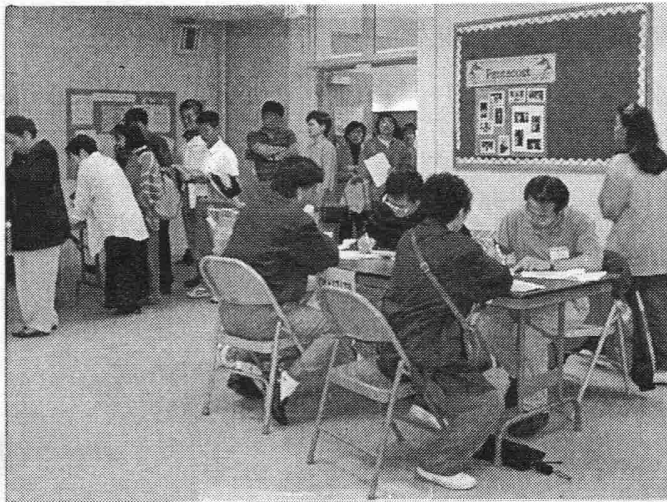
워크샵 개최를 위한 상임임원회 (98년 6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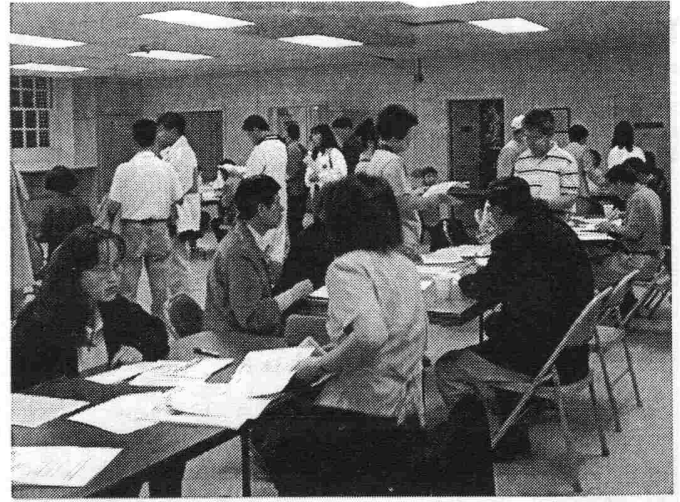
KAC대표 마크김 변호사와의 전국 조직 협의 (98년 6월 10일)



제30차 긴급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 (98년 6월 13일)



제3차 시민권 취득 무료 워크샵 (98년 6월 13일)



제3차 시민권 취득 무료 워크샵 (98년 6월 13일)



모금 파티, 총회 준비 등을 위한 상임이사회 (98년 7월 28일)



제31차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들 (98년 8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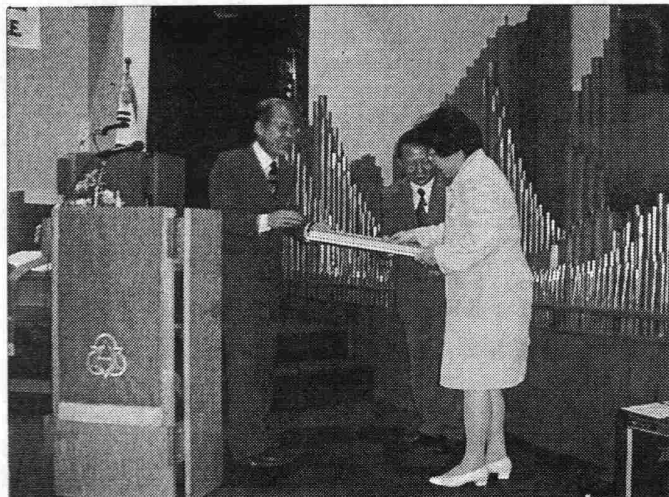




MA주지사 후보 Harshbarger 검찰총장의 후원 모금 파티 (98년 8월 27일)



제 8회 정기총회의 연사 Howard Koh(고경주) MA주 보건청장과 함께한 참석자들 (98년 10월 3일)



이른열 이사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는 김양길 전회장 (98년 10월 3일)



김양길 전회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는 김명기 사무총장 (98년 10월 3일)

# 시민협회 정기총회 개최

차기 회장에 최홍균씨 내정



▲새로 선임된 시민협회 임원진, 왼쪽부터 부회장 이경혜, 회장 최홍균, 부회장 김성군

미국 시민협회(회장 최홍균)는 10월 3일(토) 오후 7시 보스톤 교회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차기회장 선출, 회계보고, 헌법 개정, 회칙 개정, 임기 2년 확대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민협회는 동맹과 권익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시민권 취득을 위한 워크샵 개최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주당 지지사 후보인 하시바거 후보를 초청해 한인들의 정치적 위상을 드높인 단체로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정기총회 특별 초청연사로는 주 보건부 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한국인 출신 고경주씨가 참석해 동포들의 정치 참여와 그의 정당성에 대해 연설한다.

전화문의 (978)691-5108

## 시민협회 제8차 정기총회 개최

### 최홍균씨 회장, 김성군 변호사, 이경혜씨가 부회장선출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제8차 정기총회가 지난 10월 3일 오후 7시30분부터 70명 이상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북부보스톤 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되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회순에 따라 김명기 사무총장의 지난 일년간 협회경과보고, 김영훈 감사의 감사보고, 함성기 대변인의 재무보고가 있는 후 박대위 부이사장의 주관으로 정부 회장 선출이 있었는데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최홍균씨가 회장으로 김성군 변호사와 이경혜씨가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되었다.

또한 이사회에서 추천한 대로 채원길, 윤기철, 김진동, 김금열, 제씨를 신임이사, 임기가 만료된 김양길 전임회장, 조봉준 전임 부회장, 제시카 리 및 이강필, 제씨를 재선출 이사로 선출하였고 5명의 이사와 3명 간사의 사임을 수리하였다.

이날 최홍균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고문과 임원 및 이사들의 기립소개도 있었다.

지난 3년동안 회장으로 수고한 김양길씨에게는 이

문열 이사장이 또한 지난 7년동안 계속 사무총장으로 회보편집이나 기타 모든 협회사무를 보아온 김명기 사무총장에게는 김양길 전임회장이 각각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마지막으로 199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후 정기총회가 폐회되었다.

이날 주강사로 초청된 주 보건부청장인 고경주 박사(Howard Koh)의 강연회가 있었다.

고박사는 고(故) 고광림, 전해성씨 부부의 6남매중 한분으로 매사추세츠주내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자랑스러운 한인 1.5세로서 주내에 산재한 모든 건강에 관한 문제를 관장하는 기관(년 예산 6억불, 산하 4개의 병원 및 3천명의 Staff)의 장으로 수고하고 있다.

주내에 살고 있는 백만명 이상의 외국인들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는 중 우리 한인 미국인의 건강을 위해 5가지 사항(금연, B형 간염, 가정내 폭력, 정신건강, 건강보험)을 중점적으로 거론하였다.

이날 고박사는 모든 주민

들은 인증이나 언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건강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신념 아래 위에 삼기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으로 끝을 맺었다.

## 시민권 취득 무료 워크샵 개최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에서는 시민권 신청의 모든 과정을 무료로 도와 드리는 무료 워크샵을 12월 19일(토) 오후 1시-5시, 렉싱턴 소재 성요한 감리교회(2600 Mass. Ave., Lexington)에서 개최한다.

## 뉴잉글랜드 한인 미시민협회

### 32차 이사회 신년도 사업계획 논의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회장 최홍균, 이사장 이문열)는 11월 7일 박대위 부이사장실에서 32차 이사회를 갖고 신년도 사업계획과 시민협회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했다.

최홍균 회장은 1세대들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권 취득 Workshop을, 2세대들을 위한 사업으로 정치 인턴 보조를 집중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1년에 한번씩 가졌던 시민권 취득 Workshop을 앞으로는 1년에 2번 이상 갖기로 했는데, 특히 현재 \$95인 신청비가 내년 1월부터 \$225로 인상됨에 따라 오는 12월 19일(1시-5시) 성요한 교회에서 무료

Workshop을 가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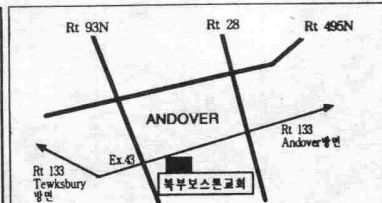
또한 현회장의 관리와 새회원의 확보에 큰 비중을 두고, 시민권자 확인 Campaign도 할 예정이다.

정치 인턴 보조 사업은 금년 처음 시작하여 김성훈군에게 \$1,000을 수여한 바 있는데 내년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3월 중에 모금 파티를 가질 예정이다.

이사회는 재무에 함성기, 대변인에 김연숙을 인준하였으며, 기금모금 위원장, 홍보출판위원장, 인권옹호 위원장에 조봉준, 이의인, 임병규 이사를 각각 임명하였고, 새이사에 김철주를 총회에 추천하기로 하였다.

# 8차 정기총회 개최 공고

시: 98년 10월 3일 (토) 오후 7시  
 소: 앤도버 소재 북부 보스톤교회  
 사: MA주 보건부 청장  
 Howard Koh(고경주)  
 Commissioner, MA Dept. of Public Health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회장 김 양 길

# 뉴잉글랜드 한인 시민권 취득

내년부터 신청료 현 95달러에서 225달러로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신청서 작성 및 모든 신청과정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워크샵을 오는 19일(토)에 렉싱턴에 소재한 성요한 감리교회(2600 Mass Ave., Lexington)에서 개최한다.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까지 진행될 이번 행사에는 시민권 신청 과정 소개 및 시민권 신청서(N-400) 작성과 신청에 필요한 사진 촬영과 복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각 교회, 단체, 한인 업체에 배치되어 있는 시민권 신청서(여가져)를 시큐어(개인-payable) 또는 타인



▶ 베일리 후보 후원 만찬에서 후원자들과의 기념사진

## 시민권 취득 무료 워크샵 개최

뉴잉글랜드 한인미국시민협회 교포들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워크샵을 19일(토)에 렉싱턴에 소재한 성요한 감리교회(2600 Mass Ave., Lexington)에서 개최한다.

##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권 취득

하шиб거 MA 주지사 후보 지지

시민협회는 지난 6월 13일 이사회를 갖고 현 MA 검찰총장인 스킷 하шиб거 주지사 후보를 9월 예비선거 및 11월 본 선거에서 지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하шиб거 검찰 총장은 지난 해부터 그의 선거 참모

는 본인이 직접 김양길 회장에게 각각 편지와 전화를 통해 지지를 요청해 왔다. 시민협회는 하шиб거 검찰총장이 협회 현장에 규정된 대로 우리한인들을 비롯한 아시아계 소수민족

지지를 그는 성범죄 및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 열심히 일했으며 검찰청 내에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 사람들을 검사로 임명하였고 아시아 주민 담당 검사직

## 시민협회 베일리 검찰총장 후보 지지 결정

9월 15일 예비선거와 11월 3일 본선거에 적극 지원

시민협회는 지난 8월 8일 이사회에서 브렛 베일리(공화당) 주 검찰총장 후보가 협회 현장에 규정된 대로 우리 한인들을 비롯한 아시아계 소수 민족의 이익과 입장을 지지해 온 점

치인으로 인정하고, 9월 15일 예비 선거 및 11월 3일 본 선거에서 지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베일리 후보는 4년전 연방 하원의원으로 출마했을 당시부터 시민협회에 지지를 요청해 왔으며 당시 보스턴 한인 사회에 만일 LA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경우 본인이 발 벗고 나서 돕겠다고 서약하기까지 하였다. 베일리 후보는 또한 금년

총장에 당선되면 아시안 검사들을 많이 임명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다. 시민협회는 이미 현 검찰총장 스킷 하шиб거 주지사 후보(민주당)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8월 27일 7시부터 9시까지 Lexington Elks Club(959 Waltham St. Lexington, MA)에서 하шиб거 후보를 위한 기금 모금 만찬을 갖는다. 티켓은 일인당 100달러(부

# 하шиб거 주지사 후보 '후원의 밤' 성황

소수민족의 권익 향상과 기회 확대에 큰 관심 표명



▲한인지지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한 하шиб거주지사후보.

지난 8월 27일 렉싱턴 소재 Elks클럽에서 매사추세츠 민주당 주지사 후보 스킷 하шиб거를 후원하는 기금 마련 만찬이 150여 명의 지지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뉴잉글랜드 한

인 미국시민협회(회장 김양길)는 지난 6월 13일 열린 이사회에서 현 매사추세츠주 검찰총장 하шиб거를 주지사 선거에서 전격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기금 마련 만찬을 최홍균 추진위원장의 주관으로 열게 되었다. 하шиб거 후보는 알려진 바와 같이 미들섹스 카운티의 검사장을 지낸 바 있고, 현재 주검찰총장으로 가정 내의 폭력, 인종적·민족적·성적 차별, 또 그로 인한 범죄를 추방해 내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처음으로 아시안 담당 검사반을 설치하는 등 소수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그의 공약으로 삼고 있다. 이날 만찬은 최홍균 시민협회 부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고, 김성근 홍보담당위원이 하шиб거의 경력을 전 참석자에게 소개하였다. 연이어 하шиб거 후보는 지지 감사 연설에서 도체스터, 첼시, 브록턴 등의 지역 개발과 함께, 학교 교육의 개혁은 물론 직업인의 재교육을 주장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아시안 등 소수 민족을 위한 차별 없고 기회 균등한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을 약속했다. 계속된 질의 응답에서는 모든 동포들의 최대관심사인 한인의 사회 진출 기회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한국계 미국인 등 소수 민족의 사회 진출을 폭 넓힐 것을 재차 강조했다. 반시간 가량 진행된 공식 행사 후 하шиб거 후보는 전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와 인사를 나누었고, 부페에 마련된 한국 음식을 같이 즐기기도 했다.

**회비 납부자 명단** ('97년도 \$20, '98년도 \$1,530; '97년도 \$190 미입 금액 포함, '97보고서에 \$270 포함됨)

안길남	오승혁	오승현	강영자	강경희	강기원	고영복	고용우	고광숙	권혁진	김 현
김양길	김연숙	김영조	김영하	김옥성	김용필	김원희	김갑동	김갑성	김경애	김경모
김계숙	김기성	김남숙	김내도	김동환	김명기	김명미	김명철	김문령	김문소	김병규
김복란	김봉순	김부래	김선미	김성빈	김세철	김윤관	김정선	김정임	김종수	김종수
김지영	김진희	김진희	김한나	김현옥	김효경	김희숙	남궁정자	노정자	도운희	문 선
문 혁	문애도	문영도	문한용	밍 동	박영신	박영일	박영철	박석만	박춘지	박필수
백 린	백정희	손말순	송미자	송재옥	신영춘	윤정자	윤창선	이영길	이영미	이우조
이강필	이경해	이묘숙	이문열	이삼환	이상구	이성혜	이숙기	이의인	이의철	이정규
이지원	이현주	이혜승	장양술	장승훈	장신희	장희숙	전혜경	정용국	정운학	정경희
정선주	정수일	정수일	정은숙	정진수	조병옥	조순래	조준호	주상용	주순자	주지희
진경숙	진문정	채경숙	최영훈	최낙철	최승주	최정선	최홍균	최화자	태수영	태진수
한영희	한광홍	한도열	한소라	한승희	한현자	홍선희	황동진	황성미	백린 사모님	
은주 자코위스		김명기('97)		김선미('97)						
99년도(98년 10월 이후 \$340):			김은한	이혜원	정명철	장인숙	이의인	백정희	최낙철	서정섭
박영철	박선주	신고희	이옥희	Tom Shin	남궁연	남궁정자	최승훈	김창순	김인수	이춘순
홍성도	이문봉	조영희	안창수	홍군숙	김문소	김계숙	김지원	최홍균	황성미	최진우
최영훈	이지원	김원엽내외분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97년도 \$100, '98년도 \$10,500, 10월 이후 \$2,350)

김 철	100	김양길	1,000	김연숙	100	김영하	200	김갑동	200	김기석	200
김기자	100	김명기	100	김문소	300	김성군	300	김성인	300	김은한	300
박경원	300	박경민	300	박경수	150	박대위	500	박석만	500	박필수	300
방선욱	200	신상철	100	오수택	200	이강필	200	이경해	200	이동익	200
이문열	1,000	이의인	200	이재신	100	이현주	100	임병규	100	정석호	100
정수일	200	정수일	200	제시카리	150	조봉준	500	최영훈	100	최낙철	100
최홍균	500	한서동	100	한석훈	300	한윤영	200	합성기	100	김명기('97)	100
이의인	200	최낙철	100	신상철	200	최홍균	1,000	채도경	50	김문소	300
최영훈	200	박석만	300								

**찬조금 납부자 명단 (\$3,260+\$220)**

AAUD	1,850	강세현	100	고광숙	30	기타	50	김영조	20	김내도	30
김봉순	10	김세철	10	김진희	10	남궁정자	20	노정자	100	문애도	20
서해수	200	한인회	500	윤정자	20	이우조	90	이묘숙	90	이문열	100
진문정	10	신고희	70	이현주	100	김문소	50	보스톤산성교회	100		

**회지 광고 찬조금 납부자 명단 (6호:\$300, 7호:\$11,900)**

Captain Boston Fish	Foreign Motor West	Complete Car Care	Diamond Exchange	Lee Antique	Young Lee Danesh		
New Life Fellow. Church	Allston TV	공개 토한의원	가든하우스	경제인협회	신신식품	서해수	문수사
강길원산부인과	보스톤소망교회	과학자협회(6,7호)	김연숙투자	평통자문위	김성군	이지훈	김 섭
캠브리지 한인 교회	보스톤한인교회	RI 중앙교회	아시아나그릴	뉴장수갈비	농장식품	이문봉	다빈
보스톤한인감리교회	영광순복음교회	문유경치과	박오토바디	방선욱투자	범양해운	한윤영	김문소
보스톤산성교회	북부보스톤교회	서울대동창회	임나경상담소	태양자동차	천주교회	장승훈	오수택
보스톤장로교회	이운로산부인과	성요한교회	한은애치과	신영묵치과	형제떡집	나리따	우촌
퀸시영생장로교회	이현주회계사	이경해부동산	코리아여행사	청계식품	대한항공	한석훈	

**시민권 취득 안내서, 뉴스레터, 98년도 회지 광고 찬조금 납부자 명단**

영광순복음교회	Bank of Boston	태권도협회	보스톤보석	과학자협회	김연숙	임나경	이경해	김문소
---------	----------------	-------	-------	-------	-----	-----	-----	-----

회비, 이사회비, 그리고 찬조금을 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광고를 게재해 본회의 회지가 발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광고주 여러분들과 물심양면의 지원을 해주신 모든 분께 전 임원의 감사를 올립니다.

**재무 보고서**

재무 이현주

Financial Report

Hyon C. Yi, Treasurer

회계 기간 : 10/1/97 - 9/17/98

**INFLOWS:**

Ad. Income	\$13,000.00
Director's Fee	\$10,500.00
Donation	\$3,360.00
Int. Income	\$99.96
Membership Fee	\$1,290.00
AAUD Ticket Sale	\$1,250.00
<b>TOTAL INFLOWS</b>	<b>\$29,499.96</b>

**OUTFLOWS:**

Advertisement	\$3,175.00	Membership	\$115.00
Bank Charge	\$113.65	Office Supplies	\$1,378.39
Commission	\$8,000.00	Printing	\$8,621.00
Equipment	\$2,139.48	Scholarship	\$1,000.00
Fee	\$15.00	Telephone	\$1,144.57
Gift	\$1,022.00	AAUD Tickets	\$1,330.00
Mail	\$788.43	Travel	\$1,565.03
Meeting	\$381.18		
<b>TOTAL OUTFLOWS</b>	<b>\$30,788.73</b>		

Beginning Cash Balance	\$4,402.02
Net Income	-\$1,288.77
Ending Cash Balance	<u>\$3,113.25</u>

<b>TOTAL INFLOWS</b>	<b>\$29,499.96</b>
<b>TOTAL OUTFLOWS</b>	<b>\$30,788.73</b>
<b>OVERALL TOTAL</b>	<b>-\$1,288.77</b>

회계 년도	년도별 입금 내역							
	8/31/91	9/30/92	10/31/93	9/17/94	9/19/95	9/18/96	10/15/97	9/17/98
회비	\$1,660.00	\$420.00	\$740.00	\$450.00	\$900.00	\$1,140.00	\$820.00	\$1,290.00
이사회비	\$1,600.00	\$500.00	\$1,300.00	\$1,500.00	\$2,500.00	\$2,200.00	\$2,200.00	\$10,500.00
찬조 및 기타	\$640.00	\$720.00	\$615.00	\$1,000.00	\$1,704.18	\$3,060.00	\$1,210.00	\$3,360.00
광고, 후원		\$2,400.00	\$750.00	\$1,500.00	\$2,270.00	\$3,750.00	\$12,700.00	\$13,000.00
은행이자				\$17.33	\$40.04	\$52.28	\$51.62	\$99.96
기타						\$11,022.00	\$690.00	\$1,250.00
<b>합계</b>	<b>\$3,900.00</b>	<b>\$4,040.00</b>	<b>\$3,405.00</b>	<b>\$4,467.33</b>	<b>\$7,414.22</b>	<b>\$21,224.28</b>	<b>\$17,671.62</b>	<b>\$29,499.96</b>

(\*96 기타 내역: 시민권 \$6,802.00 AAUD Ticket \$595.00 기금모금 \$3,625.00)

**1999년도 예산 및 사업 계획**

**수입 예산**

회비: \$10x300명	\$3,000.-
이사회비: 49명	\$13,800.-
협회지 8호 광고 수입	\$12,675.-
뉴스레터 광고 수입(2회)	\$2,000.-
시민협회 모금 파티(1회)	\$5,000.-
AAUD Ticket 구매	\$900.-
기타 찬조비	\$2,000.-
<b>총계</b>	<b>\$39,375.-</b>

**지출 예산**

협회지 8호 인쇄비 및 발송비	\$6,500.-	인건비	\$10,000.-
뉴스레터(2회) 발간 및 발송비	\$1,600.-	매체 광고비	\$3,000.-
시민협회 모금 파티(1회)	\$1,000.-	우편비	\$1,000.-
이세 활동 지원비	\$1,000.-	사무비	\$1,200.-
정치분야인턴 장학금	\$2,000.-	비품비	\$1,500.-
타 기관, 불우이웃 지원비	\$500.-	전화비	\$1,400.-
8회 총회 경비	\$500.-	회의비, 간담회	\$2,000.-
전국대회 참가비	\$2,000.-	AAUD Ticket	\$900.-
은행 경비 및 기타	\$500.-	예비비	\$2,775.-
<b>총계</b>	<b>\$39,375.-</b>		

**협회 주요 활동 계획**

- 회의 : 총회 1회, 이사회 4회, 상임이사회 2회, 상임임원회 2회, 편집위원회 5회
- 출판 및 홍보 : 회지 발간 1회, 뉴스레터 발간 2회 및 발송, 각종 홍보 활동
- 캠페인 : 각종 캠페인 5회 이상 (투표, 유권자 등록, 회원 확보, 법안 반대 및 추진, 한인 정부직 추천, 기타)
- 시민권 취득 워크샵 : 2회 (6월 및 10월)
- 초청 간담회 : 종교 지도자 초청 간담회, 전국 한인 단체 결성 관련 등
- 기금 모금 : 시민협회 모금 파티 1회
- 여타 단체와의 유대 : 전국 대회 참가, 여타 소수 민족 회의 참가 등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 (이하 본회)라고 부른다.

제2조: 위치

본회의 관할 지역은 뉴 잉글랜드로 하며, 본회의 사무소는 대 보스톤 지역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한인 미국 시민의 미국 정치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2. 한인 미국 시민의 법적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을 적극 추진하며, 시민권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주권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한다.
3. 한인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을 확대하며, 사회 부조리 개선에 적극 참여한다.
4. 한민족의 역사적 전통을 유지, 보존하여 후손에 계승, 개발케 함으로써 민족적 긍지를 잃지 않게 하고,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5. 한미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다.

제4조: 사업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를 권장한다.
2. 한민족과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원한다.
3. 한민족의 권익에 관련된 법률의 의회 통과 및 통과 반대를 위한 합법적인 로비 활동을 한다.
4. 한민족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인사에 대한 청원서, 서신 등을 송부한다.
5. 한민족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한 합법적 행사를 한다.
6. 한민족의 가정 보호, 청소년 선도 및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제5조: 뉴 잉글랜드 한인회와의 관계

본회는 뉴 잉글랜드 한인회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구분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뉴 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

인 미국 시민으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사람.

2. 준회원: 뉴 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미국 영주권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사람.

3. 특별회원: 본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사람으로서 회장단 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 받은 사람.

제8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고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결의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제9조: 정권 및 제명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사회에서 자격 정지 또는 제명을 결의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칙 및 세칙을 위반한 사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3.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10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임원회로 나눈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재직 회원 1/3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된다.

2. 임시 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4주 이내에 소집하며, 재직 회원 1/3 이상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된다. 임시 총회가 불가능할 때는 우편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또는 재직 이사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의 재직 이사 출석으로 성회된다. 이사회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회의 2주전까지 심의 안건을 기재한 통지서를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우편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4.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당연직 이사, 분과 위원장, 지역 간사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5.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의 기능

1. 정기 총회는 이사회에서 결의 혹은 승인

한 사항 외에 다음의 회무를 처리한다.

- 가. 전년도 결산 및 사업 보고
  - 나. 신년도 예산 및 사업 계획
  - 다. 회장, 부회장 및 이사 선출
  - 라. 헌장 개정
  - 마.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안건
2. 이사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을 연구, 계획하여 총회에 건의하며, 총회 결의 사항의 집행을 협조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가.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추천
  - 나. 사업별 분과 위원회의 조직
  - 다. 분과 위원회의 운영 세칙 인준
  - 라. 헌장 개정 추천
  - 마. 세칙의 제정 및 변경
  - 바. 회원의 가입 (특별 회원 포함), 자격 정지 및 제명
  - 사. 회비 책정
  - 아. 예산 및 결산안 인준
  - 자. 사업 계획 추천
  - 차. 고문의 추대
  - 카. 기타 총회의 인준을 요하는 사항

3. 상임이사회는 이사회 분과 위원장, 지역 간사 및 당연직 이사들로 구성되며, 이사회를 보다 활성화하고 능률화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준비하며, 긴급 사업 계획 및 안건을 심의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4. 임원회는 회장단, 이사회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들로 구성되며, 이사회나 상임이사회 결의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방법을 구상하고 집행하며,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보고할 제반 사업 보고 및 처리 보고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심의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5.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상임이사회와 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제12조: 회장단의 구성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사무총장 1명
4. 재무 1명
5. 대변인 1명
6. 설의 약간명

제13조: 회장단의 선출

1. 회장 및 부회장은 다음 후보중 정기 총회에서 다수결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총회 30일 전까지 회원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에게 제출한 사람  
2. 사무총장, 재무, 대변인 및 설립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4조: 회장단의 임기**

1.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단 중 결원이 생길 때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이다.

**제15조: 회장단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정책 결정에 따라 본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임원회를 주관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연명 서열에 따라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 기간만 재임한다.  
4. 사무총장은 본회의 모든 회의록 및 업무 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운영을 위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하며, 총회에 사업 보고를 한다. 사무총장은 유급으로 한다.  
5. 재무는 회비를 징수하고 본회의 재무를 담당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재정, 결산, 예산 보고를 한다.  
6. 설립은 회장 및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본회를 위한 설의 활동을 한다.  
7. 대변인은 회장 및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본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발표한다.  
8. 회장단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9. 회장단은 특별 회원을 추천한다.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50명 이내의 선출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감사 2명, 각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를 둔다.

**제17조: 이사의 선출 및 임기**

1. 선출 이사는 다음 후보 중 정기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새로 선출할 이사의 수는 총회 전 이사회에서 정한다.

가.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총회 30일전까지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에게 제출한 사람

2.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선출 이사 중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 이

사 임기와 관계없이 2년으로 한다.

3. 감사,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는 선출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이사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4년으로 한다.

**제18조: 이사의 임무**

1. 이사장은 이사회와 상임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하고 잔여 기간만 재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11조 2항의 회무를 의결하며, 분과 위원회에 소속되어 기능을 발휘한다.  
4.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들은 제4조 사업에 따른 사업들을 각 분과 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여 사업 계획서를 이사회나 상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이사회의 서기는 이사회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며 사무총장이 겸임한다.  
6.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제19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이사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본 회의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조: 지출**

본회의 모든 지출은 회장의 결재를 얻어 행하며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장 현상 개정**

제21조: 본 현장은 이사회 또는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 제안으로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이 현장은 총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1996년 현재의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잔여 임기를 재임한다.

**개정**

1. 제정: 1990년 8월 18일 창립 총회

2. 제1차 개정: 1994년 10월 1일

3. 제2차 개정: 1996년 10월 19일

**Article I**

**General**

**Section 1: Name**

The organization shall be known as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referred to as the League hereafter).

**Section 2: Location**

The League shall perform its activities in the New England area and shall have its main headquarters in the greater Boston area.

**Section 3: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e League shall be:

- (1) to encourage Korean-American citize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American politics;
- (2) to enhance the legal status and benefits of Korean-Americans and to firmly establish Korean-Americans as being among the owner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y educating them about their rights and duties as American citizens;
- (3) to strengthen relations among Korean-Americans; to improve thei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tatuses; and to actively work to rectify social injustices;
- (4) to help future generations keep their Korean pride and to contribute a uniquely Korean element to American society by preserving Korean traditions and transferring them to future generations;
- (5) to enhanc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ction 4: Activities**

The activities of the League shall be:

- (1) to encourage Korean-Americans to vote and to run for elected positions;
- (2) to support politicians who stand for Korean-Americans and Korea;
- (3) to lobby for and against passage of laws affecting rights of Korean-Americans;
- (4) to submit petitions and letters to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o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s of Korean-Americans
- (5) to engage in legal activities to protect and to promote the rights of Korean-Americans;
- (6) to undertake projects to protect Korean-American homes, guide Korean-American adolescents, and promote benefits for elderly Korean-Americans.

**Section 5: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 **American Society of New England**

The League shall maintain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New England to promote collaboration.

### **Article II Membership**

#### **Section 6: Membership Classes**

The League shall be composed of Regular, Associate, and Special members.

#### **Section 7: Membership Eligibility**

Any Korean-American U. S. citizen residing in the New England area who supports the objectives of the League and who has applied for membership may become a Regular member. Any Korean-American permanent resident in the New England area who supports the objectives of the League and who has applied for membership may become an Associate member. Any person supporting the activities of the League who has been recommended by the Executive Body or the Board of Directors and approved at the General Meeting may become a Special member.

#### **Section 8: Obligations and Rights of Members**

Members shall observe the Constitution and Bylaws of the League and pay membership dues. All members may vote, but only Regular members may run for elected positions.

#### **Section 9: Suspension and Expulsion**

The Board of Directors may suspend or expel from the League any members who have:

- (1) violated the Constitution or Bylaws of the League;
- (2) damaged the reputation of the League;
- (3) have not fulfilled their obligations as members of the League.

### **Article III Organization**

#### **Section 10: Meetings**

The League shall hold the following meetings:

- (1) The annual General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President in the October of each year. The General meeting shall require the

attendance of one-third of all members or at least one hundred members, whichever is fewer.

(2) A Special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President within four weeks of when the Board of Directors has deemed it necessary. It shall require the attendance of one-third of all members or at least one hundred members, whichever is fewer. However, if it is not possible to hold such a meeting, a mail-in ballot may be substituted.

(3)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when the Chairperson, President, or more than one-third of the Directors deem it necessary. It shall be held at least twice a year, and shall require the attendance of more than one-half of the Board. The Chairperson shall send out a notice of the meeting and its agenda at least two weeks before the meeting date. If it not possible to hold the meeting, a mail-in ballot may be substituted.

(4) The Standing Committee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Chairperson when the Chairperson or one-third of the Committee chairs and local representatives request it. It shall be held at least twice a year,

(5) The Executive Committee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President at least twice a year.

#### **Section 11: Meeting Functions**

(1) The agenda of the General Meeting shall consist of the following:

- a. report of the statement of the previous year's accounts and activities;
- b. report of the following year's budget and plans;
- c. election of the President, Vice Presidents, and Directors, if necessary;
- d. any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 e. any other items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2)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study and plan all projects necessary for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e League and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General meeting. The Board shall support the President in executing the decisions made at the General

meeting. In addition, the Board shall take charge of the following:

- a.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for the offices of the President, Vice Presidents, and Directors;
- b. organization of committees;
- c. approval of Bylaws for committees;
- d. recommendations for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 e. enactment and amendments to the Bylaws;
- e. admission of new members, including Special members, and suspension and expulsion of members;
- f. determination of membership dues;
- g. approval of drafts for the budget and account statements;
- h. recommendation of plans for the coming year;
- i. recommendation of advisors;
- j. introduction of any other items to the General meeting that the Board deems necessary.

(3) The Standing Committee shall consist of Committee chairs, local representatives, and members of the Executive Body. It shall prepare for the Board Meeting and make plans for urgent projects, which shall subsequently be ratified by the Board.

(4) The Executive 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Executive Body, Committee chairs, and local representatives. It shall study effective methods of executing the items decided upon at the Board meetings, and then it shall be in charge of their execution. It shall also discuss the projects, budget, and account statements to be reported to the General, Board, or Standing Committee meetings, and oversee the execution of other necessary items.

(5) In an emergency or necessities, the President, after consulting with the Chairperson, may call a joint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and the Executive Committee.

#### **Section 12: Composition of the Executive Body**

The Executive body shall consist of one President, two Vice Presidents, one Executive Director, one Treasurer, one Spokesperson,



and a few Public Relations Officers.

**Section 13: Selection of the Executive Body**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s shall be elected from among the following candidates:

- a. Persons recommended by the Board;
- b. Persons who have submitted to the Chairperson a petition signed by more than fifty members at least thirty days before the annual General meeting.

The Executive Director, Treasurer, Spokesperson, and Public Relations Officers shall be nominated from the Regular members by the President and confirmed by the Board.

**Section 14: Terms for the Executive Body**

The Executive Body shall serve for two years. If one of the members resigns before the term expires, a replacement shall be nominated by the President and confirmed by the Board. The term for such members shall be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Section 15: Duties of the Executive Body**

- (1) The President shall represent the League, execute the decisions of the Board, and be in charge of the operation of the League.
- (2) The President shall be the Chairperson of the General meeting and preside over the Executive Meeting.
- (3) The Vice Presidents shall assist the President. In case the President resigns before his or her term expires, the more senior aged Vice President shall become President. His or her term shall be the remainder of the former President's.
- (4) The Executive Director shall keep all records of meetings and operations, assist the President and the Vice Presidents in carrying out the activities of the League, and report those activities at the General meeting. The Executive Director shall be a paid position.
- (5) The Treasurer shall collect membership dues, be in charge of the League's finances, and report the financial statement of the previous year and the budget for the following year at the General meeting.
- (6) The Public Relations Officers shall perform public relations activities as

delegated by the President and the Board.

(7) The Spokesperson shall represent and announce the opinions of the League as delegated by the President and the Board.

(8) Executive Body members shall automatically become members of the Board.

(9) The Executive Body shall recommend Special Members.

**Section 16: Composition of the Board**

The Board shall consist of fewer than fifty members. There shall be one Chairperson, one Vice Chairperson, two Auditors, chairpersons for the committees, and local representatives.

**Section 17: Selection of the Board Members and Their Terms**

(1) The number of board members to be elected shall be decided at a Board meeting before the annual General meeting. The elected Board members shall serve four year terms and be elected by a majority vote from the following pool of candidates:

- a. Persons recommended by the Board;
- b. Persons who have submitted to the Chairperson petitions signed by more than thirty members at least thirty days before the General meeting.

(2) The Chairperson and the Vic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from among the Board members by majority vote of the Board meeting. Their terms shall be two years, regardless of their remaining terms as Board members.

(3) Auditors, committee chairpersons, and local representatives shall be elected among elected Board members by majority vote at the Board meeting. Their terms shall be four years, regardless of their remaining terms as a Board members.

**Section 18: Duties of the Board Members**

- (1) The Chairperson shall call and preside over the Board meetings and the Standing Committee meetings.
- (2) The Vice Chairperson shall assist the Chairperson. If the Chairperson resigns before his or her term expires, the Vice Chairperson shall become the Chairperson.
- (3) Board members shall attend the Board

meetings, make decisions on the items listed in Article III, Section 11 (2), and perform activities for the pertaining committee.

(4) Board committee chairpersons and local representatives shall study the activities related to the ones listed in Article I, Section 4 and submit plans to the Board or the Standing Committee.

(5) The Executive Director shall record and keep the minutes of the meetings.

(6) The Auditors shall audit the accounts of the League and report the results to the General Meeting.

**Article IV  
Finance**

**Section 19: Income**

Income for the League shall come from membership dues, directors' dues, and other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of the League.

**Section 20: Expenditures**

All expenditures of the League shall require the approval of the President and require receipts.

**Article V**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Section 21**

At the written proposal of the Board or one-fifth of all members, the Constitution may be amended at the annual General meeting and with the vote of two-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at the meeting.

**Appendix**

- 1. This constitution shall be effective on the date it is adopted at the annual General meeting.
- 2. The terms of the present Chairperson and Vice Chairperson as of 1996 shall serve their remaining terms.

**협회 임원, 이사 명단 및 주소록**

(1998년 10월 31일 현재)

Name and Address of the Board of Directors

(As of October 31, 1998)

회장	최홍균	<u>President</u>	11 Bartkus Farm Rd., Concord, MA 01742	H:(508) 371-1217
		Choi, Hong Kyun (Ph.D.)	H:(978) 369-0351 O:(781) 981-4457	O:(781) 981-0122
부회장	김성균	<u>Vice President</u>	294 Washington St., Suite 752, Boston, MA 02109	
		Kim, Song-Kun (Esq.)	H:(617) 825-1115 O:(617) 482-1300	O:(617) 482-3344
부회장	이경해	<u>Vice President</u>	239 Fremont St., Taunton, MA 02780	H:(508) 828-1585
		Dong, Kay	H:(508) 824-4080 O:(800) 867-9000	O:(508) 828-1585
사무총장	김명기	<u>Executive Director</u>	2 Lamprey Lane, Lee, NH 03824	H:(603) 659-5488
		Kim, Michael Myungki	H:(603) 659-6129 O:(603) 659-4845	O:(603) 659-5488
재무	함성기	<u>Treasurer</u>	146C Shore Dr., Peabody, MA 01960	
		Ham, Steve	H:(978) 538-9511 O:(978) 282-2698	
대변인	김연숙	<u>Spokesperson</u>	25 Braintree Hill Office Park, Suite 301, Braintree, MA 02184	
		Corkum, Yon (C.F.P.)	H:(781) 821-5825 O:(781) 849-0980 x172	O:(781) 848-3617

이사장	이문열	<u>Chairperson</u>	1634 Bluehill Ave., Mattapan, MA 02126	H:(617) 327-9714
		Lee, Moon Yeal	H:(617) 327-9714 O:(617) 298-1185	O:(617) 298-1185
부이사장	박대위	<u>Vice Chairperson</u>	107 Scotland St., Hingham, MA 02043	H:(781) 740-8032
		Park, David	H:(781) 740-1286 O:(508) 754-1608	
감사	정수일	<u>Auditor</u>	15 Locker St., Wayland, MA 01778	
		Chung, Sooil	H:(508) 655-2067 O:(508) 875-9111	
감사	최영훈	<u>Auditor</u>	37 Woodpark Circle, Lexington, MA 02173	
		Choi, Yung Hoon	H:(781) 861-6068 O:(603) 579-2512	O:(603) 579-2510
고문	뉴잉글랜드 한인회장 (자동 추대)			

**유권자 등록 추진 위원회 REGISTRATION & CAMPAIGN COMMITTEE**

고문	김은한	<u>Advisor</u>	23 Solomon Pierce Rd., Lexington, MA 02173	
		Kim, Eun Han (M.D.)	H:(781) 861-0437 O:(617) 665-8912	H:(781) 861-0437
위원장	최낙철	<u>Chairperson, Committee</u>	12 Springdale Rd., Lexington, MA 02173	
		Choi, Steve	H:(781) 860-9426 O:	
위원	정석호	<u>Member, Committee</u>	65 Broadway St., Newton, MA 02160	
		Chung, Paul S.	H:(617)928-1023 O:(800) 473-1922	O:(617)267-5009
위원	박필수	<u>Member, Committee</u>	22 Maplewood Ave., Tyngsboro, MA 01879	
		Park, Phil S.	H:(978) 649-6595 O:(978) 649-4177	
위원	김영하	<u>Member, Committee</u>	1011 Centre Street, Newton, MA 02159	
		Kim, Young Ha	H:(617) 527-3456 O:(617) 442-1616	

**기금 모금 위원회 FUND RAISING COMMITTEE**

고문	박석만	<u>Advisor</u>	18 Olde Berry Rd., Andover, MA 01810	
		Park, Suk Man	H:(978) 475-8627 O:(978) 686-9546	O:(978) 687-6255
위원장	조봉준	<u>Chairperson, Committee</u>	10 Endicott Rd., Andover, MA 01810	
		Cho, Bong June	H:(978) 475-2317 O:(978) 535-6936	O:(978) 475-2317
위원	김기석	<u>Member, Committee</u>	1 Terrace Rd., Weston, MA 02193	
		Kim, Kisuk	H:(781) 899-3453 O:(617) 332-2800	
위원	안병학	<u>Member, Committee</u>	50 North St., Andover, MA 01810	
		An, Byung Hak	H:(978) 689-9546 O:(978) 749-9904	O:(978) 749-9904

**홍보/출판 위원회 COMMUNICATIONS & PUBLICATION COMMITTEE**

고문	박경민	<u>Advisor</u>	41 Laxfield Road, Weston, MA 02193	H:(781) 899-4675
		Park, Kyung Min (M.D.,Ph.D.)	H:(781) 899-5009 O:(508) 383-1730	O:(508) 383-1155
위원장	이의인	<u>Chairperson, Committee</u>	7 Goffe Rd., Lexington, MA 02173	H:(781) 862-2636
		Lee, Eui In (ph.D.)	H:(781) 862-5270 O:(781) 981-4544	O:(781) 981-7830
위원	김명기	<u>Member, Committee</u>	2 Lamprey Lane, Lee, NH 03824	H:(603) 659-5488
		Kim, Michael Myungki	H:(603) 659-6129 O:(603) 659-4845	O:(603) 659-5488

위원 박경원 Member, Committee 127 Ridge St., Winchester, MA 01890  
 Park, Kyung Won (M.D.) H:(781) 721-1260 O:(617) 667-3112 O:(617) 754-2677

**정치 활동 위원회** POLITICAL ACTION COMMITTEE

고문 김양길 Advisor 182 Olympic Lane, N. Andover, MA 01845 H:(978) 687-8942  
 Kim, Yangkil H:(978) 691-5108 O:(978) 623-2103 O:(978) 623-2603  
 위원장 김성인 Chairperson, Committee 6 Zambom Terrace, Andover, MA 01810  
 Kim, Sung In H:(978) 738-0034 O:(617) 737-3243 O:(617) 338-1280  
 위원 김기자 Member, Committee 68 Chestnut St. Apt.#2, Boston, MA 02108  
 Kim, Kija H:(617) 489-9080 O:(617) 354-0100 x212 O:(617) 868-6855  
 위원 이강필 Member, Committee 184 Cedar Hill St., Marlboro, MA 01752  
 Lee, Kang Pil (ph.D.) H:(978) 443-7647 O:(508) 481-5058 x11 O:(508) 480-0328

**이세 지원 위원회** SECOND GENERATION SUPPORT COMMITTEE

고문 이재신 Advisor 141 Rhode Island Rd., Lakeville, MA 02347  
 Lee, Jay H:(508) 923-0031 O:(617)  
 위원장 한석훈 Chairperson, Committee 165-U. New Boston St. Suite 289, Woburn, MA 01801  
 Han, Kenneth S. (Esq.) H:(781) 272-7692 O:(781) 935-4620 O:(781) 935-4187  
 위원 진동호 Member, Committee 27 Antone Drive, Norton, MA 02766  
 Jin, Donald H:(508) 226-3116 O:(401) 884-6300 O:(401) 884-5276  
 위원 이지훈 Member, Committee 38 Eastern Ave., Malden, MA 02148  
 Yi, Gary G. H:(781) 322-6417 O:(781) 324-7765 O:(781) 324-7756  
 위원 방선욱 Member, Committee 431 Bay Rd., Easton, MA 02375  
 Pang, Gregory H:(508) 230-2757 O:(781) 239-8420 O:(781) 235-8506

**국적 위원회** NATIONALITY COMMITTEE

고문 백 린 Advisor 6 Edwin Street, Brookline, MA 02146  
 Paik, Lin H:(617) 734-9178  
 위원장 고일석 Chairperson, Committee 5 Cityview Circle, N. Providence, RI 02911  
 Koh, David I. H:(401) 353-6180 O:(401) 944-1110 O:(401) 944-1106  
 위원 신상철 Member, Committee 5 Dewey Rd., Lexington, MA 02173  
 Shin, Sang Chul H:(781) 862-0512 O:(978) 442-0531 O:(978) 547-2077

**대외 협력 위원회** COMMUNITY LIAISON COMMITTEE

고문 김문소 Advisor 10 Cardinal Lane, Andover, MA 01810 H:(978) 470-3232  
 Kim, Moon So (D.V.M.) H:(978) 475-3534 O:(978) 851-3626 O:(978) 851-6408  
 위원장 박경수 Chairperson, Committee 15 Lyme Road, Newton, MA 02165  
 Park, David K. (Esq.) H:(617) 964-1140 O:(617) 973-3536  
 위원 노명호 Member, Committee 325 Western Ave., Lynn, MA 01904  
 Lowe, Myeong Ho H:(781) 595-4065 O:(781) 648-4783  
 위원 제시카 리 Member, Committee 298 Ocean Ave., Marblehead, MA 01945  
 Jessica Lee H:(781) 631-4255 O:(781) 639-1847

**인권 옹호 위원회** CIVIL RIGHTS COMMITTEE

고문 김갑동 Advisor 526 Commonwealth Ave., Newton, MA 02459  
 Kim, Kap Dong (Rev.) H:(617) 965-2157 O:(617)  
 위원장 임병규 Chairperson, Committee 24 Thomas Dr., Reading, MA 01867  
 Lim, Byoung Kyu H:(781) 942-0624 O:(617) 664-5527  
 위원 김진동 Member, Committee 39 Pleasant St. #B-18, Northborough, MA 01532  
 Kim, Jin Dong H:(508) 393-3677 O:  
 위원 김금련 Member, Committee 7 McHugh Farm Lane, Chelmsford, MA 01824  
 Kim, Zombek H:(978) 256-5480 O:(508) 423-3124 O:(978) 453-4890

**시민권 취득 안내 위원회** CITIZENSHIP COMMITTEE

고문	김양길	<u>Advisor</u> Kim, Yangkil	182 Olympic Lane, N. Andover, MA 01845 H:(978) 691-5108 O:(978) 623-2103	H:(978) 687-8942 O:(978) 623-2603
위원장	이동익	<u>Chairperson, Committee</u> Lee, Dongik	26 Rockyhill Road, Andover, MA 01810 H:(978) 470-1793 O:(978) 470-4793	O:(978) 470-8232
위원	김한수	<u>Member, Committee</u> Kim, Hansoo	26 Reeves Rd., Bedford, MA 01730 H:(781) 275-2409 O:(508) 383-7721	
위원	최원길	<u>Member, Committee</u> Choi, Won Kil	9 Parkview Ave., Salem, NH 03079 H:(603) 893-9209 O:(978) 688-5418	
위원	김철주	<u>Member, Committee</u> Kim, Nathan J.	1353 Pawtucket Blvd. #14, Lowell, MA 01854 H:(978) 454-2721 O:	

<b>지역 간사</b>		REGIONAL REPRESENTATIVES		
NH주	한윤영	<u>New Hampshire Rep.</u> Han, Yun Young	353 Maple St., Manchester, NH 03103 H:(603) 893-6373 O:(603) 622-8883	
NH주	오수택	<u>New Hampshire Rep.</u> Oh, Steve	3 Stone Post Rd., Salem, NH 03079 H:(603) 898-6576 O:(603) 434-8399	
ME주	채도경	<u>Maine Rep.</u> Chai, Dou Kyung (M.D.)	3 Tallwood Road, Augusta, ME 04330 H:(207) 622-9757 O:(207) 623-3515	O:(207) 626-9277

### 임기 년한별 이사 구분

2002년도	2001년도	2000년도	99년도	당연직 이사(회장단)
최원길 김양길	박필수	최낙철* 김성인*	방선욱	최홍균(2000)
김갑동 조봉준**	임병규	정수일* 고일석*	안병학	김성균(2000)
김진동 제시카리	김기석	최영훈* 이동익*	이문열	이경해(2000)
김금련 이강필	김한수	한석훈* 노명호	(이사장)	김명기(2000)
이의인** (김철주)	신상철	박경수* 박경원	박대위	함성기(2000)
	이지훈	김기자 진동호	(부이사장)	김연숙(2000)
	김영하	정석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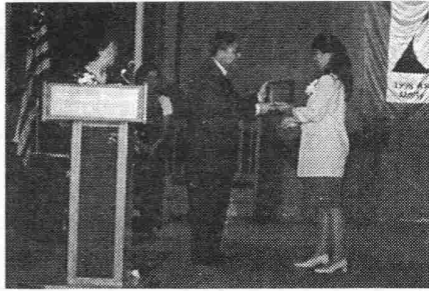
- 이름 뒤에 \*표: 96년도 신입 감사 또는 신입 분과위원장으로 임기는 2000년임(단, 김성인위원장은 97년도 신입으로 2001년).
- 이름 뒤에 \*\*표: 98년도 신입 분과위원장으로 임기는 2002년임.
- 지역간사 임기: 2000년 - 채도경 2001년 - 한윤영, 오수택
- 위촉되신 고문의 임기 연한은 없음.

제8차 정기 총회에서 선출 및 승인된 신입 정부회장 및 이사, 사임 이사 등

- ① 정부회장 선출: 회장 최홍균, 부회장 김성균, 부회장 이경해
- ② 신입 이사 선출: 최원길, 은기철, 김진동, 김금련, 김갑동 목사(고문 위촉)
- ③ 임기 만료후 재선출 이사: 김양길(전임회장, 고문 위촉 예정), 조봉준(전임부회장), 제시카리, 이강필
- ④ 사임 이사: 이현주, 정용훈, 이정현, 윤익중, 김명성, 이천각(간사), 한서동(간사), 이상원(간사)

참고: 이사회 결정으로 총회 보고 사항

- ① 신입 회장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임원: 사무총장 김명기(유임), 재무 함성기, 대변인 김연숙
- ② 사임, 퇴임 고문: 김일평, 김철, 전중현, 전주서
- ③ 이사회 선출 신입, 퇴임 위원장: 조봉준(신임), 정석호(퇴임), 이의인(신임), 김명기(퇴임), 임병규(신임), 이동익(신임), 김성균(퇴임)



「1998년도 개인 지역사회 봉사상」을 수상하는 시민협회 김문소 고문(전임 이사장)

지난 5월 2일(토), 웨라톤 보스톤 호텔에 서 Asian American Unity Dinner (AAUD)의 제12차 연례 대회(Gala)가 「다양한 얼굴, 하나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날의 행사에서는 개회 선언자, 사회자, 주제 연사가 모두 한인이었고, 더우기 김문소 고문(전임 이사장)이 영예의 「1998년도 개인 지역사회 봉사상」을 수상하였으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Grant를 수여 받은, 한인의 위상이 한껏 떨쳐진 자랑스러운 대회였다.

디너 파티의 형식을 취한 이 대회는, 동양계 미국인들간의 협력을 촉진하며 단합된 힘으로 동양계 미국인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써, 해마다 동양계 유명 인사는 물론 MA주의 고위 정치인들까지, 거의 1,000여명이 참석하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동양계 행사로서는 최대의 조직적인 정례 이벤트이다. 원래 이 행사는 보스톤 지역에서 소수 민족

으로서는 최대의 조직력과 정치력을 자랑하는 중국계 미국인들이 주체가 되어 발족했으나 동양계 전체를 포용하면서 해마다 규모를 더하고 있다.

95년의 행사에서는 최초의 동양계 미스매사추세츠였던 한인인 샤론 리양이 개회 인사를 했었고, 92년 포춘지에 성공한 5대 소수민족 사업가로 선정되었던 시민협회의 김기자이사가 주제 연사로서 강연을 했었다. 그 해를 기점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시민협회는, 96년에 김기자 이사가 「지역사회 봉사상」을 수상하였으며, 97년에는 최홍균 부회장이 AAUD의 부회장으로 선출됨과 동시에, 시민협회의 "시민권취득 종합안내서" 발간 프로젝트가 2,000달러의 Grant를 수여받게 되었다. 이 Grant는 이 지역 한인 역사상 한인 사회를 위한 프로젝트에 외부의 지원을 최초로 받은 쾌거로 기록되고 있다.

올해의 행사에는 보스톤 총영사관을 위시해서 한인회, 시민협회,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등 40여명의 한인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올해는 특히 지난 해의 공로가 높게 평가되어 당당히 AAUD의 공동의장(Co-Chair)으로 선출된 시민협회 최홍균 부회장이, 이 대회 개최의 주역으로서 최

초로 단상에 올라 개회 선언을 하였다. 또한 이날의 사회자 (Mistress of Ceremony)는 TV 채널7의 모닝 앵커인 한인 크리스티 김양이었다. 메니노 보스톤 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아시안 커뮤니티가 수여하는 올해의 가장 영광스러운 상인 「1998년도 개인 지역사회 봉사상」의 영예의 수상자로 시민협회의 김문소 고문(전임 이사장)이 호명되어 상패를 수여받았다. 또한 AAUD 기금의 수여 대상으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선정되어 황성미 교장이 2,500달러의 Grant를 수여받았다. 디너가 서브되는 휴식 시간 중에는 중국계와 일본계의 공연에 이어 하버드 대학교 한인 학생들의 흥겨운 사물놀이 공연이 있었으며, 이어 주제 연사(Keynote Speaker)로서 현재 MA주 보건부 장관(Commissioner of MA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인 한인 Howard Koh씨가 30여분에 걸쳐 연설을 하였다.



참석한 시민협회 임원들과 AAUD의 공동 의장인 시민협회 최홍균 부회장

### 편집후기

같은 일을 얼마동안 계속 하다보면 숙련공처럼 숙달이 되어 아주 쉬운 일도 있는 반면에, 일 자체가 힘들 경우 힘에 역겨워 지치기도 하고, 또는 결과가 눈에 곧 보이지 않을 경우 아예 포기하고 중단하는 경우도 있게 마련이다. 특히 정치와 관계된 일들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고, 재정이 필요하며, 끈질긴 설득과 장시간의 토론이 필요한 만큼 남 앞에 나서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고 또 이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일들을 어찌다가 맡게 되어 일을 하다보니, 사람을 만나고, 같이 앉아 토론하고, 맡은 일을 감당하며, 한 목표를 향해 서로 힘을 모으는 일에는 아주 숙달이 되었다. 바쁜 미국에서의 삶 속에 귀찮고 누구나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한국에서처럼 권력이나 재력을 주무르기 위한 정치 운동이 아니라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된 우리 한국인들의 권익을 찾는 선의의 봉사이기 때문에, 김양길 전회장님과 최홍균 신임회장님은 물론 최근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이문열 이사장님이나 기타 여러 이사님들도 즐거이 이사회 때나 혹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참석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또 밤 늦도록 봉사하는 것이리라.

시민협회가 발족한 후 세번째 맞는 선거가 있는 해인만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소리를 들리게 할 수 있는 때이므로, 모든 한인이 한분도 빠짐없이 선거에 참여하여 뉴잉글랜드 지역에 우리 한인들의 뭉친 힘을 과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에 「한국 사람들은 이기주의자」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더 많은 회원이 가입하여 큰소리를 발하는 협회가 되어 우리 한인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벌써 여덟번째를 맞는 이번 회지도 3,000부가 인쇄되어 한인 사회에 배포될 것인데, 이를 만들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원고로, 광고로, 타자로, 제작으로 혹은 인쇄로 같이 힘쓴 모든 이들, 특히 김명기 사무총장의 수고가 그대로 열매 맺게 되기를 두손 모아 빈다. (이의인)

<b>간판</b>		성요한 감리교회	(781)275-7880	케비어	(617)426-1997
초이스간판	(781)229-1888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628-9526	Avenue-X	(617)666-2901
<b>건축설계</b>		스프링필드 제일교회	(413)783-6636	H <sub>2</sub> O	(617)562-8100
부라더 종합건축	(617)593-2355	스프링필드 한인장로교회	(413)798-4522	Club Saga	(617)776-8676
선아건축	(508)584-9703	시온교회	(413)772-6926	<b>당구장</b>	
윌덕수 건축설계사무소	(617)731-1102	안디옥교회	(508)534-3394	초이스 당구장	(617)254-3944
이갑제 건축	(978)688-1922	애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649-0604	Yess 당구장	(617)424-6326
이동익 설계사무소	(978)470-1793	영광 순복음교회	(978)658-0150	<b>떡집</b>	
장스 건축	(401)274-6088	우스터교회	(508)799-4488	형제떡집	(978)975-3303
지선 디자인	(617)325-5076	윌담한인교회	(781)893-0128	<b>동창회</b>	
크리스탈 윈도우	(781)961-7300	케임브리지 연합장로교회	(617)861-3877	건국대학교 동창회	(401)738-8735
K&J Service	(781)431-9541	케임브리지 제일교회	(508)584-1680	서울대학교 동창회	(781)899-5009
<b>개업의</b>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617)491-1474	서울신학대학교 동창회	(617)489-8855
고 피부과	(617)726-2000	퀸지영성장로교회	(617)770-2755	양정고등학교 동창회	(781)431-8766
박종곤 성형외과	(508)879-7575	하바드 한인교회	(617)286-2534	중앙대학교 동창회	(978)897-6864
송남수 정신과	(781)762-6592	한인성서침례교회	(508)263-8459	<b>변호사</b>	
오원환 정형외과	(617)322-1725	(뉴햄프셔주)		김성군	(617)482-1300
장경후 소아과	(508)687-2119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김성희	(617)889-0093
Grace Kim 가정전문의	(508)475-5656	내슈아한마음장로교회	(603)888-8040	박요한	(617)661-3222
<b>기관·단체</b>		뉴버드 연합감리교회	(603)433-7475	한석훈	(781)935-4620
뉴잉글랜드 경제인협회	(781)237-1068	뉴햄프셔 반석감리교회	(603)421-9100	Joy Lee	(617)624-0292
뉴잉글랜드 골프협회	(978)685-4914	뉴햄프셔 장로교회	(603)437-5134	Young Lee Danish	(617)367-4949
뉴잉글랜드 공군보라매	(781)729-8891	뉴햄프셔 한인교회	(603)626-9861	<b>병원</b>	
뉴잉글랜드 과학자협회	(978)442-0531	레바논 한인장로교회	(781)648-9380	김문소 동물병원	(508)851-3626
뉴잉글랜드 교역자협의회	(617)661-7532	맨체스터 장로교회	(603)625-0500	종합건강관리센터	(603)424-5615
뉴잉글랜드 교회협의회	(603)430-2929	새싹연합감리교회	(603)742-3046	한국의료원	(781)388-4158
뉴잉글랜드 노인회	(617)734-7198	셀렘반석교회	(603)898-4176	<b>보석</b>	
뉴잉글랜드 세탁인협회	(781)648-4783	한국사망교회	(603)634-0055	국제보석	(617)523-2553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978)691-5108	한마음 장로교회	(508)649-4177	보스톤 보석	(617)723-7979
뉴잉글랜드 의사협회	(508)456-3315	Asbury U.M.C.	(603)363-4451	우리보석	(617)338-2799
뉴잉글랜드 이북5도민회	(617)484-2831	Dummer U.M.C.	(603)449-2026	<b>보험</b>	
뉴잉글랜드 청년회	(508)587-5240	(로드아일랜드주)		고영 (MetLife)	(978)683-9493
뉴잉글랜드 태권도협회	(781)575-1777	로드아일랜드삼동감리교회	(401)351-2347	조종운 종합보험	(781)255-1134
뉴잉글랜드 평화통일협회	(978)474-4780	로드아일랜드 제일교회	(401)944-0520	한인 종합보험	(617)734-7998
뉴잉글랜드 학교협의회	(617)232-1708	로드아일랜드 중앙교회	(401)739-7168	<b>부동산</b>	
뉴잉글랜드 한인회	(508)473-8310	시온 감리교회	(401)467-4720	이경해 (Lee Associates)	(800)867-9000
뉴잉글랜드 해병전우회	(781)662-5350	(메인주)		이정선	(617)933-0909
뉴햄프셔 한인회	(603)622-8883	메인 한인교회	(207)774-1617	이재신	(617)236-0960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453-2075	People U.M. Church	(508)465-5145	이중수	(781)431-2423
메인 한인회	(207)772-0006	(커네티컷주)		지형민 Century 21	(781)647-5168
보스톤 새생활센터	(781)279-3270	갈보리 한인교회	(203)587-3677	최선희	(617)655-9277
보스톤 체육회	(617)395-3524	뉴런던한인연합감리교회	(860)848-7228	Ann Kim	(617)864-4430
보스톤 한국 총영사관	(617)348-3660	뉴타운 연합감리교회	(203)426-9998	IBR 부동산	(617)665-9277
신용조합 추진위원회	(603)434-8399	뉴헤이븐한인연합감리교회	(203)498-9675	<b>불교</b>	
<b>기독교</b>		뉴헤이븐 한인교회	(203)287-0110	문수사	(617)224-0520
갈보리교회	(413)789-9888	대리엔 한인장로교회	(203)655-9192	미국불교	(617)787-1506
뉴잉글랜드 성결교회	(781)438-2587	스탠포드한인교회	(203)322-3009	서운사	(508)529-3224
뉴잉글랜드 한인교회	(781)438-9829	웨데스필드 연합감리교회	(860)529-2025	<b>비디오·사진</b>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제시리 연합감리교회	(203)438-8791	까치 비디오	(617)782-8874
보스톤 감리교회	(617)629-2322	커네티컷 한인선교교회	(203)845-0754	비디오 사진촬영	(617)739-1070
보스톤 늘푸른교회	(617)721-9136	커네티컷 한인교회	(203)497-9744	진 비디오	(617)782-9282
보스톤 사랑의 교회	(781)661-7532	켄싱턴 연합감리교회	(860)828-4226	<b>산부인과</b>	
보스톤 산성장로교회	(617)926-7195	토티톤 한인교회	(860)596-0149	강길원 산부인과	(978)957-4660
보스톤 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하트포드 제일한인교회	(860)645-1416	김일 산부인과	(508)879-0098
보스톤 소망교회	(781)647-0190	하트포드 한인장로교회	(860)643-0537	이운로 산부인과	(508)580-0044
보스톤 시온성교회	(781)251-0164	하트포드 한인교회	(860)953-0141	<b>상담소</b>	
보스톤 예수재림교회	(781)279-9049	헤어필드 한인교회	(203)459-8756	임나경 상담소	(617)738-9622
보스톤 장로교회	(508)478-9705	<b>내과</b>		<b>생선가게</b>	
보스톤 중앙교회	(617)731-4381	전진학 내과	(617)647-1237	동해 횃집	(617)776-8857
보스톤 한인감리교회	(617)254-5746	정태진 내과	(617)642-8137	Captain Boston Fish	(781)395-8138
보스톤 한인교회	(617)469-4289	<b>냉난방·배관</b>		JP Seafood Cafe	(617)983-5177
북부보스톤 연합감리교회	(978)470-0621	P.S.I.	(617)547-0211	Sea to You	(617)261-9921
새생명교회	(617)787-1868	<b>노래방·카페</b>		<b>선물용품</b>	
새소망교회	(617)784-9127	도래미 노래방	(617)783-8900	소라 화장품	(617)566-5106
성광장로교회	(978)486-3135	진 노래방	(617)782-9282	선물가게	(617)927-4433

Allston 귀국용품	(617)787-1667	Alpha & Omega	(617)427-3044	<b>주류</b>	그린소주	(617)445-9304
<b>식당</b>		Edwin Case	(617)277-6577	진로소주	(508)651-8186	
가든하우스	(978)691-5448	<b>안과</b>		카스맥주	(781)758-7501	
가야식당	(617)236-5858	글로리아 우 안과	(617)734-0605	<b>지압·단전</b>		
가화	(617)782-7911	김철 안과	(617)322-1725	단센터	(781)647-7733	
고려원	(617)492-9643	<b>안경</b>		대한태권무예원	(617)868-5045	
고향식당 <i>Cherry House</i>	(617)623-7220	국제 안경원	(617)776-6300	한국지압원	(617)278-0275	
나라식당	(617)338-5935	<b>언론기관</b>		<b>천주교</b>		
나리파	(617)868-2226	아시아 저널	(781)938-1166	뉴햄프셔 한인 천주교회	(603)893-8779	
뉴가야	(617)497-5656	보스톤 투데이	(781)599-2799	보스톤 한인 천주교회	(617)244-9685	
뉴장수갈비	(781)272-3787	한국일보 보스톤지국	(617)713-0010	섬미카엘 천주교회	(203)869-5421	
다빈	(781)860-0171	<b>여행사</b>		커네티컷 한인천주교회	(203)937-6371	
대화 알식집	(617)566-7344	대한항공	(617)261-3883	한인 천주교회	(617)244-0520	
리틀 부산	(508)897-5107	동미여행사	(617)423-1151	<b>치과</b>		
물레방아	(617)423-3848	범아여행사	(617)482-6237	김영호 치과	(617)894-1127	
미나토 스시	(617)731-6700	오리엔트여행사	(617)536-8888	송백종 치과	(617)264-9966	
미스타 스시	(617)731-1122	유니버스여행사	(617)232-1708	신영복 치과	(617)265-5606	
민속식당	(617)783-8702	코리아여행사	(617)267-7777	안태준 치과	(781)647-8000	
보고카페	(617)776-8857	하녀여행사	(800)368-6977	오 치과	(617)924-6452	
사라식당	(603)624-0770	<b>운송·이사</b>		윤경숙 치과	(617)492-8210	
서울식당	(617)244-6483	국제해운	(781)935-5903	찰스 허 치과	(781)861-8978	
송옥식당	(617)491-5091	범양해운	(978)470-8809	한은애 교정치과	(781)862-0930	
신라식당	(617)547-7971	보고운송	(978)772-6629	Cambridge Dental	(617)776-5900	
신미	(617)247-2111	보스톤운송	(617)984-2624	Dental Associates	(617)471-8161	
신토불이	(617)437-0152	보스톤 종합운송	(617)284-7789	<b>컴퓨터</b>		
쌍둥이 레스토랑	(508)798-2547	보스톤 한국이사집	(617)783-1233	내셔널 컴퓨터	(617)847-0045	
수라 레스토랑	(401)277-9088	E-Z Moving	(617)560-5851	Micro Dimensions	(617)320-1969	
아리랑하우스	(617)526-1277	<b>용자</b>		Notebook Plus	(617)267-8439	
아시아나 그릴	(781)646-2766	이경해 용자	(800)867-9000	<b>태권도</b>		
영빈 가든	(617)367-8360	이종수 용자	(781)431-2423	김영곤	(978)688-1037	
요코하마	(781)689-4047	지형민 Century 21	(781)647-5168	박선우 태권도장	(603)433-2099	
우정식당	(978)772-5742	<b>이·미용원</b>		Alpha TKD Academy	(978)256-4904	
우촌집	(617)623-3313	기녀미용실	(781)593-4292	Ans TKD	(978)453-5387	
제이스 카페	(617)421-9405	김씨네 머리방	(617)739-1067	Central Institute of TKD	(617)776-6161	
카페 서울	(617)232-0133	새빛미용실	(617)734-7309	Cho Olympic TKD	(617)630-5137	
카페 제이드	(617)254-4944	인터내셔널 헤어디자인	(781)861-1277	Cho TKD Academy	(781)235-3037	
칼라분식	(617)787-5656	한국이발관	(617)278-0275	Choe TKD Academy	(508)852-0009	
코리아나	(617)576-8661	한인이발관	(617)783-3213	Choi TKD Academy	(413)736-1008	
하나스시	(617)868-2121	헤어스튜디오	(617)354-9255	Jae Jo TKD	(508)820-1618	
한강 카페	(617)739-6221	헤어포트미용실	(617)523-5353	Jae Kim TKD	(617)266-5050	
한국의 집	(617)783-7030	Larson Design	(508)634-8954	Kwon TKD Academy	(978)858-3699	
한미옥	(617)783-2090	<b>인쇄소</b>		Lee TKD College	(781)575-1777	
형제식당	(603)622-9377	에이스엑스프레스 인쇄소	(781)593-2355	Park's TKD Academy	(978)345-3007	
<b>식품점</b>		큰나무 인쇄소	(508)754-1608	World TKD Academy	(781)942-2299	
농장식품	(617)232-0800	<b>자동차 매매</b>		<b>택시</b>		
뉴욕식품	(617)868-9850	서울자동차	(617)661-1994	보스톤 콜택시	(617)783-1234	
롯데식품	(617)661-1194	Brighton Auto	(617)787-6229	한국관광 콜택시	(508)475-4000	
미립식품	(617)783-2626	Herb Connolly	(508)820-9313	<b>한복점</b>		
번영식품	(978)537-8180	Mirak Hyundai	(617)641-0030	은혜 한복 양품	(978)772-3799	
서울동양식품	(603)626-1334	Tom Hyundai	(800)441-4150	잠미 수예 한복	(718)359-0430	
신신식품	(978)686-0813	<b>자동차 정비·바디</b>		<b>한의원</b>		
쌍둥이네식품	(508)798-2547	박석만 Auto Body	(978)686-9546	광개토 한의원	(617)661-1961	
아시아나식품	(401)438-9992	서울자동차 정비	(617)661-1994	동양 한방원	(617)737-6100	
오미식품	(413)736-7878	태양자동차 정비	(617)628-1589	동일 한의원	(781)289-3694	
우리식품점	(978)772-1772	Car World	(781)374-9593	일선당 한약방	(617)734-6100	
은혜식품	(603)893-8511	Complete Car Care	(508)858-0074	<b>회원</b>		
전동양마켓	(603)226-4546	Foreign Motor West	(508)237-1212	모나미화원	(617)629-7800	
제일식품	(413)592-5452	Sooner Lube	(508)858-0070	와일드플라워 꽃집	(508)668-6263	
진미식품	(617)964-2668	<b>전자제품</b>		<b>회계사</b>		
청계종합식품	(978)772-5213	Allston TV	(617)787-1667	김양일	(617)491-4959	
한국식품	(617)623-9620	C.J. Page One	(617)427-3600	김창근	(781)935-4620	
한아름식품	(617)547-8723	Lee전자제품수리	(781)648-2430	이현주	(781)944-2442	
한농동양야채	(978)772-7036	TV, VCR 각종전자	(508)535-5874	현인복	(617)254-1226	
한호동양식품	(603)893-8559	<b>제과</b>				
<b>신발</b>		서울제과점	(617)787-6500			

# New Patients Welcome!

CHARLES C. HUR D.M.D.  
 SKIP WETHERBEE D.M.D.  
 SHERRY YU D.M.D.  
 JOSEPH LEE D.M.D.  
 MAE OLIGARIO D.M.D.  
 ARTHUR BALIAN D.M.D.  
 DONG WOO PARK D.M.D.  
 RAFFI BAGDASSARIAN D.M.D.

PIERRE DOCHE D.M.D.  
 JACK DORKHOM D.M.D.  
 STEVEN SILVERBERG D.D.S.  
 ROMAN MANGAPIT D.M.D.  
 NORMA COLETTA D.M.D.  
 EDDY OLIGARIO D.M.D.  
 KERRY WU D.M.D.  
 HENRY KIM D.M.D.



◆ LASER SURGERY & AIR ABRASION  
 ◆ IMPLANTS ◆ COSMETIC DENTISTRY

**Lexington Family Dental**  
 394 Lowell St. Suite 3  
 Lexington, MA 02173  
**(781) 861-8978**

**Boston Dental Group**  
 79 Middle St.  
 Concord, MA 01742  
**(508) 369-0254**

**Omni Dentix**  
 172 N. Dartmouth Mall  
 N. Dartmouth, MA 02747  
**(508) 996-3360**

**Boston Dental Group**  
 148 Linden St.  
 Wellesley, MA 02482  
**(781) 431-7295**

**Boston Dental Group**  
 550 Arsenal St.  
 Watertown, MA 02472  
**(617) 926-9655**

**Boston Dental Group**  
 45 Storey Ave.  
 Newburyport, MA 01950  
**(978) 499-9708**

작은 소리도-

## 크게 들겠습니다!

한인회의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한인회의 귀는 늘 듣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에 지치고 힘들 때,  
 문을 열고 들어와 말하십시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뉴잉글랜드 한인회

The Korean Society of New England, Inc.

1613 Beacon St., Brookline, MA 02146

**Tel. (617) 264-7326**

**Fax. (617) 264-9632**



제31대 한인회장

**이 병 철**



#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 입회 원서 (Membership Application)

Renewal(갱신 또는 년 회비 납부)( ) New(신규)( )

성명 : (한글)\_\_\_\_\_ (영문)\_\_\_\_\_ 영주권자 ( )  
직장 전화: ( )\_\_\_\_\_ 정당:Independent( ) Republican( ) Democratic( ) 시민권자 ( )

성명 : (한글)\_\_\_\_\_ (영문)\_\_\_\_\_ 영주권자 ( )  
직장 전화: ( )\_\_\_\_\_ 정당:Independent( ) Republican( ) Democratic( ) 시민권자 ( )

주소 : \_\_\_\_\_  
(City)\_\_\_\_\_ (State)\_\_\_\_\_ (Zip)\_\_\_\_\_  
(County)\_\_\_\_\_ 집 전화:( )\_\_\_\_\_

소속 교회 혹은 기관 : \_\_\_\_\_

위 본인은 협회 헌장에 명시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19 년 월 일

서명\_\_\_\_\_ 서명\_\_\_\_\_

###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회장 귀하

년회비 (Membership Yearly Dues) :1인당 \$10.- \$\_\_\_\_\_  
이사회비(Officers Yearly Dues) :1인당 \$100.-이상 \$\_\_\_\_\_  
찬조비 (Other Contribution) : \$\_\_\_\_\_ 총계 (Total):\$\_\_\_\_\_(수표 동봉)  
수표 작성, Payable to : KACL

Mailing Address :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  
c/o Steve Ham (재무 함성기, Tel. 978-538-9511)  
146C Shore Dr., Peabody, MA 01960

### 알리는 말씀

시민협회는 정부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나 위원회의 자리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인들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자격이 있는 분들의 명단을 미리 갖추려고 하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주소로 영문이력서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Mailing Address :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  
c/o Hong Kyun Choi, Ph.D. (회장 최홍균, Tel. 978-369-0351)  
11 Bartkus Farm Rd., Concord, MA 01742

**시민협회 핫라인** 24시간 문의 및 연락 가능: Michael M. Kim (사무총장 김명기), Tel. 603-659-6732

#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 입회 원서 (Membership Application)

Renewal(갱신 또는 년 회비 납부)( ) New(신규)( )

성명 : (한글)\_\_\_\_\_ (영문)\_\_\_\_\_ 영주권자 ( )  
직장 전화: ( )\_\_\_\_\_ 정당:Independent( ) Republican( ) Democratic( ) 시민권자 ( )

성명 : (한글)\_\_\_\_\_ (영문)\_\_\_\_\_ 영주권자 ( )  
직장 전화: ( )\_\_\_\_\_ 정당:Independent( ) Republican( ) Democratic( ) 시민권자 ( )

주소 : \_\_\_\_\_  
(City)\_\_\_\_\_ (State)\_\_\_\_\_ (Zip)\_\_\_\_\_  
(County)\_\_\_\_\_ 집 전화:( )\_\_\_\_\_

소속 교회 혹은 기관 : \_\_\_\_\_

위 본인은 협회 헌장에 명시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19 년 월 일

서명\_\_\_\_\_ 서명\_\_\_\_\_

###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회장 귀하

년회비 (Membership Yearly Dues) :1인당 \$10.- \$\_\_\_\_\_  
이사회비(Officers Yearly Dues) :1인당 \$100.-이상 \$\_\_\_\_\_  
찬조비 (Other Contribution) : \$\_\_\_\_\_ 총계 (Total):\$\_\_\_\_\_(수표 동봉)  
수표 작성, Payable to : KACL

Mailing Address :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  
c/o Steve Ham (재무 함성기, Tel. 978-538-9511)  
146C Shore Dr., Peabody, MA 0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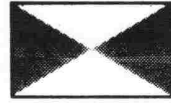
### 알리는 말씀

시민협회는 정부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나 위원회의 자리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인들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자격이 있는 분들의 명단을 미리 갖추려고 하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주소로 영문이력서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Mailing Address :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  
c/o Hong Kyun Choi, Ph.D. (회장 최홍균, Tel. 978-369-0351)  
11 Bartkus Farm Rd., Concord, MA 01742

**시민협회 핫라인** 24시간 문의 및 연락 가능: Michael M. Kim (사무총장 김명기), Tel. 603-659-6732

# 한국일보 보스톤 지국



보스톤 한국일보

한국일보의 문은 여러분들을 위해  
1년 365일, 항상 열려 있습니다.

Tel:(617) 713-0010 Fax:(617) 739-0464  
1140 Commonwealth Ave. #B, Boston, MA 02134

지국장 조성구

## 와싱턴 - 보스톤 투데이 Washington Today in Boston

뉴잉글랜드 교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신문

1990 - 1998  
시민협회의 창립 8주년을 축하합니다.

Tel:(781) 599-2799 Fax:(781) 599-2872  
24 Market Square, Lynn, MA 01905  
보스톤 투데이 지사장 서효원



**TEWKSBURY ANIMAL HOSPITAL**

1098 MAIN ST. TEWKSBURY, MASS. 01876  
TEL: (978) 851-3626 / FAX (978) 851-6408

HOURS: MON. TUE. THURS.  
9-12 NOON 4-7 P.M.  
FRI. 9-12 NOON 4-6 P.M.  
SAT. 9-12 NOON ONLY

**김문소**

**DR. MOON S. KIM  
& ASSOCIATES**

WE ♥ REFERRALS

**임나경 상담소**

**Nakyung Im**

**LICSW, ACSW, BCD  
Licensed Psychotherapist**

308A Harvard St.  
Brookline, MA 02146  
Phone: (617)738-9622  
Fax: (617)739-9035

110 W. Squantum St. Ste 20  
N. Quincy, MA 02171  
Phone: (617)472-5428  
Fax: (617)847-4450

**IMPORT/EXPORT**



**Michael M. Kim (김명기)**  
President

2 Lamprey Lane  
Lee, NH 03824-6552 U.S.A.  
Tel. (603)659-4845, 6732, 6129  
Fax. (603)659-5488  
e-mail HNEKorea@aol.com



**Continental  
Maintenance  
of New England  
Inc.**

**Paul S. Chang**  
Vice President

The Schrafft Center  
529 Main Street • Box #3  
Boston, MA 02129

**Tel. (800) 884-9000  
Fax. (617) 248-5826  
Pager (617) 486-9606**

Office Hours By Appointment

**신영목 치과**



**FRANK Y. SHIN, D.M.D.**

1428 Dorchester Avenue  
Boston, Massachusetts 02122

**Telephone: (617) 265-5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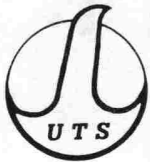
**이운로 산부인과**

**Uhun R. Lee, M.D.**

**Practice in Obstetrics & Gynecology**

Telephone  
580-0044

45 Pearl Street  
Brockton, MA 02401



**유니버스 여행사**  
Universe Travel Services

Office  
Tel: (617) 232-1708, 733-3709  
Fax: (617) 738-8833  
171 Amory St., Brookline, MA 02146

**최한길**  
Han-Kil Choi

Home  
Tel: (978) 988-7660  
Fax: (978) 988-0661  
E-mail : utsboston.com

**K. David Kang, M.D., FACOG**

**Obstetrician and Gynecologist**

**강길원 산부인과**

**Tel.: (978) 957-4660  
505 Nashua Road, Dracut, MA 01826**

## (주) 보스톤 한국 콜택시

- ▲ 시내, 공항 픽업
- ▲ 동부 지역 관광 (단체, 개인)
- ▲ 운전면허 (차량국 업무 일체)
- ▲ 유학업무 (우수대학 입학, 전통 명문 중고등학교 입학 수속 대행 및 각종 서류 번역)
- ▲ 뉴욕 및 타주 대절
- ▲ 이삿짐 (시내 및 타주) 전문
- ▲ 종합 서비스 업체



영업시간: 오전12시-새벽1시  
(영업외 시간은 사전 예약 요망)

Tel: (617) 783-1234

Fax: (617)783-1779 Pager: (617)766-0203/4



월-토: 9 am - 8 pm

181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시민협회의 발전을 기원하오며, 회지 8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오수택      이우조  
한윤영      이문봉

ASIAN

# JOURNAL

시민협회 창립 8주년을 축하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 ASIAN JOURNAL 직원 일동 -

29B Montvale Ave. Fl.  
Woburn, MA 01801

Tel:(781) 938-1166 Fax:(781) 938-6565

# 뉴잉글랜드 경제인 협회

1842 Beacon St. Suite 201, Brookline, MA 02146

Tel.:(617) 734-7998

회장: 김병규 (781) 237-1068

이사장: 서해수

부이사장: 김성군 (617) 482-1300

고문: 인준식, 김 섭, 김수환, 오수택, 정수일, 한운영, 안병학

부회장: 박수균

사무총장: 김선휘

재무: 박인성

서기: 이흥열

전산편찬: 허영준

자료관리: 김대율

보건복지: 전병렬

체육: 서대선

이사: 광중원, 김봉근, 김영기, 김옥식, 김유상, 김창현, 백윤기  
이경해, 채원길, 한선우, 양철우, 김성환, 신종철, 채영민

**시민협회의 창립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90 - 1998 창립 8주년

## 재미 한국 과학 기술자협회 뉴잉글랜드 지부

The Korean American Scientist & Engineers Association (KSEA)  
New England Chapter 1998-1999 (27th Term)

5 Dewey Rd., Lexington, MA 02173 Tel.:(781) 862-0512

kseane@kseane.org <http://www.kseane.org>

회장: 신상철

차기 회장: 오순신

총무: 곽세홍

섭외: 김동우

전기/전자: 김동환

재무: 심재철

조직: 장학종

생명과학: 김혜정

편집: 이익환

산업: 백흥기

학생(대학원): 이석원

화학: 최인성

학생(대학생): Enid Choi

고문: 김 영, 이강원, 이충시, 김정선, 이재홍, 이익인, 조차희  
강경식, 김용구, 이 종

감사: 오세경, 변창윤

**시민협회의 발전과 회지 7호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 민주 평화 통일 자문 위원회 보스톤 (뉴잉글랜드) 지역 협의회

The Advisory Council on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Boston (New England) Area Council (8th Term)

101 Lovejoy Rd., Andover, MA 01810

Tel.:(978) 474-4780 Fax.:(978) 474-6447

보스톤 지역 협의회 회장: 남궁연

위원: 강경식, 고일석, 김성인, 김수환, 김양길, 김인수  
김정완, 김창덕, 신고희, 안창수, 이문봉, 이의철  
이천각, 정세련, 정수일, 조남규, 조봉준, 채도경  
최승훈, 최홍균, 한윤영, 홍성도

## 뉴잉글랜드 한인회

Korean Society of New England, Inc.

4 Whispring Pine, Milford, MA 01757

Tel.:(508) 473-8310

시민협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정기총회를 축하합니다

회장 서 규 택  
임원 및 회원 일동

## 뉴잉글랜드 노인회

6 Edwin St., Brookline, MA 02146

Tel.:(617) 734-7198

시민협회의 제8회 정기 총회와 회지 8호의  
발간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회장 백 린  
임원 및 회원 일동



# 뉴잉글랜드 지구 서울대학교 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New England  
41 Laxfield Rd., Weston, MA 02493  
Tel: (781) 899-5009 Fax: (781) 899-4675

회장/이사장: 박경민

총무간사: 권이덕

재무간사: 김성열

기획간사: 김문소

섭외간사: 최영훈

홍보출판: 이의인

체육간사: 온기철

학생간사: 남윤석

교문: 김영호 박병덕

감사: 김재호 김호영

이사: 강경식	강길원	고일석	김동희	김선혁	김은한	김정선
김종성	김청하	도운희	박영철	박태영	성낙호	신정수
옥인걸	윤광현	윤상래	윤선홍	윤용훈	윤은상	윤충남
이이순	이재신	이향숙	이희규	인준식	장세중	정정욱
채용석	최찬혁	최홍균	한서동			

시민협회의 제8차 정기 총회를 축하합니다.

# 뉴잉글랜드 한인 드라이클리너 협회

New England Korean Dry Cleaners Association

1370 Mass Ave., Arlington, MA 02476 Tel.:(781) 648-4783

회장:	노명호	(781) 648-4783
부회장:	윤익중	(978) 689-3122
부회장:	김경무	(617) 254-9576
이사장:	이문봉	(508) 485-9077
사무총장:	이태경	(508) 485-5592
재무, 서기:	최동인	(781) 942-1575



시민협회의 회지 발간과  
정기총회를 축하합니다  
임원 및 회원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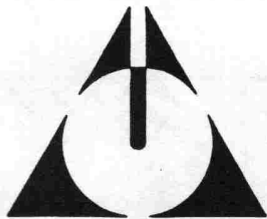
# 뉴잉글랜드 태권도 협회

The New England Taekwondo Association

1020 Turn Pike St. #3B, Canton, MA 02021  
Tel.:(781) 575-1777

회장: 이강원 (781) 575-1777  
이사장: 신고희 (978) 685-4177

시민협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8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임원 및 회원 일동



## Asian American Unity Dinner

Thank you for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in the Asian American Unity Dinner.  
We invite you again to next year's Dinner Gala.

Place : Boston Park Plaza Hotel  
4 Arlington St., Boston, MA 02116

Time : May 7, 1999 (Friday)  
6:00-7:00 Reception  
7:00-9:00 Dinner  
9:00-12:00 Dance

Co-Chairs : Hong Kyun Choi  
Mimi Chiu

**For more information, call (978) 369-0351**

# 서운사

정기법회: 매월 넷째주 일요일 11시  
 참선지도: 매주 일요일 11시

주자: 서광 스님

Sounsa  
 10 North Main Street  
 Upton, MA 01568

전화: (508) 529-3224  
 팩스: (508) 529-4713

e-mail: sunim@worcester.net  
 home page: <http://www.kersur.net/~sounsa>

## 로드 아일랜드 중앙 한인교회

Rhode Island Central Korean Church  
 111 Greenwich Ave., Warwick, RI 02886

교회: (401) 739-7168 팩스: (401) 738-4215 목사관: (401) 885-9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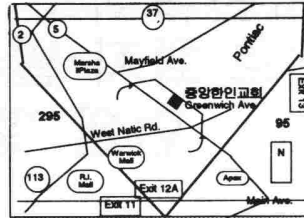
담임목사: 서영주 (Rev. Brian Y. Seo, Pastor)  
 교육목사: 박정환 (Rev. Jason Park, Pastor)  
 교육전도사: 손헬렌 (Sunday School Minister: Mrs. Hellen Son)  
 중, 고등부 전도사: Mr. Julius Kim

말씀으로 배우고 가르치며 2세 교육에 전념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되어 서로 섬기며 배가로 성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 예배 및 성경 공부 안내

예배	성경 공부
주일대 예배: 오후 12:30	주일 새가정반: 오전 11:00
주일학교 예배: 오후 12:30	화요일 성경반: 오전 11:00
중고등부 영어 예배: 오후 12:30	목요일 교리반: 오후 7:00
청년회 예배: 오후 2:00	금요일 Youth: 오후 6:0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7:30	토요일 청년반: 오후 7:00
구역 예배: 매월 마지막주	

###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6:00



주일마다 교회 버스가  
 운행합니다.  
 (차가 없으신 분은 교  
 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스톤 문수사

Mun Su Sa Buddhist Temple

231 Salem Street, Wakefield, MA 01880

Tel. (781) 224-0670, 224-2536

Fax. (781) 224-1087

#### 법회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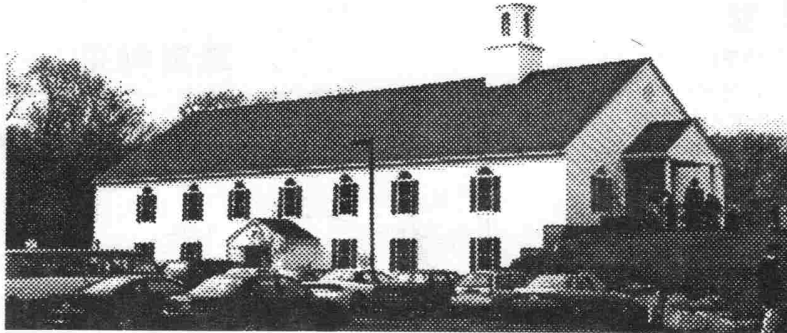
정기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참선법회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어린이 한글학교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Greenland United Methodist Church

87 Great Bay Road, Greenland, NH. 03840  
(603) 430-2929(교회) 430-0040(Fax) 433-7475(목사관)



주일 대예배 10:30 AM    주일 학교 10:30 AM  
수요 기도회 7:00 PM    새벽기도회 6:00 AM  
교역자들: 한상신 김사무엘 김유니스 유흥선

\*495 North나 95 North로 올라 오셔서 95 North의 Toll Gate를 지나 (약 6마일쯤) Exit 3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면 신호등을 만납니다. 신호등에서 왼쪽으로 Turn하셔서 Rte. 33 West로 약 4.5마일 가시면 오른쪽에 Great Bay Road를 만나십니다. Great Bay Road에서 오른쪽으로 Turn하여 들어오시면 왼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 보스톤 장로교회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Greater Boston

보스톤 장로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지 23년째,

역사 깊은 보스톤 세계 마라톤의 출발 지점인 합킨톤 센터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현금으로 구입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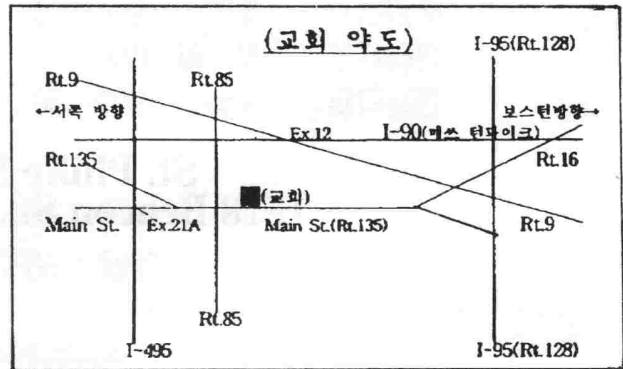
97년 9월 5일 하나님께 예배당을 봉헌하고 보스톤과 뉴잉글랜드를 향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20개 이상의 교실과 체육관을 가지고 있으며, 2세들의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하며 특히 영생의 문제로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 본 교회 집회 안내

- ◆ 매일 새벽 기도회 (오전 5시부터 자유로)
- ◆ 주일 낮예배 (주일 오전 11시)
- ◆ 주일 새벽 기도회 (주일 오전 6시)
- ◆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8시)
- ◆ 유년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시)
- ◆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토요일 오후 6시)
- ◆ 대학, 청년부 (주일 오후 1시, 금요일 오후 7시)
- ◆ 청장년부 (금요일 오후 7시)
- ◆ 구역 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 ◆ 구역 연합 예배 (매 5번째 금요일 오후 8시)
- ◆ 리더 훈련 (토요일 오전 6시)



##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보스톤 장로 교회

2 Main Street, Hopkinton, MA 01748

교회 (508)435-4579, 팩스 435-5467 목사관 (508)478-9705

담임목사: 전덕영    전도사: 김성혜(Grace Kim, 유년부)    박성일(Erick Park, 중고등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 보스톤산성(山城)장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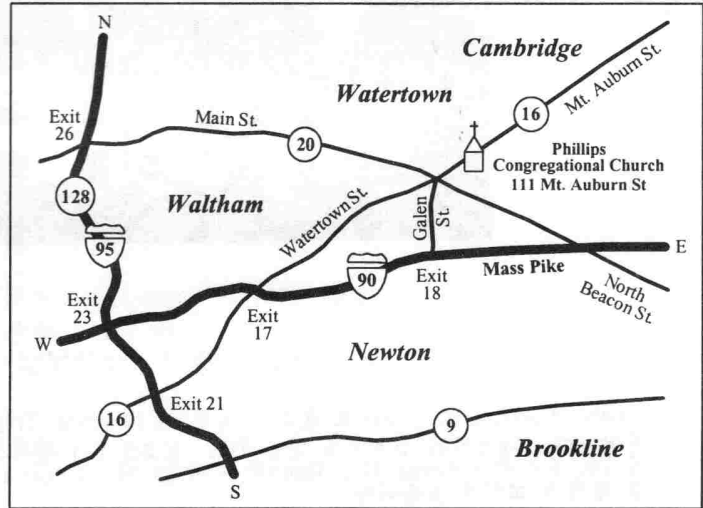
Greater Boston Fortress Korean Presbyterian Church

111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617) 926-2195 (교회, Fax) (617) 325-8703 (사택)

## 담임목사: 주 원 열

협동목사: 방유창 (유년부)  
교육전도사: 손철우 (유학생부)  
Polly Crispell (초등부)  
이수영 (한국학교)

## 교회약도



## 집회안내

주일대예배: 주일 오후 2시  
주일학교: 주일 오후 1시 15분  
주일새벽기도회: 주일 새벽 6시  
주일예배전찬양: 주일 오후 1시 30분  
구역별성경공부: 홀수금요일 저녁  
찬양집회: 짝수금요일 저녁 8시  
한글학교: 주일 오후 3시 30분  
새가족반: 주일 오후 1시 15분  
중고등부: 금요일 저녁 6시  
유학생부: 금요일 저녁 8시

# 보스톤 한인 천주 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Boston

주임신부: 이정추 (바오로)

주일미사: 주일 오후 4:00  
유아세례: 첫주일 미사후  
한글학교: 주일 오후 1:30

목요미사: 목요일 오후 7:30  
예비자교리: 주일 오후 2:30  
주일학교: 주일 오후 2:30

**St. Philip NERI Church**  
**1518 Beacon St., Waban, MA 02168**  
**Tel.: (617) 244-9685**

### <성당 찾아 오시는 방법>

Mass Pike(West)에서 Exit 16(West Newton)으로 나와 Toll Gate를 지나 신호등에서 우회전.  
10분 정도 계속 직진하다가 Beacon St.에서 좌회전 한후,  
5분 정도 더 가면 왼쪽으로 성당이 보임(Church St. 바로 전).  
전철 이용시 녹색 D 라인을 타고 Waban에서 내려 큰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다보면 왼쪽으로 보임.





# 성요한 감리교회

담임목사: 권진태 (781) 275-7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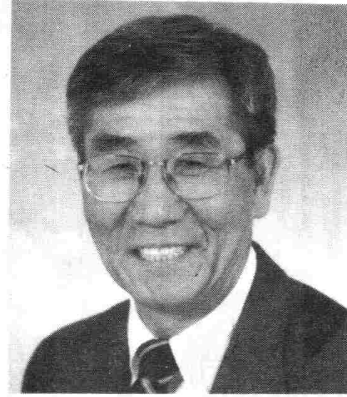
영어예배: Joseph Lee (781) 862-9492

e-mail: [JLee@sjkumc.org](mailto:JLee@sjkumc.org)  
[Grapevinechurch.org](http://Grapevinechurch.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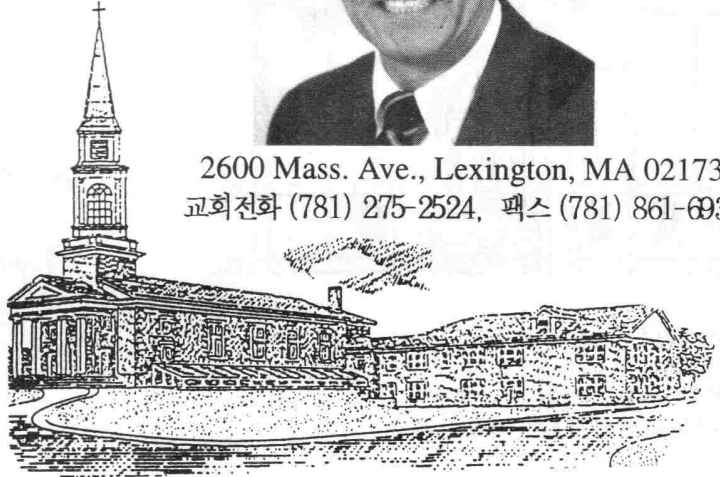
## 교회 모임 안내

주일 1부 예배 (한국어) 일요일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영어) 일요일 오후 1:45 (Lexington)  
 Harvard Square- 일요일 오전 9:30 (Grapevine)  
 수요일 예배 수요일 오후 8:00  
 금요일 철야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새벽 기도회 일요일 새벽 6:00  
 주일학교 일요일 오전 11:30

성경공부 장년부 (한국어) 일요일 오전 10:00  
 금요일 한국어 성경공부 금요일 오후 7:30  
 대학생부 (영어) 금요일 오후 7:30  
 청년부 (영어) 금요일 오후 7:30  
 중고등부 (영어) 토요일 오후 7:00  
 일요일 오전 9:00



2600 Mass. Ave., Lexington, MA 02173  
교회전화 (781) 275-2524, 팩스 (781) 861-6931



# 북부 보스톤 교회

North Bosto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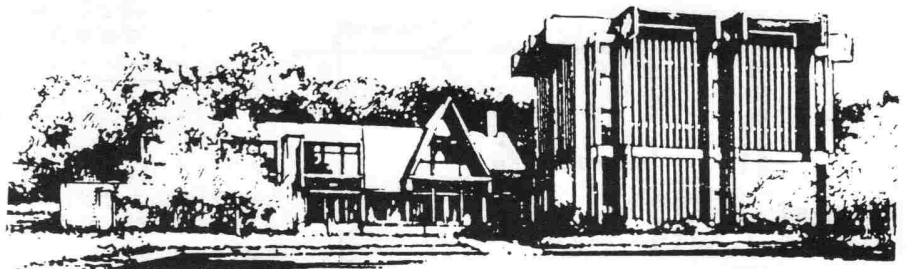
244 Lowell St., Andover, MA 01810

##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1. 새 담임목사: 보스톤대학 사회윤리 철학박사, 한인교회와 미국인교회의 경험을 가지시고 1996년 7월 부임.
2.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바로 찾고, 삶의 변화를 가져와 가정, 교포, 이웃이 달라지는 선구적 역할.
3. 인간의 존엄성 회복: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드높혀지는 보람된 삶을 추구.
4. 다양 속의 창조성: 각기 다른 사회 경험의 풍요한 인적 자원을 가진 교회로서, 다양한 사회 전기(Sociobiography) 안에서의 창조성 표출
5. 이민 사회의 보람과 성취: 이제는 한국인의 우수성을 표하는 건설적인 태도와 실생활 속에서의 구현.
6. 이세 교육에 초전: 장래의 소망인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 대학부의 미래를 향한 신앙양교육의 증대성 강조.
7. 한국학교의 한국 문화와 컴퓨터 교육: 투철한 이념과 소명감으로 공헌하시는 김종례 박사가 이끄는 알찬 교육.
8. 자체 교회: 아름다운 예배실을 비롯, 12개의 교실, 운동장, 주차장 등 공간적 여유 구비.
9. 교통 편리: 93번 도로에서 1/2마일, 495번 도로에서 2마일, 128번 도로에서 10분 거리로, 보스톤을 비롯, 각 지역에서 쉽게 오실 수 있음.

## 모임 안내

주일예배 영어 예배 오전 9:30  
 대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공부성인성경반 오전 9:3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00  
 주일새벽 기도회 오전 6:0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수요일특별기도회 오후 8:00  
 금요일성경공부 제자훈련 오후 8:00  
 속회모임 오후 7:30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00



담임목사: 전 중현 (Rev. Walter C. Chun, Ph.D.)

교회사무실: (978) 470-0621, (978) 470-1998(Fax) 목사관: (978) 689-3990



# 반 석 감 리 교 회

( 구 : 살 렘 반 석 교 회 ) - 뉴햄프셔 소재 -  
 담임목사 : 김 기 천 Pastor : Rev. Ki Cheon Kim

## \*정기집회\*

주일대예배 : 오전 11시, 금요 찬양 예배 : 저녁 8시  
 화요성경공부 : 오후 12시30분, 4시. 속회모임:속회별

교회주소: Korean Methodist Church of NH  
 517 Mammoth Rd.  
 Londonderry, NH 03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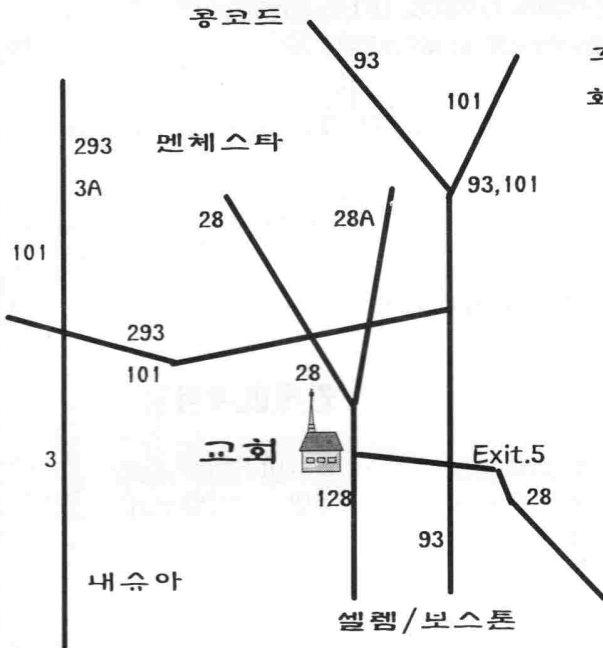
교회전화: (603) 421- 9100

Website; <http://home.att.net/~genesispro>

사택주소: Rev.Ki Cheon Kim  
 2Walden Sq.Rd.,#109  
 Cambridge, MA 02140

사택전화: (617) 441- 5248 (FAX가능)

E-mail : [ki&suk@post.harvard.edu](mailto:ki&suk@post.harvard.edu).



## 확복한 교회, 확복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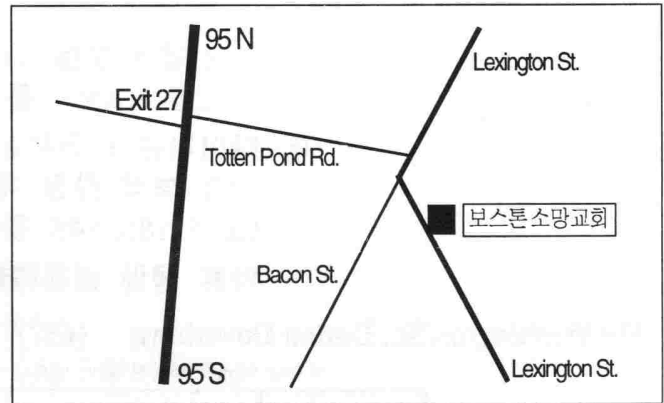
# 보스톤 소망교회

## THE KOREAN HOPE CHURCH OF BOSTON

담임목사 박찬수

### 교회 집회 안내

- ◆ 주일 예배            오후 1시30분
- ◆ 유년 주일학교        오후 1시30분
- ◆ 중,고등부 예배        오후 1시30분
- ◆ 청년 대학부        금요일 오후 7시, 주일 오후 3시
- ◆ 찬양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 ◆ Joy Bible (여성 성경공부)    수요일 오전 10시30분
- ◆ 새가족 성경공부    수요일 오후 8시30분



375 Lexington St., Waltham, MA 02154  
 Tel.: (617) 484-4069



# 퀸지영생장로교회

Quincy Youngsang Presbyterian Church (PCUSA)  
270 Franklin Street, Quincy, MA 02169 • (617)770-2755

담임: 강준모 목사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엡2:22)

Direction: Take Rt. 93S from Boston or Rt. 93N from South to Rt. 3S to Cape Cod. Take Exit 18 on Rt. 3 to Washington St. (this exit is immediately after splitting from Rt. 93) Take left at Washington St. After crossing the overpass, take Right to 1 O’Clock direction at the traffic light (there is no sign, but this is the Washington St.) Come to the end of this street. Take a right turn, and the church is on your left.

### 예배시간

주일예배: 주일 2:00 p.m.  
주일학교(영어): 주일 2:00 p.m.  
아침 기도회: 월 - 토 6:00 a.m.

### 교회학교

수요예배: 수 8:00 p.m.  
목요성경공부: 목 8:00 p.m.  
청년선교회: 금 7:00 p.m.  
영어회화반: 수 7:0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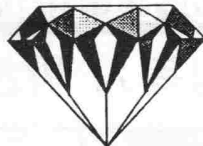
### 퀸지한국학교

토요일 9:00 a.m.  
주일: 12:30 p.m.

교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매주 일요일 12시-5시  
까지 OPEN 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스톤 보석 (THE DIAMOND EXCHANGE)

한국말로 된 간판  
「보스톤  
보석」을  
꼭 확인  
하세요



신용과 성실 그리고 정직을 바탕으로  
교포 여러분의 품위를 지켜드립니다.

- ⊗ 다이아몬드 전문점(GIA Certificate)
- ⊗ 각종 보석 감정, 재가공 상담등 전문 서비스
- ⊗ Gold-18K,14K 팔찌,반지,목걸이 도매가 제공
- ⊗ 약혼 생일 결혼예물 상담

339 Washington St., Boston Downtown (617)723-7979 / 723-3029 / 491-6227(야간) Mr.& Mrs.李

비슷한 Shop이 나란히 붙어 있으니 한국간판 「보스톤 보석」을 꼭 확인하세요

	CVS	Woolworth	Filenes	Jordan Marsh
	↓ ↓ ↓			① Red Line Downtown Crossing
Jewelry Building	DIAMOND EXCHANGE	Nature Food	B.J.E.	



# 김연숙 재정 계획 전문인 (CFP, CMFC)



Yon Kim Corkum, CFP, CMFC  
Advanced Planner Group  
Master Financial Advisor  
(781) 849-0980

## 자격증

- \* 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P)
- \* Chartered Mutual Fund Consultant (CMFC)
- \* Series 7 증권 브로커 자격증 보유
- \* Series 63 매사추세츠주 증권 법률 자격증 보유
- \* Series 65 연방정부 단일 투자 상담가 자격증 보유

## 등록증

- \*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Financial Planning

· 각종 투자와 보험 · 스타크 · 본드 · 뮤추얼 펀드 ·  
· 생명보험 · 양로원보험 · 건강보험 ·

현재 미국내 재정 기획 기업 중에서 선두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재정 기획 회사」(1백 5년의 역사와 1억 50조 달러의 자산을 소유하고 2백만명의 고객)내 8,000여명의 재정 기획 전문가 중에서도, 김연숙씨는 해박한 투자의 지식과 철저한 고객 서비스로서 최상급에 해당하는 MASTER ADVISOR의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기금으로는 은퇴후의 생활이 불안합니다. 현명한 은퇴 계획을 서두르십시오. 자녀의 밝은 미래, 대학의 학자금을 가장 고효율로 마련하시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각종의 스페셜 프로그램과 프로모션을 마련하여, 최고의 전문가가 한인여러분들께 친절히 봉사합니다.

**예금 이자를 상회하는 고소득의 수익률!**



Financial  
Advisors

**American Express Financial Advisors Inc.  
IDS Life Insurance Company**

25 Braintree Hill Office Park Suite 301, P.O. Box 9154

Braintree, MA 02184

Phone: (781)849-0980 Ext. 172 Fax: (781)848-3617

E-Mail: Yon.K.Corkum@AEXP.com



# Prudential Securities



증권



채권



은퇴연금



IRA

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성실히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Gregory S. Pang (방선욱)**  
Financial Advisor

60 Walnut Street, Wellesley, MA 02181

(617) 239-8420

MA (800) 225-9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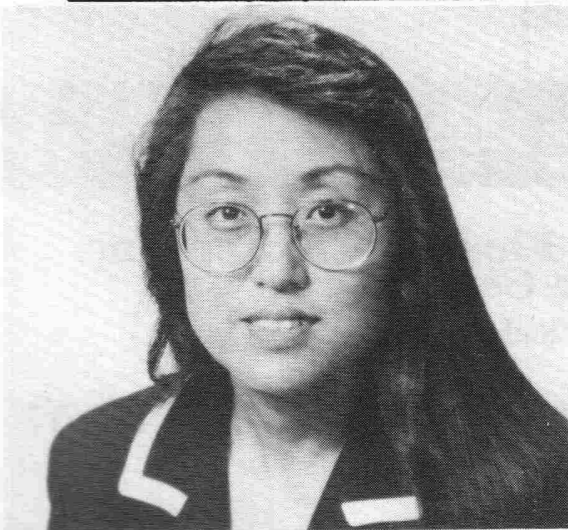
Fax. (617) 235-8506



**이현주**  
공인회계사

**C.P.A.**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회계처리 및 감사  
경영진단 및 절세상담  
각종 License 신청업무

**용자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523 Main St.

Reading, MA 01867

Tel.: (781) 944-2442

Fax: (781) 944-2772

14 Monument Square

Leominster, MA 01453

Tel.: (978) 534-8801

Fax: (978) 840-3651

Convenience.  
Value.  
Choice.

Three good reasons to bank  
with BankBoston.

For more information on our Products  
and Services please contact Mary Troung  
at 617-434-3442 or call 1-800-2-BOSTON.

bankboston.com  
Member FDIC



ASIAN AMERICAN  
BANK & TRUST  
COMPANY

The Bank That Serves All Nations

We are a full service commercial bank  
offering a full line of banking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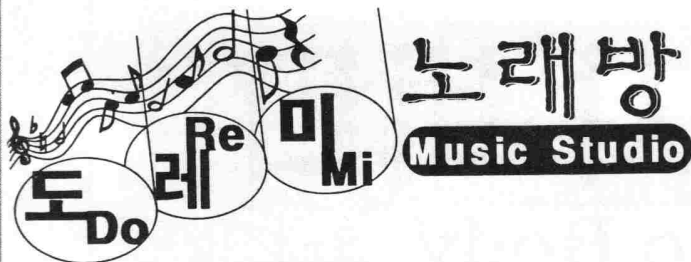
You can bank with us via the Internet at  
[www.asianamericanbank.com](http://www.asianamericanbank.com)

Please contact one of our Customer Relations  
Representatives for further information.

모든 종류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풀서비스의 상업 은행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객 상담원을 찾아주십시오.

68 Harrison Avenue, Boston, MA 02111  
Tel: (617) 695-2800 • Fax: (617) 695-2875  
e-mail address: aab@asianamericanbank.com  
Boston • Somerville • Allston

MEMBER FDIC



- ▶ 생일 및 각종 모임 노래미 노래방으로 결정하세요
- ▶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 정성스런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 ▶ 넓은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디스크로 설비한 각종 최신  
시설이 여러분의 노래를 더욱  
멋지게 들려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노래연습  
친구와 함께 노래자랑

Tel: (617) 738-8900  
442 Cambridge St., Allston, MA 02134

동차 • 내인 자동차 • 태양자동차 • 태양자동차 • 태양자동차 • 태양자동차

## 태양자동차공업사

한인 최대의 자동차 정비 수리 및 바디 전문 업체

총면적 8천 스퀘어피트에, 보스톤에서는 최초로 한인 자동차 바디샵까지 갖춘 태양자동차  
공업사는 더욱 전문화된 기술과 경험, 철저한 서비스로 성실히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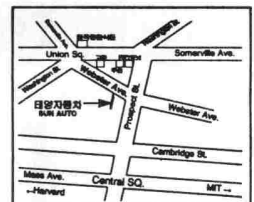
태양 엔진 전문 수리샵  
최신형 컴퓨터로 진단, 정검 Owner가 직접 정비합니다.

### 태양 자동차 바디샵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자동차 바디 페인트 배합 시설완비  
원색과 같은 페인트를 재생시킬수 있는 전문화된 기술진  
크게 파손된 자동차 바디를 새것처럼 바꾸는 기술  
사고난 자동차에 대한 보험회사 견적서 작성

#### 서비스 분야

엔진 수리	트랜스미션
브레이크	컴퓨터 테스트
머플러	자동차 전기
에어콘	튠업
오일 교환	자동차 바디
자동차 페인트	프레임 조정
타이어	토잉 서비스



영업시간  
월~금 : 7:30 am - 6:00 pm  
토요일 : 7:30 am - 1:00 pm

47 Webster Ave., Somerville, MA 02143  
정비부: (617) 628-1589 바디부: (617) 628-4646  
팩스: (617) 628-6337



## 자동차 종합정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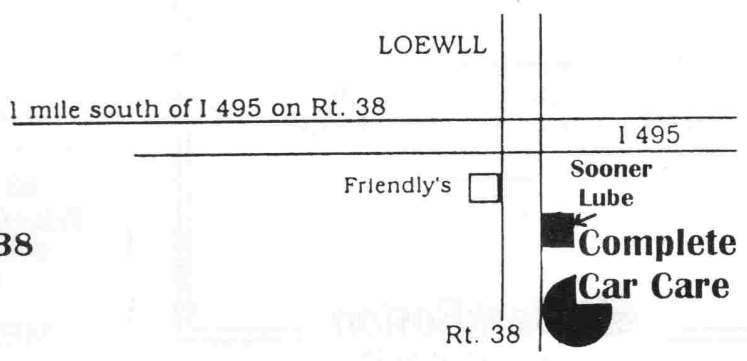
컴퓨터에 의한 각종 차량의 정확한 분석

- Tune-Up
- Heating & Air Condition
- Brake
- Muffler
- Engine Repair
- Alignment

수너루브(Tel.978-858-0070)  
 자매업체인 옆에 문의  
 David Kim

**Tel. (978) 858-0074**

**818 MAIN STREET**  
 1 Mile South of 495 on Rte.38  
**TEWKSBURY**  
 Sooner Lube 자매업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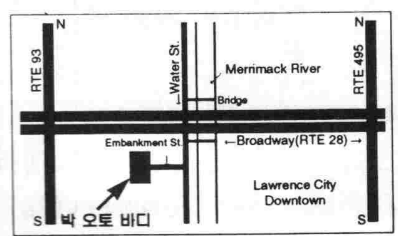


# 박 자동차 바디

## Park Auto Body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되었습니까?  
 오토바디 예술사 - 박 오토바디를 찾아주십시오.

### 자동차 보험 청구를 위한 견적서 작성



**Park Auto Body**  
 11 Embankment St.  
 Lawrence, MA 01842

**Tel.: (978) 686-9546**  
**Fax.: (978) 687-6255**

# 자동차 바디

# FOREIGN MOTORS WEST

당신께서는 어떤 차를 타고 계십니까? 당신께서는 어떤 차를 타고 싶으십니까?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떤곳에 차를 맡겨야 될까요? 점점 Computer화, 고급화, 다양한 테크닉, 다양한 도색 방법 - 모르면 못고치는 기계입니다.. 오너도 모르는 순간 Mechanic의 실수로 전기와 Computer에 이상이 생겨 정말 위험한 순간에 Air Bag이 터져주지 않는다면.....

FOREIGN MOTORS WESTS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장비, 많은 Information을 가진, 매사추세츠에서 가장 큰 시설과 장비, 기술의 Full Service 딜러입니다. 안심하고 당신의 차를 맡겨주십시오. 교민들을 위해 성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차종이든지 전화 주십시오.

## Full Service Dealer Bodyshop



롤스로이스, 벤츠  
랜지 로버, BMW, 쉼페르  
최신, 최고의 장비, 완벽한 수리  
Professional Body Technician

240 Eliot St., Ashland, MA 01721

Tel.: (617) 237-1212

(508) 881-8080

Fax.: (508) 881-3723

Chong Kyo Yi

이정규



동양, 유럽 및 미국 골동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고유 한국 예술품과 기구는 물론, 현대 한국 예술품도 판매 및 구매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를 환영하며, 구경삼이 부담없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BUYING & SELLING

❁ Chinese Export Porcelain ❁

❁ Imari, Satsuma, Netsuke ❁

❁ Sterling Silver ❁

❁ Estate Jewelry ❁

❁ European & Continental Decorative Art & Antiques ❁

235 Washington Street, Marblehead, MA 01945

Tel.: (781) 639-1847 (제시카 리)

# Allston TV

## Allston TV를 아세요?

여기 항상 저렴한 가격과 친절함 봉사로 교포 여러분의 전자제품 구입에 손과 발이 되어 드립니다. 대부분의 상품이 Lechmere나 Circuit City보다 저렴하며, Free Delivery와 Set-up도 해 드립니다. <Ask for Detail>

### 취급 품목 안내

- ▶ Audio & Video
- ▶ Camaras
- ▶ Telecomm.
- ▶ KODAK Film Processing
- ▶ Small Home Appliances
- ▶ Watches, Ray-Ban Sunglasses
- ▶ Electronics, Accessories

OPEN HOURS  
월-토: 9:30am-7:30pm  
일: 휴무



AT&T Wireless Services

## Allston TV

190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el.: (617)787-1667 Fax.: (617)782-7723

# 농장식품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싱싱한 무공해 야채를 저렴한 가격으로 교민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 각종 동양식품 일체 (진절, 봉사, 특별서비스)

- 모든 동양식품 일체
- 항상 청결 신선유지 가격저렴
- 생산상 생로알제리 한국과일 모목있음
- 비디오 테이프 대여
- 질 좋은 육류 판매
- 위생적인 무공해 일반찬

(617) 232-0800 낮

(508) 584-9255 밤

1617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146

# 동일한의원

뉴잉글랜드 유일의 여자 한의사 이금재

CA · MA · NCCA 자격증 보유



간병 전문

- 한방부인과 ● 임지매예방약
- 부작용없는 확실한 다이어트
- 중국비방의 아이들 보약 및 어른보약
- 공부잘하고 체력증진 강화 및 기억력증강

사전 예약 바람 침, 부황 치료합니다

148 Quincyshore Dr. #42  
N. Quincy, MA 02171  
Tel.: (781) 289-3694 or (617) 770-1256

한방은 한의사에게

# 一善堂 漢藥房

## 일선당 한약방

E. SHAN TANG

OPEN HOURS

화-일(Tue-Sun): 10:00am-5:30pm

월(Sun): 휴무(Closed)

B.J. WANG



일선당  
한약방

Harvard Ave.

Comm. Ave.

Brighton Ave.

157-A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el:(617)787-4503 Fax:(617) 787-4519



# 범양해운(주)

PUM YANG EXPRESS U.S.A., INC.

159 High Plain Rd., Andover, MA 01810



귀국 이삿짐 탁송 안내  
상담 전화 (24 시간)  
1-800-939-4989

이제부터 귀국 이사짐은 믿을 수  
있는 회사, 범양해운에 맡기십시오

귀국 쇼핑 특별요금 안내

**보스톤 지역: 이진원 Tel. (978) 470-8272 Fax. (508) 470-88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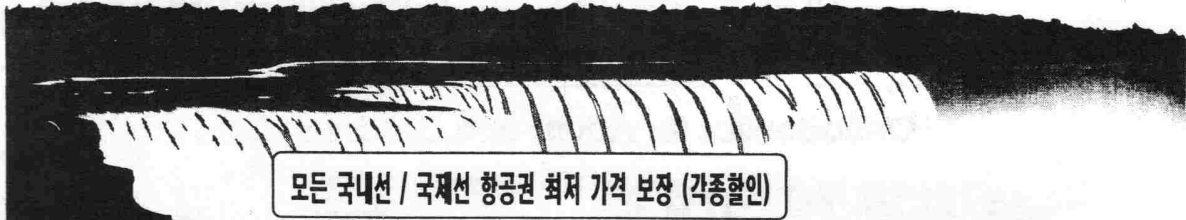
**뉴욕 사무소**  
425 Victoria Terrace  
Ridgefield, NJ 07657  
Tel. 1-800-PUM YANG  
Fax. (201) 840-1569

**서울 본사**  
대표전화 (02) 774-6161  
Fax. (02) 774-9145

**부산 사무소**  
대표전화 (051) 469-4191  
Fax. (051) 464-2944

## 보스톤 코리아 여행사 Korean Travel & Tours in Boston

보스톤 교통의 중심지 Kenmore Sq. (B.U Book Store 옆)에 위치하여 최고의 서비스/최저가격으로 항상 봉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내선 / 국제선 항공권 최저 가격 보장 (각종할인)

### 보스톤 유일의 관광가이드

- 일일관광 시나 & 프리머스
- 뉴잉글랜드, 캐나다지역
- VISA, 통역/번역 기타

무료전화

# 1-800-473-1922

- ▶ 시민권 · 운전면허증 취득 안내
- ▶ 통역 · 번역
- ▶ 각종 Tour

Tel.: (617)267-7777(Esther Chung, Paul Chung, Ameuda Kim) Fax: (617)267-5009

650 Beacon St. Suite #205, Boston, MA 02215

# 안 치 과

**안태준, D.M.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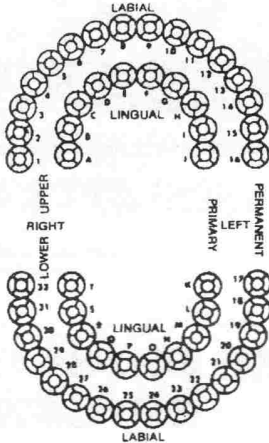
Tuffs 치과대학  
Clinical Instructor

**문유경, D.M.D.**

Harvard 치과대학  
Clinical Instructor

**최웅제, D.M.D.**

Tuffs 치과대학  
Clinical Instructor



Preventive:

X-rays, 치석제거, 치료상담, 충치예방, Fluoride Treatment(불소)

Cosmetic:

미용 치과, Bleaching, Bonding, Veneers

Pedodontic:

소아치과, 어린이 충치예방(Sealants)

Orthodontic:

교정치과

Restorative:

아말감, 보철(Crowns & Bridges), 틀니, 부분틀니, 치아이식(Implants)

Periodontic:

치주질환치료

Endodontic:

신경치료

Oral Surgery:

구강외과, 발치, 사랑니제거

Oral Pathology:

병리치과, 구강암진단

## Cronin's Dental

225 Moody Street

Waltham, MA 02453

**(781) 647-8000**

# 한은애 교정치과

**Dr. Unae K. Han (Orthodontist)**

하바드 치과대학 D.M.D.

하바드 보건대학 M.P.H.

미시간 치과대학 M.S. 교정전문의

**Orthodontics for Adults and Children**

**성인과 어린이  
교정치료 전문**

Member  
American Association of  
Orthodontists



**Orthodontist Dr. Unae K. Han**

789 Mass. Ave., Lexington, MA 02173

**Tel.: (781) 862-0930**



# 한국인 변호사

## Young Lee Danesh

◆ 소비자 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 교통사고  
(Vehicle Accident)

◆ 민사소송  
(Civil Suit)

◆ 개인상해  
(Personal Injury)

◆ 법률상담  
(Legal Counsel)

◆ 이민문제  
(Immigration Service)

Law Office of Young Lee Danesh  
109 State St., Boston, MA 02109

Tel.: (617) 367-4949 Fax.: (617) 723-9458

# 한 식 훈 변호사



Kenneth S. Han  
Attorneys at L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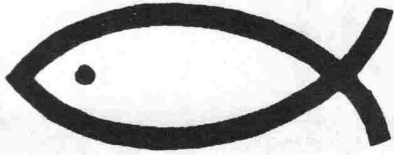
### GENERAL PRACTICE Including;

- ◆ 상법 Commercial
- ◆ 사고상해법 Personal Injury/Auto Accidents
- ◆ 회사법 Corporate/Small Business
- ◆ 부동산법 Real Estate
- ◆ 가정법 Family/Divorce
- ◆ 상속법 Wills/Trust & Estate
- ◆ 민사, 형사 소송 Civil/Criminal Litig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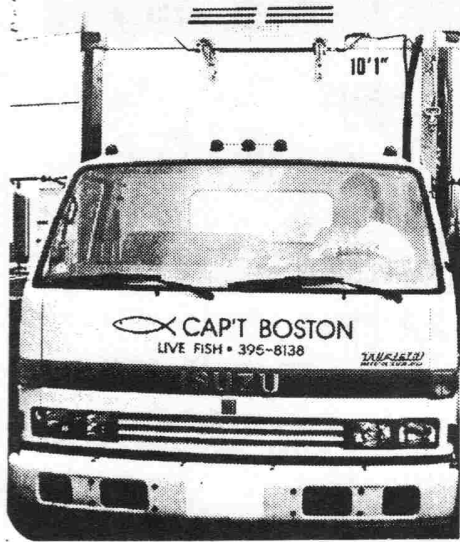
Law Offices of Kenneth S. Han

165-U New Boston St., Suite 289, Woburn, MA 01801

Tel: (781) 935-4620 Fax: (781) 935-4187



싱싱한 생선  
**Captain Boston Fish**



싱싱함 그 자체의 신선한 생선과  
획감은 언제든지 쿨링(생선전용보관)차로  
원하시는 그 때에 바로 도착합니다.

**식당전용배달**

영업시간 : 월-토 8am-7:30pm

Tel. (781) 395-8138

Fax (781) 391-5782

375 Main St., Medford, MA 02155



93번 북쪽에서 오실 때: Exit 31번, Rt. 38 도로 패스, 직진, 두번째 신호등 코너  
93번 남쪽에서 오실 때: Exit 29번, Rt. 38 North, 왼쪽 Harvard St., 두번째 신호등 코너



**다 빈**

**일식 한식**

**FULL LIQU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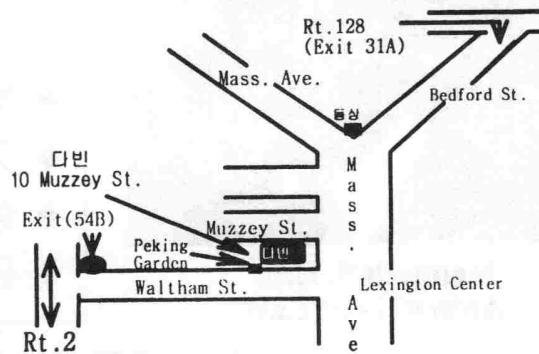
- ◆ 최신의 시설
- ◆ 아늑한 분위기
- ◆ 즉석 바베큐 (갈비, 불고기)
- ◆ 일본식 다다미 방
- ◆ 연회석 완비 (20, 30, 100석)
- ◆ 파킹장 완비 (오후 4시 이후)

**런치 스페셜**

월-토 11:30 AM - 2:30 PM

**디너**

일-목 5:00 AM - 10:30 PM  
금-토 5:00 AM - 11:00 PM



10 Muzzey St., Lexington Center

Tel.: (781) 860-0171

# 우리 식품점

싱싱한 야채는 농장에서 직접 구입합니다.  
아모레 노에비아 화장품, 코리아나 화장품 전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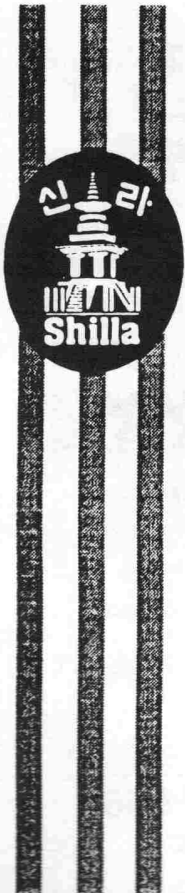
- ♥ 싱싱한 야채 및 생선류
- ♥ 선물 코너
- ♥ 조리된 밑반찬류
- ♥ 생선회 주문 받습니다.
- ♥ 각종 동양 식품 일체

"생선회 및 밑반찬, 떡 주문 환영"  
항상 세일 가격으로 손님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매일 오전9시-오후9시 (연중 무휴)

21 West Main Street, Ayer, MA 01432

Tel.: (973) 772-1772



# 신라

Korean & Japanese Restaurant

새롭게 단장 이전하였습니다!

보스톤 최고의 음식과 서비스, HARVARD SQ. 의 명소 "신라"

- 각종 모임을 위한 완벽한 설비
- 신선도 제일의 스시바
- Sake, 맥주, 각종 와인
- 7 Days Open (금, 토 밤 11시까지)
- 찰스 호텔 주차료 2시간까지 할인

점심 : 12:00PM - 2:30PM

저녁 : 5:00PM - 10:30PM

(토, 일요일은 하루종일 영업합니다.)

TEL. (617)547-7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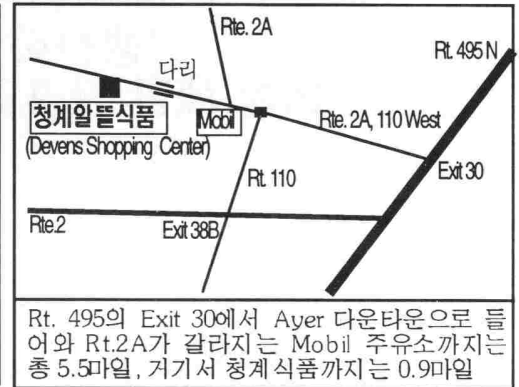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뉴잉글랜드 최고의 동양식품점  
**청계알뜰식품**

Chung Ge Market, 210-D West Main St.  
 Ayer, MA 01432 (Devens Shopping Center 내)

연중무휴, 주7일 영업 - 10시부터 9시 !!  
 ☎(978)772-5213

- ▶ 다양한 동양식품류
- ▶ 조리된 밑반찬류
- ▶ 최신 시설의 생선부
- ▶ 싱싱한 생선회 전문
- ▶ 신선한 야채류
- ▶ 최고급 비육류
- ▶ 한국 비디오 테이프
- ▶ 특별 선물용품 코너
- ▶ 아모레 화장품 취급
- ▶ 넓은 주차장 완비



# 아시아나 그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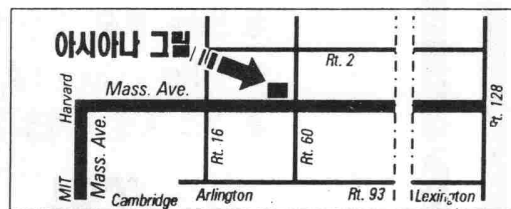
ASIANA GRILLE

- 한식일절
- 바베큐 그릴
- 스시바
- 중화요리(짜장, 짬뽕)
- 정통 일식(스시, 사시미)
- 타이음식

**FREE PARKING**

Open Hour : 7 days open

Mon~Thur: 11:30am~10:00pm / Fri~Sat: 11:30am~11:00pm / Sunday: 2:30pm~10:00pm



Tel. (781) 646-2766 / 5686

Arlington, MA 02174 (아시아나 그릴은 알링톤 센터에 있습니다.)

# 신신 식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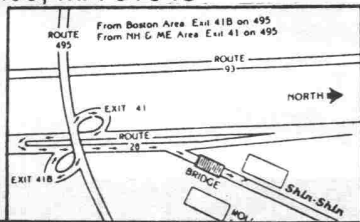
SHIN SHIN ORIENTAL MARKET

저렴한 가격

다양한 품목을 자랑합니다

**978-686-0813**

615 South Union St,  
Lawrence, MA 01843



◀영업시간▶  
화-목: 오전10시-오후7시  
금-토: 오전10시-오후8시  
일요일: 오전10시-오후6시  
휴무일: 휴무함

떡 전문점

# 형제떡집

뉴잉글랜드의 유일한 떡집

백일 돛 잔치 주문 환영 각종 떡 종류 일체

687 Lowell St. #3-B (Armory Sq.), Mathuen, MASS 01844  
**(978) 975-3303**  
27 Shandel Drive, Tewksbury, MASS 01976  
**(978) 851-4182**

New JangSoo Korean B.B.Q. Restaurant

# 뉴장수갈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갈비 경력 18년의 주인이 직접 요리합니다.  
음식은 정성입니다. 정성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즉석 왕갈비 · 냉면 전문

260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Tel. (781) 272-3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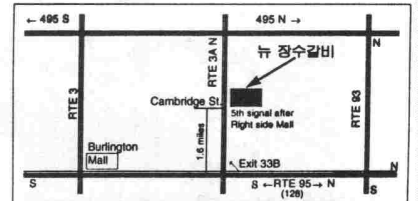
대형 무료 주차 시설

OPEN HOURS

화-금: 11am-10pm

토-일: 12pm-10pm

월: 휴무



# Little Pusan Restaurant

# 작은 부산집



단체 주문 환영함  
한식, 일식, 중식 일체  
이적이고 조용한 분위기

즉석 돌판구이 - 모든 육류  
각종 생선 요리  
돌솥 비빔밥

83 Main St., Maynard, MA 01754  
**Tel. (978) 897-5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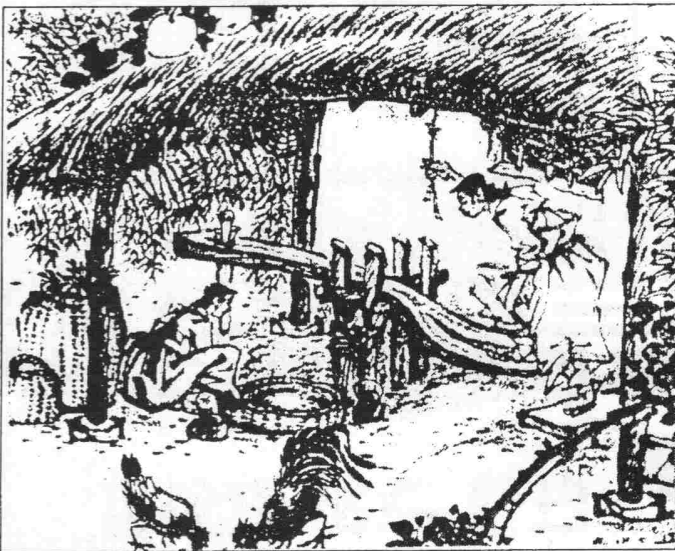
Korean & Japanese Restaurant



# 우촌집

## Wuchon House

“오늘 우촌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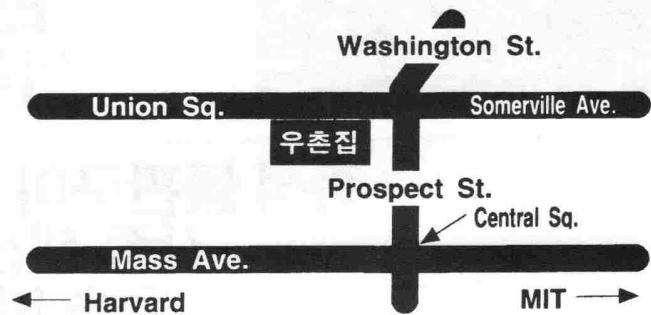
**일품요리**  
 특미 냉면·즉석곱창·낙지전골  
 왕갈비·해물전골

**[ 영업시간 ]** 7일 영업

(월 - 토) 11:30am - 11:00pm

(일요일) 12:00pm - 10:00pm

- 각종 대소연회
- 4-12명까지의 아담한 연회실
- 뚝·회갑·생일·잔치음식 주문 받습니다.
- Harvard & MIT에서 약 1마일 반
- 무료주차장 오후 5시 이후(일요일은 무료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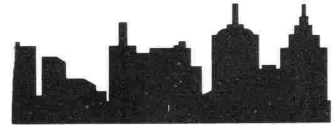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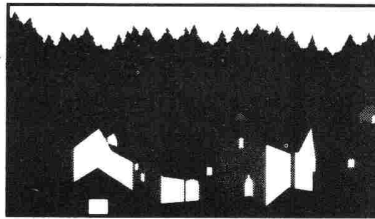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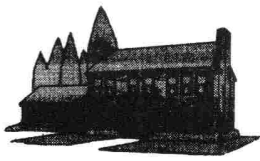
**Tel.: (617)623-3313 · Fax: (617)623-3439**

**Union Square. 290 Somerville Ave., Somerville, MA**

# LEE ASSOCIATES

## 사업과 부동산 서비스

- ◆부동산 (주택, 상업용)
- ◆융자 (노 인컴 베리피케이션 프로그램)
- ◆비즈니스 브로커 (다양한 리스팅이 많음)



보스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부동산 거래의 모든 것을 확실히 책임지고 결실을 드립니다.



사업, 부동산  
무료 상담

무료 상담 전화 (800) 867-9000

이경해 (Kay Dong)

239 Fremont St., Tauton, MA 02780

Tel: (508) 880-3535 Fax: (508) 828-1585

# 큰 나무 인쇄소

David Park  
Owner



100 Grove Street, Worcester, MA 01605-2630  
508 754 1608 Fax: 508 752 3114 dpark-bp@ix.netcom.com

## QUALITY FIRST Commercial Printing

### PREPRESS

Desktop Publishing (PC & Mac) \* Imaging \* File Conversion \* Film \*  
Proofing \* Match Prints

### PRINTING

1,2, and 4 Color \* Business Cards \* Envelopes \* Letterheads \*  
Brochures \* Newsletter \* Flyers \* Sales & Promotional Materials \*  
Booklets \* Manuals \* Books

COMPLETE BINDERY AND FINISHING SERVICES